



홍콩
Hongkong



C O N T E N T S

축사	03
발간사	04
사업소개	05
해피투게더	20
식품영양학과(ICC)+ 경영	34
사회복지학부	46
통합팀 A, J	56
경영정보	68
교감 말레이시아 고센	78
카이신구어(중국어과)	86
미술디자인학부	102





2 0 1 1 년 삼 육 대 학 교 해 외 봉 사 단

문화스포츠봉사대	116
물리치료	122
GATE	136
환경그린디자인	152
원예학과	166
영미어문학부	182
자치기구 연합A, B	194
한중교류모임	226
유아교육	234
쉐어힘A	244
쉐어힘B	247



Happy Together

(사복, 물치, 생체)

목적 및 취지

베트남의 청소년 청소년들에게 교육봉사를 통하여 우리문화를 알리고 삼육대학교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전함.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베트남 하노이 Minh Phu 지역
파견기간	6월 21일(화) ~ 7월 2일(토) (총 11박 12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정종화(사회복지학과), 이재구(생활체육학과), 이완희(물리치료학과) - 대장 : 김지희(사회복지학과) - 대원 : 사복, 생체, 물리치료학과 전체 19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 베트남 IOGT - 베트남 민꾸고등학교
활동내용	80여명의 베트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고 한국의 태권도와 축구경기, 스포츠마사지 교육 및 우리문화와 한글교육 및 위생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하여 교육봉사를 동시에 추진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6월21일 ~7월1일	베트남 하노이 Minh Phu 지역	22명 (학생19명 교수3명)	-생활체육학과 : 축구&배드민턴&태권도 교육 -물리치료학과 : 스포츠 마사지 교육 -사회복지학과 : 한국문화 교육 및 위생교육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17	권정아	생활체육학과	2		
지도교수	이완희	물리치료학과				18	박제환	생활체육학과	1		
지도교수	이재구	생활체육학과				19	김영일	생활체육학과	1		
대장	김지희	사회복지학과	4								
2	홍윤기	사회복지학과	4								
3	유창석	사회복지학과	4								
4	권수진	사회복지학과	4								
5	금해나	사회복지학과	4								
6	조은아	사회복지학과	2								
7	양휘	물리치료학과	3								
8	김승환	물리치료학과	3								
9	홍새봄	물리치료학과	3								
10	윤미연	물리치료학과	3								
11	정종찬	물리치료학과	3								
12	심준완	생활체육학과	3								
13	민석홍	생활체육학과	2								
14	박호선	생활체육학과	2								
15	노푸름	생활체육학과	2								
16	강세연	생활체육학과	2								



활동사진 자료집

- ① 스포츠마사지 수업진행(물치과 진행)
- ② 수료식 전체사진
- ③ 한국문화의 체험(천연염색-사복과 진행)
- ④ 기념촬영
- ⑤ 스포츠 마사지교실 (물리치료학과 진행)





1



10



7

- ⑥ 한국문화와 게임(사복과 진행)
- ⑦ 태권도 교실(생체과 진행)
- ⑧ 베트남 봉사대 지도교수와 민프
고등학교 선생님
- ⑨ 프로그램 학생들과 함께
- ⑩ 베트남의 세계문화유산 하롱베이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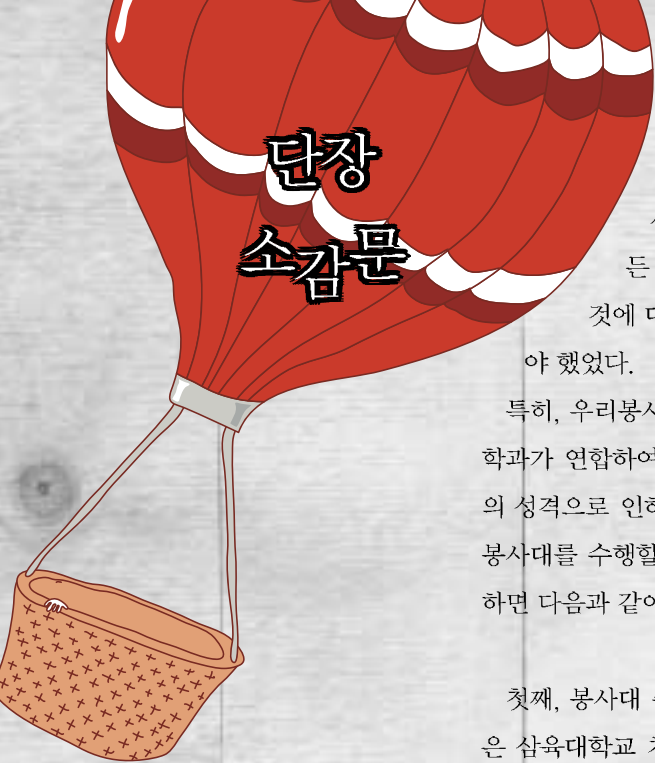
활동사진 자료집



8



9



단장 소감문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봉사대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서 교육봉사를 수행하였다. 처음 가는 곳이라 여러 가지 힘
든 사정이 있었고 공산권이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기에 프로그램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야 하였다.

특히, 우리봉사대는 사회복지학과, 생활체육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세 개
학과가 연합하여 봉사대를 구성하였기에 서로 다른 학과 특성과 프로그램
의 성격으로 인하여 많은 회의와 논의가 필요하였지만 어려움 없이 베트남
봉사대를 수행할 수 있었다. 봉사대를 다녀와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
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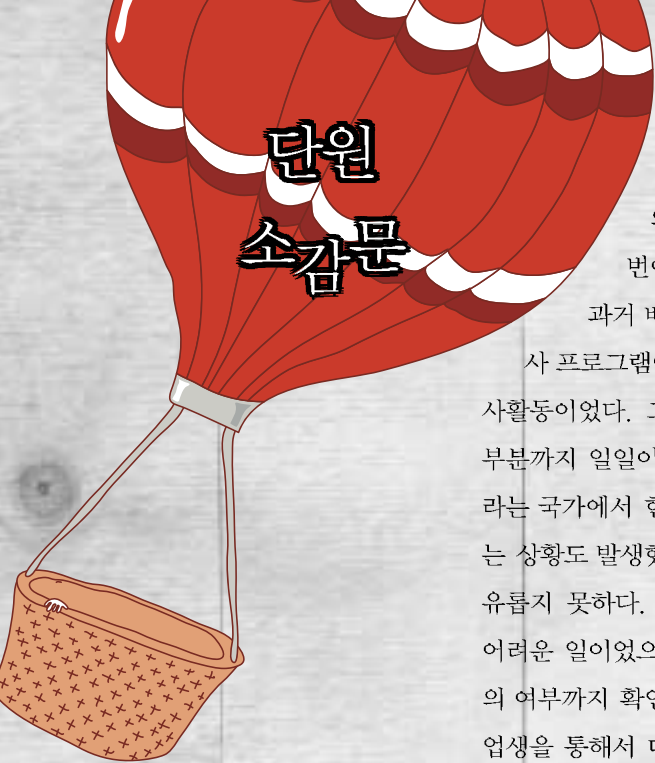
첫째, 봉사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했다. 베트남
은 삼육대학교 처음으로 하노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곳의 정보를 모
두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의존하여야 하였다. 이론 인하여 현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무엇보다 새로운 지역을 봉사활동을 갈 때에는 많은
기도와 모임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다. 프로그램
의 준비물과 현지 시설에 대한 정보나 현지 학생들의 상황을 출발 2주일
전에 알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도 변경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
라서 봉사대를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준비는 기도로서 모임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둘째,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봉사대는 영어로 프
로그램을 진행 했지만 현지 통역이 없이 영어로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질 못했다. 태권도의 경우 말이 필요 없지만 스포
츠 마사지나 문화교실의 경우 언어의 장벽은 참으로 넘기 힘든 문제였다.
다행히도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79명은 우수한 학생들이어서 기본
영어회화가 가능한 학생이었지만 중간에 영어 통역이 있어도 우리학생들
의 영어에 한계가 있어서 서로가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밖에 없었
다.

셋째, 문화의 장벽과 현지 생활조건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리는

IOGT라는 민간 NGO단체의 시설을 임대하여 숙박을 해결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역시 어려움은 많았다. 아침에 식사가 달랑 빵만 나와서 물과 함께 빵만 먹어야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우리대학이 채식 주의라고 들어서 우유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생전에 물과 함께 빵을 먹기는 처음 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했다. 찜통더위 속에 35도를 넘는 더위와 함께 습도 150%라는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 저녁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쾌지수는 100%에 달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인내하면서 참아준 대원들이기에 매우 고맙고 고마웠다. 베트남은 아침에 빵을 주로 먹고 채소도 쓴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한 사전학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문화를 통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베트남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발전의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70년대를 생각했지만 인터넷 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시내에 나가면 신호등도 없이 시속 20Km의 제한 속도와 함께 매연이 자욱한 거리에서 오토바이와 버스 그리고 소와 마차가 함께 달리며, 교통질서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이런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는 그 모습에서 미래한국과 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단원 소감문

홍윤기

사회복지학과 4학년

이번 베트남 방문은 21살 때 철없던 막내로 갔었던 해외봉사는 분명히 달랐다. 이제는 봉사대에서 최고(最高) 학번이며 동시에 사회복지학과와 단장을 맡았던 봉사대였다. 과거 베트남에서 해외봉사를 했었을 때는 기업의 주최로 모든 봉사 프로그램이 거의 완비된 상태였고, 문화공연 연습에 집중했었던 봉사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외봉사는 모든 프로그램부터 일정,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하는 봉사활동이었다. 심지어 처음 몽골이라는 국가에서 현지 사정에 의해서 봉사활동 국가가 베트남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아직은 공산정권 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숙소나 현지 코디네이터를 구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대상자 및 숙소의 현황이나 지원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의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인적으로 호치민 대학의 한국어학과 졸업생을 통해서 대학생 통역 자원봉사자를 구하려고 했으나 현지 대학들이 대부분 기말고사 기간이라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원들은 모든 부분에서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 총괄단장이 지휘부터 각 학과의 단장들까지 모두가 사전 준비 작업을 교수님들과 병행하여 철저히 준비했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느끼는 베트남의 후덥지근한 날씨를 뒤로 하고 숙소와 프로그램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실행하려고 한 비빔밥 만들기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야채와 재료들을 조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더운 날씨로 인해 야채가 숨이 죽어버리거나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사회복지학과 대원들이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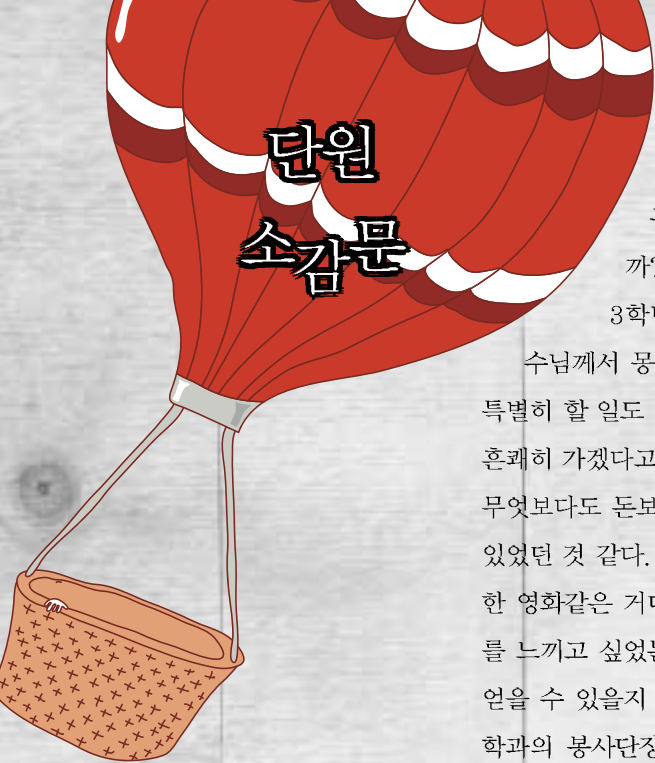
과거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었던 반면, 이번 대상자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었다. 말이 고등학생이지 체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만 한 체구였다. 어찌되었던 간에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급하게 만들어내서 지금 와서도 돌아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었던 프로그램들이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풍선을 맞아가며 온 몸을 물로 적셔야 했었던 프로그램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다. 내가 고생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의 그 웃음을

잊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

봉사대 대원들 모두가 적응하기 어려운 기후에서도 준비해갔었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웃고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해외봉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고생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아준 대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또한 모든 일정에서 지도교수로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이재구, 이완희, 정종화 교수님 모두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또한 현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IOGT 관계자 분들, 함께 고생해준 베트남 친구들 항, 빅 프영과 리틀 프영, 프랑스인 친구 실바에게도 감사하고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이번 해외봉사는 21살 때의 내 기억과 또다른 기억으로 남아 아주 오랫동안 추억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원 소감문

양희

물리치료학과 3학년

해외봉사활동을 갔다 온지 며칠이 지났다. 과연 봉사활동에서 무엇을 전해줄 것이고 원하던 것은 얻고 돌아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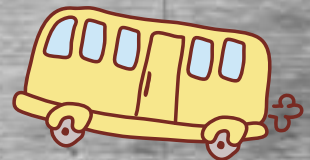
3학년 1학기를 시작하고 특별한 일 없이 지내던 도중 이완희교수님께서 몽골봉사대에 단장으로 갈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다. 방학에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봉사도 갈 수 있고 그곳이 해외라는 메리트 때문에 흔쾌히 가겠다고 했다. 웬지 빈둥거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돈보다 더 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그 밑에 깔려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대학에서 어쩌면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영화같은 거대한 감동이나 테레사 수녀처럼 절대적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봉사를 준비하는 동안 물리치료학과와 봉사단장으로서나 학생으로서, 봉사자로서 다양하게 해외봉사에 대해 20대 인생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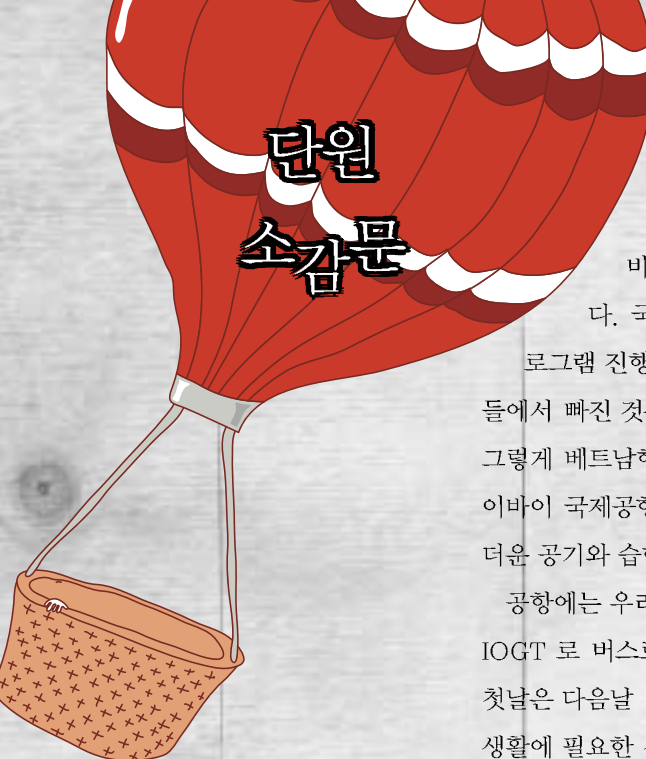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봉사준비는 버거웠다. 원래 가려던 몽골은 현지의 사정으로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힘겹게 방향을 틀은 베트남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처음 공지를 했던 50만원으로는 비행경비도 되지 않았고 결국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도 그런 것이 3개의 과가 같이 하는 활동이 처음이고 그만큼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3분의 교수님, 팀장과 3명의 단장, 각기 다른 봉사단원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이상적인 의지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종화교수님이 알던 지인을 통해 베트남 현지의 코디네이터를 구했고, 코디네이터를 통해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 정보들을 통해 교수님들은 우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었고 각 학과 단장들과 대원들은 각자 분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갔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부터 여러차례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팀명처럼 'HAPPY TOGETHER'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었지만 이를 통해 현지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일찍 찾은 것 같다.

6월 21일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인천공항에 모였다. 모두들 봉사준비로 지쳐있었지만 마음가득 내일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현지에 도착해서도 기대감은 이어졌다. 아직도 숙소로 들어가는 동안 모든 차도와 사람의 풍

경을 잊을 수 없다. 숙소에 들어가서 모든 정리를 끝마치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며 달라진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들떴다. 우리가 지내는 IOGT라는 시설은 우리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친절했다. 밥도 잠자리도 조금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 조금의 불편함이 밥을 먹을 때 어울려서 같이 반찬을 나누게 해주었고 모기장도 같이 설치하며 친해진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다.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현지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다. 다행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없고 모두들 서로를 배려해주었기 때문에 현지의 불편한 환경을 못 느낀 것 같다. 하루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봉사를 처음 시작한다는 설레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80여명의 민푸 현지 고등학생들이 차례차례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등학생들이었지만 키가 작고 말라서 중학생정도로 보였다. 첫 만남이었다. 생긴 것도 우리와 닮고 성격도 다 착해서 내 사촌동생들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의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들 또한 우리를 반겨주었다. 팀을 20명씩 4개로 나누어 사회복지학과 1팀, 생활체육학과 2팀,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1팀으로 나누어 4타임으로 돌아가며 진행했다. 물리치료학과 단원들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주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영어마저 이해를 못하지만 단원들은 손짓 발짓으로 무엇이랄도 하나 더 전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베트남 학생들 또한 마사지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한국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학교에서 내가 배우는 전공 기술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내가 전해준 마사지 기술을 학생들에게 다시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르칠 실력이 되는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편으로는 뭔가 남에게 도움을 줬다는 뿌듯함 느꼈다. 첫날의 도전이 잘 끝났기에 다음부터는 편안했다. 날마다 마사지 부위와 기술은 바뀌지만 학생들의 진지함과 우리의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서로 마사지를 해주며 평생 잊지 못할 정이 쌓였다. 언제나 일 것 같던 행복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뿌듯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학생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을 보게 되었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된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기자랑으로라도 우리에게 보답을 하기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해외봉사가 그들의 마음에도 큰 의미가 되었던 것 같아 더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들에게 전해주려던 건 마사지 기술과 여러 가지 선물들이었지만 이보다 사람과 사람의 정을 더 많이 준 것 같았다. 나또한 이번 봉사대에서 커다란 무언가를 바라고 봉사를 했지만 내가 느낀 건 한국에 도착해서 이완희교수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마음 한켠의 따뜻함이었다. 고민에 대한 해답이나 헌신적인 봉사는 없었다. 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조금이나마 깨달았고 헌신적인 봉사도 좋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무엇이랄도 전해준다면 상대방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외봉사를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가고 싶고 남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다. 베트남에서의 11박 12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거창하거나 진지하지는 않더라도 이번 해외봉사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배려하다보면 모두가 'HAPPY TOGETHER'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단원 소감문

김승환

물리치료학과 3학년

6월 21일 우리 happy together 해외봉사단은 인천국제공항으로 05:00까지 모두 집결하였다. 각 학과 별로 준비한 봉사 물품들로 가득 짐들 가지고 공항에 모두 모여 있었다. 국내 봉사가 아닌 해외봉사이니 만큼 하나의 실수로 봉사프로그램 진행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들 준비해온 물품들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하나 하나 체크하고 물품들을 비행기에 실었다. 그렇게 베트남행 비행기에 모두 탑승해 4시간여 비행후 우리는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 모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 같이 더운 공기와 습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공항에는 우리를 마중나온 현지 코디네이터와 함께 우리의 봉사 장소인 IOGT 로 버스로 이동하여 짐을 풀고 모두 취침에 들어 갔다. 베트남에서 첫날은 다음날 있을 봉사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시내에서 비품을 구입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각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들로 보냈다. 봉사첫날 우리 봉사대원들은 모두 기대감으로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많이 걱정하였지만 학생들은 영어를 무척이나 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친절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하나둘 가르치며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배를 타고 섬으로 가서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그리고 즐거운 휴식을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하노이 IOGT로 돌아와 나머지 3 일간의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다. 그렇게 다시 만난 학생들은 학생이 아닌 친구, 동생처럼 느껴졌다. 그들과 더욱 가까워 졌고 그들과 더욱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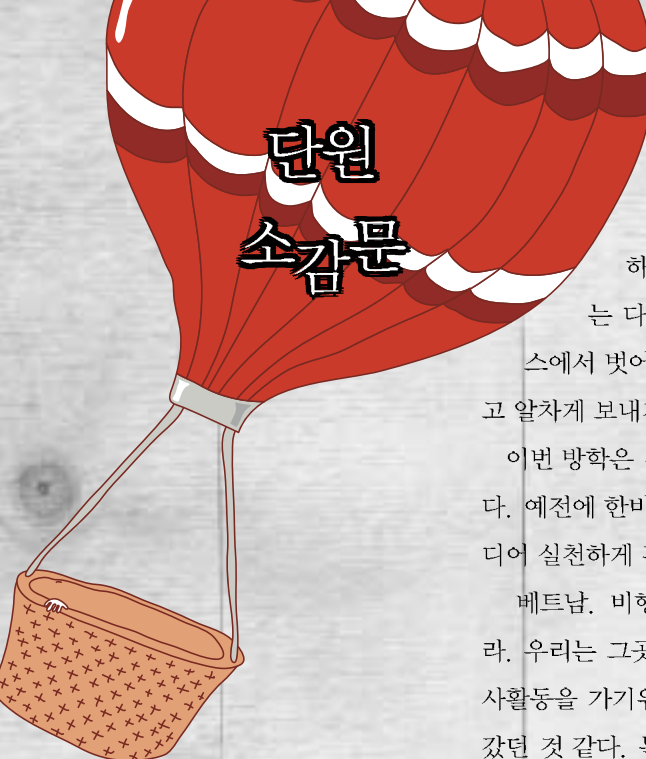
봉사 마지막 전 날 학생들은 우리 봉사대원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여 우리는 학생들의 공연을 보고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흔히 말하는 B-BOY 춤을 추고 단체 안무를 보여 주었다. 너무도 즐거운 시간 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한 학생에게 집으로 초대를 받았고 교수님의 허락 하에 저녁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다.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본 사원들, 호수는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평화로운 모습였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땐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한국에서와 비슷한 닭백숙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닭고기를 먹기 전에 닭의 목을 베어 생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는 음식이라 하였다. 나와 다른 봉사대원은 차마.. 먹지는 못했다. 그렇게 그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마지막날 봉사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다. “우리” 여기서의 우리는 봉사대원 만이 아니라 학생, 현지 staff, 봉사대원을 말한다. 우리는 모두 정이 들어 마지막이라는 아쉬움과 이별이라는 슬픔에 모두들 손을 잡고 다가올 마지막을 보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하며 버스 안에서 어찌면 살아가며 마지막이 될 베트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 그때 든 생각은 나는 베트남에 봉사를 하기 위해 왔지만 봉사를 했다는 생각보다는 봉사를 받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 사람들이 보여준 순수함, 친절함은 어느 것 과도 비교 할 수 없는 큰 선물 이였고 행복 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따뜻한 정이 있었고, 따뜻한 가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노이 바이 공항에 도착해 있었고 우리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나는 놀랄 수 밖 에 없었다. 공항까지 우리를 마중하기 위해 학생들이 나온 것 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장미와 작은 선물을 주었고 , 한마디를 하였다. “i’m very very miss you “ 우리 또한 그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이고 그리울 것이다. 정말이지 나는 잊을수 없는 베트남 해외봉사를 보냈다는 생각을 한다. 따뜻한 정을 배울 수 있었고, 따뜻한 가슴을 느낄 수 있었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과 웃음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단원 소감문

강세연

생활체육학과 2학년

여름방학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뜻하지 않게 해외봉사를 같이 가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무언가 신선하고 보람된 경험을 해보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으로 흔쾌히 승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시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때 보다 긴 방학이 주어졌지만 작년에는 뜻 깊고 알차게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된다.

이번 방학은 결코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해외봉사를 결정했다. 예전에 한비야씨의 책을 읽으며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해외봉사를 드디어 실천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 비행기로 인천공항에서부터 4시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나라.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위해 여러 가지를 바쁘게 준비했다. 생각보다 봉사활동을 가기위한 준비과정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정신없고 바쁘게 흘러갔던 것 같다. 특히 우리 생활체육학과는 태권도 도복과 신발, 배드민턴라켓, 축구 용품, 등 물품이 너무 많아 무게를 재며 도복을 빨고 다리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느라 모두가 고생하며 준비했었다. 게다가 물품은 물론 프로그램들도 정성껏 준비해 가기위해 모두들 틈틈이 자주 시간을 내서 회의하고 연습하며 계획을 짰다.

눈 깜짝 할 새에 시간이 흘러 출발 날이 되고, 공항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성공적인 봉사활동이 되길 기도하면서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도착하자마자 습한 공기와 찢듯한 날씨는 숨이 턱하고 막혔다. 우리는 그렇게 베트남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환영인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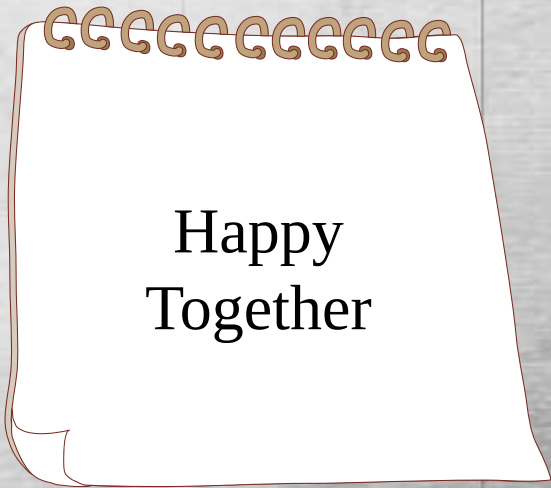
숙소로 향한 뒤 앞으로 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물품을 정리하며 첫째 날을 보냈다. 드디어 Minh Phu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는 날, 긴장감과 설레임을 안고 아이들을 만났다.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과의 얼떨떨한 첫 만남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공적으로 끝낸 첫 수업. 너무 뿌듯했다.

나는 배드민턴 수업과 축구수업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땀별에서 땀을 흘려도 마냥 좋았다. 게다가 하루하루 새로운 프로그램을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보이는 그곳의 학생들을위해 매일 밤 교수님과 봉사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했다. 항상 성공적이었다! 항상 잘 따라와주는 아이

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다. 사실 학생들이 우리를 잘 따를까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본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이었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무척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며 신난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가 재밌게 흘러갔다.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되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학생들의 자전거를 빌려 타고 MinhPhu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우리는 서로가 만나서 행복을 2배, 아니 그 이상을 나누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통할 수 있었다. 미소 하나로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었다. 먼저 웃어주었던 아이들과 작은 배려에도 감동했던 모습들이 찢히게 가슴속에 남아있다. 아마도 이런 기분 때문에 봉사를 하는가 싶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고 싶다. 헤어짐의 인사를 하며 눈물이 글썽글썽한 아이들을 바라보니 절로 코끝이 찡해졌다. 끝내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들을 달래며 작별인사를 했다.

이토록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들과 그만큼 멋진 봉사단원들, 교수님들, 모두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하다.



Happy
Together



식품영양학과 (ICC)+경영

목적 및 취지

1. 초,중,고생들에게 음악학교, 미술학교 등의 예술분야에 대학 교육을 운영한다.
2. 현지 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캄보디아 바탐방, Dewey International University
파견기간	6월 22일 ~ 7월 1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3명 - 대장 : 2명 - 대원 : 24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ICC Korea, IWHO
활동내용	의료봉사, 종이접기교실, 의료봉사 및 건강교육, 음악지도, korea folk dance 지도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6월 22일	Dewey International University	5명	의료봉사	
6월 23일 ~25일	Dewey International University	13명	종이접기교실, 그림교실, 음악지도, 의료봉사, 건강교육, korea folk dance 지도	
6월 26일	깜풍차낭	13명	ICC 어린이마을 방문	
6월 27일 ~ 7월 1일	캄보디아, 베트남	13명	문화탐방 및 귀국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이상업	식품영양학과			
지도교수	박동승				
지도교수	조광현	경영	4		
대장	이예지	식품영양학과	3	종이접기	
대장	전진형	경영	4		
3	김하연	식품영양학과	2	korea folk dance지도	
4	안신애	식품영양학과	2	음악지도	
5	조수양	식품영양학과	2	korea folk dance지도	
6	이보현	식품영양학과	4	의료봉사	
7	김혜영	식품영양학과	4	의료봉사	
8	홍진아	식품영양학과	4	의료봉사	
9	최주연	식품영양학과	4	의료봉사	
10	이유정	식품영양학과	1	그림교실	
11	장정세	식품영양학과	1	종이접기	
12	하솔이	식품영양학과	1	korea folk dance지도	
13	이하늘	식품영양학과	1	그림교실	
14	김상아	음악학과	1	음악지도	
15	이재민	동물자원학과	1	태권도	
16	송원진	경영	4		
17	경윤재	경영	4		
18	이진	미술컨텐츠	4		
19	황주혜	중국어	4		
20	유경주	경영	4		
21	유주호	경영	4		
22	윤이녕	경영	2		
23	박현주	일본	4		
24	권기옥	경영	1		



활동사진 자료집

- ① 그림교실
- ② 풍선아트
- ③ 태권도
- ④ 종이접기교실







활동사진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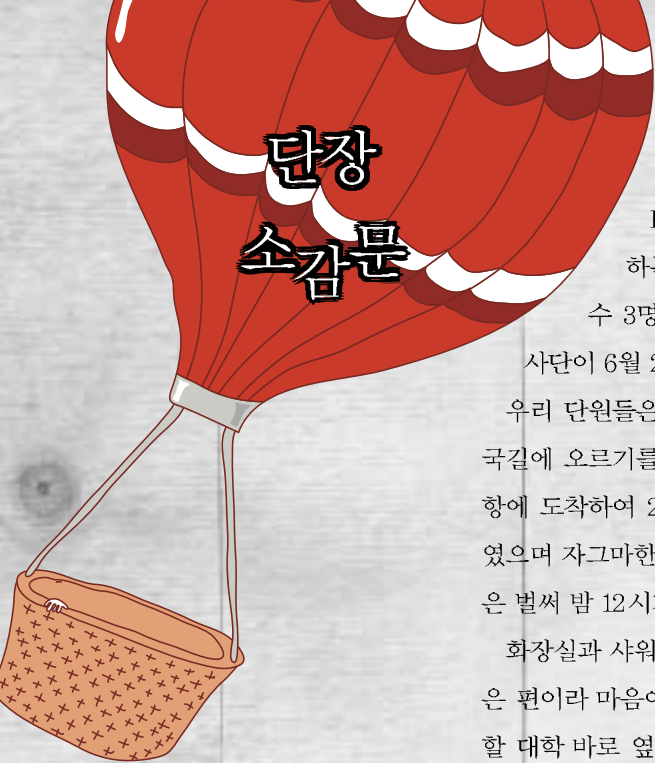


⑥

⑤ 의료봉사

⑤ korea folk dance





단장 소감문

이상업

식품영양학과 교수

2011년 하계 해외봉사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2011년 6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 Dwey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ICC Korea가 후원하는 봉사대에 지도 교수로 가게 되었다. 학생 24명에 지도교수 3명과 건강강의 강사와 무료 진료단 등 3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6월 22일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었다.

우리 단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흘간의 봉사를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길에 오르기를 염원하면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캄보디아 씨엔림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시간 30분을 버스로 이동하여 바탐방이란 도시에 도착하였으며 자그마한 호텔이라고 쓰여진 숙소에서 3인1실로 여정을 풀었다. 시간은 벌써 밤 12시가 넘어 배정된 방에서 1박을 하였다.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 숙소가 좋은 편이라 마음이 흐뭇하였다. 예산이 한정된 우리 팀은 숙소가 값싸고 활동할 대학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 뜰에 포장을 치고 임시로 만들어진 부엌에서 식사를 해 먹기로 하고 그 책임을 내가 맡았다. 숯불을 피워 밥을 짓고 반찬을 하였으며 상수도 시설이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잘 적응이 되었고 대원들이 어찌나 맛있게 먹어주던지 보람 있었다. 더 맛있게 많이 만들어 대원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열대과일과 찬에 이용할 재료들을 충분히 사다 놓곤 하였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시작하였지만 다행스럽게 바탐방에서 봉사하는 1주일간은 비가 오질 않았다.

캄보디아의 한류붐은 대단하였다. 한글교실을 50명정도만을 계획하고 2class로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200명)이 몰려와 비상대책으로 운영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한글교실, 음악교실, 태권도교실, Art교실 등)으로 1주간의 봉사를 무사히 마치는 얼마나 감사한지…….

Dewey대학의 학장과 임직원들이 친절하게 협조하여 주었던 것도 감사할 뿐이다. 우리 대원일행은 봉사를 마치고 ICC마을을 찾아 금일봉과 선물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캄보디아 ICC마을에는 고아 165명과 가난으로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300명의 아이들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가장 가치있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많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우리일행은 문화탐방으로 앙코르와트를 1일 돌아보고 베트남을 거쳐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지금은 새 학기를 위한 준비에 열중 하리라 생각한다.



단원 소감문

조수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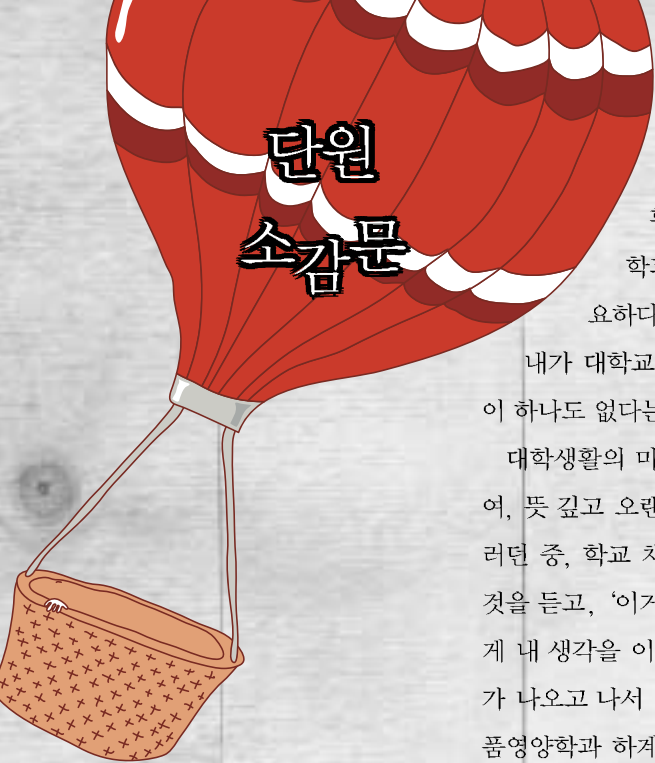
식품영양학과 2학년
포크댄스 지도

나는 이번이 두 번째 해외봉사이다. 작년에 방글라데시로 봉사를 다녀오고 이번엔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다. 학교에서 봉사동아리 ICC회원인 나는 한 달에 2000원씩 가난한 어린이에게 기부하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나보다 불우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직접 만나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적금을 깨고 하계봉사대에 참여하게 되었다.

봉사를 떠나기 전에 같이 참여하게 될 봉사대원들과 만나 무엇을 봉사할 것인지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출국 당일, 비행기를 타고 3~4시간이 지나 캄보디아 씨엠립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또 3시간을 달려 봉사할 지역인 바탐방에 도착했다. 봉사기간이 길지 않아서 좀 아쉬웠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포크댄스를 맡은 나는 다른 대원들과 춤 동작을 상의하여 캄보디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처음엔 말도 안통하고 답답해서 막막했지만 서투른 영어를 사용하여 캄보디아 학생들과 한 마음이 되어 춤을 췄다. 더운 지역에서 춤을 추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오전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매우 어려웠지만 오후에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때는 훨씬 수월했다. 이를 동안 음악에 맞춰 학생들과 열심히 춤동작을 익히고, 토요일에 발표회를 열었을 때 우리 봉사대원과 현지 학생들이 같이 포크댄스를 선보였다. 발표하는 내내 무척 떨리고 긴장됐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해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매우 희열을 느꼈다.

봉사를 할 때 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오가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인 듯싶다. 비록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민족도 국적도 다르지만 그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통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른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외봉사든 국내봉사든 꼭 참여하고 싶다.



단원 소감문

홍진아

식품영양학과 2학년
의료봉사 담당

2008년 삼육대학교에 입학하여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활동에 관심이 없어서 잘 참여하지 않았다. 봉사활동이나 학과 수업 외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년이 점점 높아져가면서 내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기억에 남는 추억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었다.

대학생활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그냥 흐지부지 보내면 안 된다고 결심하여, 뜻 깊고 오랜 시간동안 소중한 추억이 될 만한 활동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학교 채플시간에 해외봉사를 갔다 온 학생들이 후기를 발표하는 것을 듣고, '이거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담당 교수님이신 이상엽 교수님을 찾아갔고, 결국 식품영양학과 하계 해외 봉사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리 식품영양학과는 경영학과랑 같이 캄보디아의 바탐방으로 가게 되었다.

해외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이라 뭘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는지,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였다. 우리가 가서 해야 할 봉사는 한글교실, 태권도교실, 미술교실 등 학교에서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해 교육봉사도 있고,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의료봉사도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돕는 역할이긴 했지만 봉사한다고 가서 오히려 현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도움보다 폐를 끼치고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았다.

출발 전에는 정말 별 생각과 두려움 등이 많이 생겼었다. 하지만 막상 봉사 첫 날, 아파서 찾아오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과 두려움은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상처나 질병을 꼭 참고만 있어서 치료가 시급했던 환자들이었다. 작은 질병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랜 기간 치료를 못 받아서 심각해진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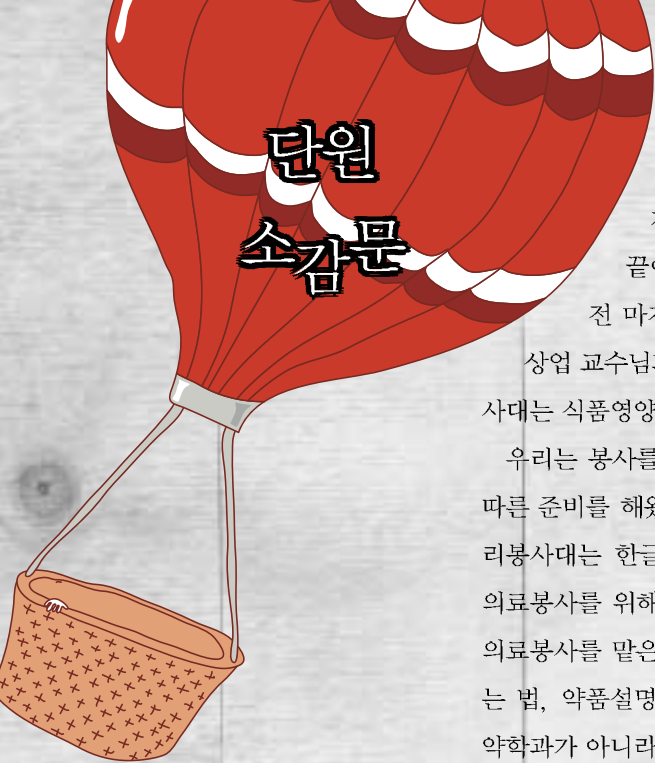
우리가 봉사를 그 지역의 교회에서 했는데 무료 진료 소식을 들은 주변 동네의 환자들도 찾아 왔다. 들쭉날 부터는 아직 진료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미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진료가 끝난 후에 우리에게 매우 감사해하며 나갈 때까지 허리를 숙이

고 인사하며 나가는 그들을 보며,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대한 고마움이 충분히 전해졌다.

그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보며 TV나 책, 인터넷을 통해 경험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다. 단순히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로인해 뿌듯함과 내가 그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첫날, 둘째날, 셋째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순수함, 겸손함, 행복감, 안타까움, 동질감, 감사함 등 많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독거노인 무료 점심 배식 등 국내 봉사활동을 했었지만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그때 느꼈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해줬다. 이번 우리 해외 봉사 캄보디아 팀에 보면 처음 봉사 가는 사람보다 두 번, 세 번째인 사람들이 많았다. 한 번 갔다 왔는데 왜 또 갈까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까 왜 또 가려는지 알겠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또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해외 봉사도 마약만큼 커다란 중독이 있는 것 같다.



단원 소감문

김혜영

식품영양학과 4학년
의료봉사 담당

올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해외봉사에 다녀오게 되었다.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정은 7월 1일 끝이 났다. 내가 이번 봉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졸업하기 전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상업 교수님과 조광현 교수님, 그리고 박동승 목사님과 함께한 우리 봉사대는 식품영양학과 ICC와 경영학과가 함께 하는 해외봉사였다.

우리는 봉사를 떠나기 전 여러차례 모임을 하며 사전계획을 짰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 내가 맡은 봉사 파트는 의료봉사였는데, 그 외에도 우리봉사대는 한글교육, 태권도교육, 종이접기, 음악교육 등을 준비하였다. 의료봉사를 위해 의사선생님 한분도 우리와 함께 봉사대에 합류 하셨는데, 의료봉사를 맡은 나와 친구들은 의사선생님과 사전미팅을 통해 처방전 읽는 법,약품설명, 현지사람들을 대하는 법 등을 미리 공부하였다. 우리가 약학도가 아니라서인지 의사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의료봉사에 관련된 준비물은 의사선생님이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가 따로 가져가야 할 준비물은 없었다. 그래서 떠나기 전날까지도 정말 내가 해외봉사를 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우리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 씨엠립공항에 도착을 하였다. 그리고도 3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달려 도착한 곳은 '바탐방'이라는 곳이었다. 우리는 그 곳의 한 작은 교회와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너무나도 열악했다. 특히 깨끗하지 못한 물로 씻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

도착한 다음날부터 우리는 봉사를 시작하였는데, 의료봉사를 하기위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봉사를 하기 전 현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현지 대학생들이 영어로 통역을 해 주었다. 의료봉사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병원에 가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약 몇 번만 먹어도 낫는 병을 몇 일, 몇 달 동안 방치한 환자들이 많았다. 감기환자가 많았고, 두통,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았다. 빈혈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었고, 관절통을 갖고 있는 환자도 있었다. 구충제를 먹어야 하는 환자들도 많았다.

환자들은 우리가 지어준 약봉지에 너무나도 고마워했다.

내가 이 곳 사람들에게 준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받은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기도 했다. 봉사를 한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환자는 무릎 뒤에 계란만한 크기의 혹을 떼내는 수술을 한 환자였다. 이 분 역시 비싼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우리의 봉사소식을 듣고 오신 분이였다. 의사선생님은 한국에서부터 잘 소독해 온 여러장비들을 가지고 살을 찌는 수술을 하였다. 마취를 했지만 환자는 너무나도 아파했다. 수술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다.

우리는 수술부위에 파리가 붙지 못하게 부채질을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종양을 떼내고 궤양수술부위에 봉대를 두르면서 수술은 끝이 났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환자는 우리에게 몇 번이고 머리 숙여 인사를 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뿌듯함 보다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다.

봉사를 하면서 그 곳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누리는 것을 이 곳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특별한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 처음 하게 된 봉사로 이것 저것 서툰 것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오게 된다면 더 알차게 준비하여 참여하고 싶다.



사회복지학부

목적 및 취지

해외 봉사활동과 세계 구호기구 탐방을 통하여 국제경험 확대와 자기계발 기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로서 안목과 비전을 갖게하며, 장차 봉사의 주체로서의 자질과 소양
을 훈련하기 위한.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필리핀 아클란지역 보라카이 하이스쿨
파견기간	6월 22일 ~ 7월 1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1명 - 대장 : 1명 - 대원 : 13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보라카이 하이스쿨
활동내용	교육봉사 : 태권도교실, 한글교실, 악기(리코더, 오카리나)교실, 수공공예교실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6월 24 일	보라카이 하이스쿨	80명	태권도교실, 한글교실, 악기(리코더, 오카 리나)교실, 수공공예교실	
6월 25 일	보라카이 하이스쿨	80명	태권도교실, 한글교실, 악기(리코더, 오카 리나)교실, 수공공예교실	
6월 26 일	보라카이 하이스쿨	80명	태권도교실, 한글교실, 악기(리코더, 오카 리나)교실, 수공공예교실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최윤희				
대장	김정아	보건관리	3		
2	강재욱	보건관리	2		
3	양성영	보건관리	5		
4	최호중	보건관리	1		
5	곽소담	사회복지	1		
6	김준기	사회복지	1		
7	김현진	사회복지	1		
8	박은경	사회복지	1		
9	옥수안	사회복지	1		
10	장한솔	사회복지	1		
11	최진영	보건관리	2		
12	이정현	보건관리	2		
13	박주희	사회복지	2		
14	우정은	보건관리	3		



- ① 오카리나팀+리코더팀 함께 퀴즈시간
- ② 한글노래팀 발표시간
- ③ 발표회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 ④ 연습하는 리코더팀
- ⑤ 오카리나팀 발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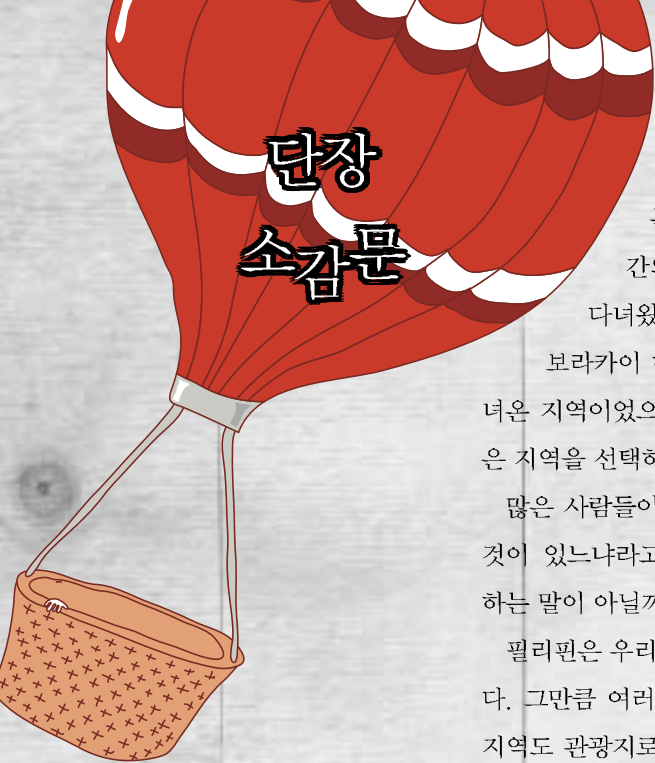


활동사진 자료집





- ⑥ 한글노래팀
- ⑦ 오카리나팀 단체사진
- ⑧ 아이들과 팀원들 단체사진
- ⑨ 리코더팀 발표시간
- ⑩ 태권도팀 발표시간



단장 소감문

최윤희

사회복지학부팀 지도교수

2011년 여름방학에도 6월 22일부터 7월1일까지 사회복지학부(보건관리, 사회복지) 학생 14명과 함께 9박10일 간의 하기봉사대를 필리핀 아클란지역 보라카이 하이스쿨로 다녀왔다.

보라카이 하이스쿨은 이미 작년에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온 지역이었으며, 올 해도 다른 곳을 가기보다 봉사의 연계성을 위해 같은 지역을 선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보라카이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기에 거기서 무슨 봉사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필리핀이라나는 나라를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한다.

필리핀은 우리 대학에서도 매년 가장 많은 봉사대 팀을 파견하는 나라이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열악함이 여전하다는 뜻일 것이다. 보라카이라는 지역도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조금만 이면을 들어가보면 그곳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명과 이기로부터 소외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

짧은 기간의 봉사를 통하여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까라는 의문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 지역 학교를 찾았다. 마침 태풍과 지역 행사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교육하기에 적당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중에 작년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아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작년에 봉사하였던 대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원들이 남겼던 기념품들, 사진들을 보며 다시 오겠다던 그 말을 믿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준 것보다 우리 대원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들에게 단순히 태권도나 악기, 한글과 같은 지식, 혹은 기술 이상의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열악한 삶에 매이지 않고 내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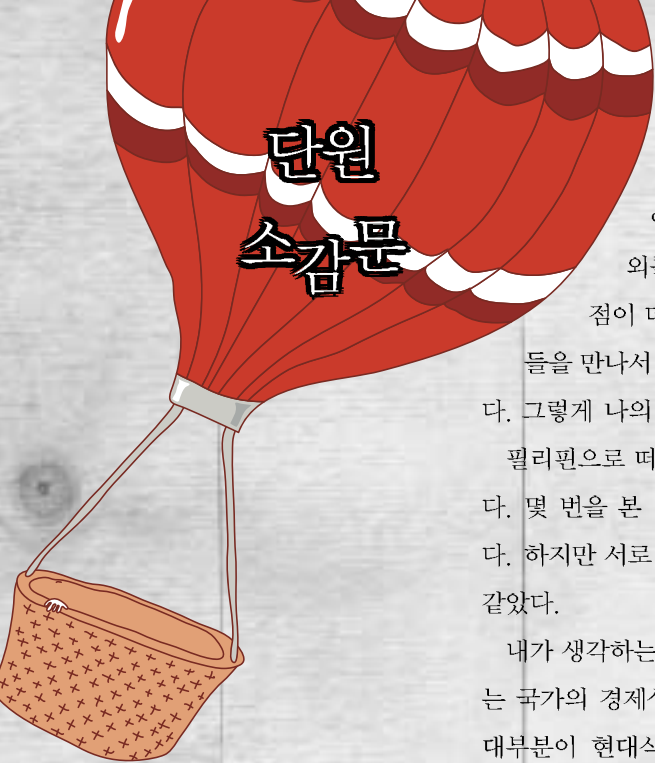
언제나처럼 떠나올 땐 서로가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내년, 아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떠나보내며 서로를 가슴에 품는다.

비록 무더운 날씨로 힘들고 쉽지 않은 여정들이었지만 우리 모든 대원들의 마음 속에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많은 장면들과 얼굴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항상 더 잘 준비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것은 또 내년을 위해 남겨놓아야 할 것 같다.

봉사대를 위해 후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삼육대학교에 감사를 드린다.





장한솔

사회복지학과 1학년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이번여름, 사회복지학과와 보건복지학부의 연합팀으로 이루어진 사회복지학부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라는 점이 더 마음에 와 닿았다. 다른 문화를 접하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았다. 그렇게 나의 봉사는 시작되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 봉사대원들은 모두 인천공항 한편에 모였다. 몇 번을 본 대원들부터 처음 본 대원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 하지만 서로 대화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보니 서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내가 생각하는 필리핀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마닐라의 도심은 대부분이 현대식 건물이었고 휘황찬란한 것들도 많았다. 또 그와 반대로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차에 달라붙어 구걸하는 어린아이부터 거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늙은 노인 분까지……. 필리핀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던 것 같다.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숙소로 도착하였고 첫 하루를 정리했다. 이튿날 필리핀 식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보라카이로 떠나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두 시간 정도를 허비하고 말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 다른 공항에 도착 후 또 차를 이용해 한 시간 남짓 이동을 하고 보라카이로 들어가는 배에 탑승을 했다. 보라카이는 마닐라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량이 있었지만 훨씬 깨끗했고 자연경관도 빼어났다. 보라카이에 도착해서 가장먼저 한 일은 봉사내역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나와 다른 두 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팀은 같이 준비한 것을 맞춰보고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점검하였다. 그걸로 인해 다른 친구들과 더욱 친해졌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드디어 봉사가 시작되는 날, 나는 과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열심히 노력해서 한 동작이라도 더 가르쳐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르칠 학생들이 있는 보라카이 하이스쿨로 갔다.

모두 한 강의실에 모여 각자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골랐는데 그중에서 태권도 팀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좋았고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교육 봉사가 시작되고 우리 태권도 팀은 서로 맡은 역할을 중시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번 충격을 먹었고, 그로인해 우리를 각성하고 더욱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날의 봉사가 끝난 날 우리 팀은 밤늦게까지 프로그램을 짰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품새를 익히면서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에는 모든 운동에서 중요시 하는 명상도 알려주었고 기본적인 자세와 다음날에 있을 발표회에서 보여줄 품새와 여러 가지 동작들을 알려주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항상 웃으면서 따라와 주었고 그로인해 우리는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웃으면서 나에게 보라카이가 새겨진 티셔츠와 보라카이의 흰 모래가 담긴 작은 병과 나의 이름이 새겨진 예쁜 펜을 선물로 주었다. 이것에 정말 감동했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줘야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위해준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알려준 동작을 맞추고 우리가 준비한 피와 도복을 아이들에게 주고 발표회를 가졌다. 우리가 연습한 만큼 아이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멋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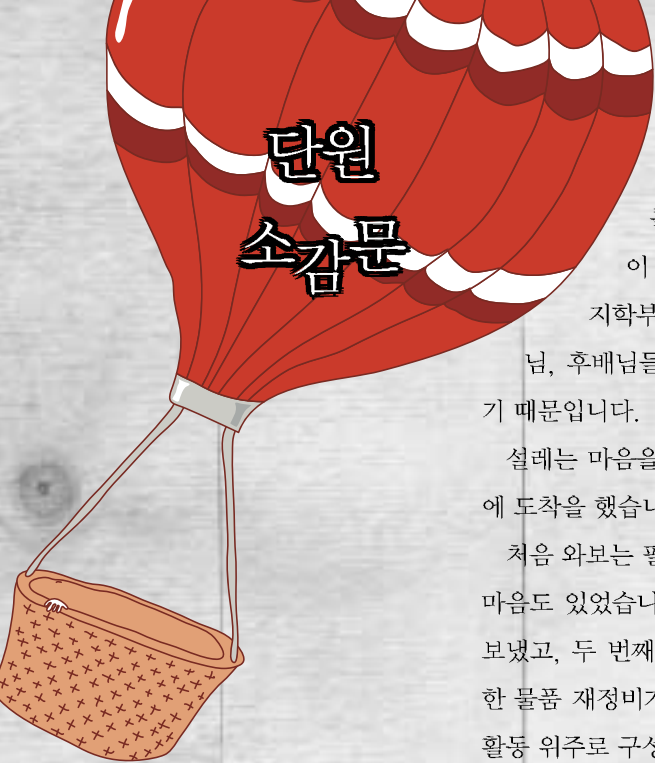
그렇게 발표회가 끝난 후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며 다음을 기약하였다. 아이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봉사대의 옷을 주기도 하고, 그 옷에 내 이름도 새겨주고 참 많은 일들을 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보람찬 봉사였다.

내가 필리핀에서 보고 느낀 것, 그리고 보라카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낀 것들은 정말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번 봉사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에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었고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베푸는 삶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봤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짜증을 내는 일이 없었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로가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사람들이 웃으면서 대충 대충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좁혀지지 않는 빈부격차와 가난의 대물림은 필리핀의 과제로 남아있다.

노력하는 것은 하층민들이나 돈을 버는 것은 일부 부유층이 다인 것 같았다. 필리핀이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고 장벽을 넘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봉사라는 것을 알게 해준 필리핀의 보라카이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봉사라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철저한 준비와 많은 시뮬레이션 연습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것은 앞으로 내 미래의 크나큰 이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깨달음들을 나의 전공에 맞게 살릴 것이다.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 학교와 보라카이 하이스쿨의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보라카이를 놀러간다면 꼭 그들에게 찾아가 더욱 많은 것들을 베풀수 있기를 바라며 짧으나마 진심이 담긴 나의 보고서를 마치려 한다.





단원 소감문

박주희

사회복지학과 2학년

교육봉사다 필리핀 보라카이 에서

이번학기 여름방학을 맞아 저는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학년 때 가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누구보다도 컸던 저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또 사회복지학부내에서 가는 것이라서, 잘 아는 동기들뿐만 아니라 선배님, 후배님들까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난 첫째 날, 우리 봉사대는 마닐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필리핀 풍경에 신기하기도 했고 많이 낯설어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첫날은 도착해서 봉사대원들 각자의 정비의 시간으로 보냈고, 두 번째 날부터 교육봉사의 최종 회의와, 교육봉사 활동 시 필요한 물품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봉사대의 교육프로그램은 음악과 신체활동 위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음악프로그램에는 악기연주 활동을 위주로 구성해서 오카리나, 리코더, 한글노래(울동) 이렇게 3가지였고, 신체활동으로는 중복되지만 한글노래(울동), 태권도가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보라카이 하이스쿨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필리핀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제일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라카이 하이스쿨 친구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이라는 측면을 프로그램 속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 봉사대원들 모두 심혈을 기울여 각자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세 번째 날 보라카이로 향했습니다. 보라카이에 도착한 봉사대원들은 보라카이 하이스쿨 친구들과 만난다는 설렘과 친구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중 오카리나파트를 담당했는데, 처음에 오카리나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없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오카리나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삼삼오오 몰려왔습니다. 봉사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 친구들과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간단한 인사 후에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얘기를 해야 친구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제대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자, 하이스쿨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것

저것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우리가 낯설텐데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작은 얘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우리는 그 다음날 또 보자는 약속을 하고 친구들은 집으로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봉사를 간 첫날, 처음 본 친구들과 짧은 두 시간동안의 대화를 하며 서로를 조금 알았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그 친구들이 보고 싶고, 뭔가 마음이 움직인 듯 한 느낌을 받았고,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 두 번째 날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저희 팀은 오카리나의 운지법과 연주곡 등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쉽게 배울 수 있는 리코더나 오카리나가 필리핀친구들에게는 낯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엔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다가 서서히 느는 실력에 재미를 느끼고, 다른 곡을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로 실력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봉사를 마치는 즈음에 한 친구가 “내일이 저희 마지막 날인가요?” 라고 묻는데, 그렇다고 대답해주는 저도 벌써부터 너무 아쉬웠고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날 오카리나 팀 친구들과 숙소로 돌아와서 학교 친구들에게 영어와 한글로 쓴 편지를 한통씩 써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팔찌를 하나씩 사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니 뭔가 마음도 뭉클하고 아쉬운 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정이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던 봉사의 마지막 날에는 프로그램 전체 부서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발표회 시간에는 친구들의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과 진짜 즐기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태권도 팀의 질도 넘치는 태극1장, 리코더팀과 오카리나팀의 예쁜 노래소리, 한글노래팀의 귀여운 율동과 한글노래로 발표회는 정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 가고 오카리나 반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아쉬움의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어버려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숙소로 옮겨서 그날 밤 생각을 하는데, 가르쳤던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먼저 우리봉사대에게 와서 인사해주고 웃어주던 모든 친구들까지 생각이 나서 마음한쪽이 정말 뜨거워 졌던 밤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봉사의 시간을 가지며 든 생각들은 말도 안 통하는 친구들과 얼마나 교감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만큼 깊은 교감을 했다는 것이고, 먼저 다가감과 편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대를 통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배우게 되었고, 저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통합팀 A,J

목적 및 취지

삼육대학교 필리핀 봉사단 통합팀은 2011년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낙후된 필리핀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육 문화 및 건축 분야의 봉사활동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이 해외봉사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학생 개인의 사고 증진과 사랑의 실천으로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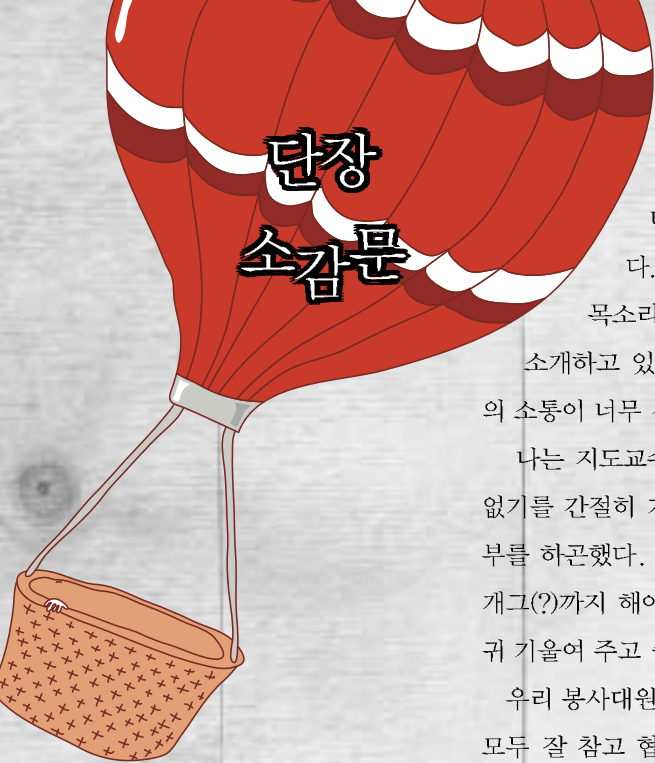
파견국 및 봉사장소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바오
파견기간	6월 22일 ~ 7월 5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3명 - 대장 : 1명 - 대원 : 22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삼육대학교 및 도르가, 대우건설(주)
활동내용	다바오 지역 SIA(Sahmyook International Academy)고등학교 건축봉사와 문화프로그램 및 교육, 초등학교 문화프로그램 및 교육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2011.6.22 ~7.2	SIA	26명	SIA고등학교 건축공사 및 문화프로그램(공작/과학/음악/울동/레크리에이션), 초등학교 문화교실	
2011.7.3 ~7.5	다바오 및 마닐라	26명	문화체험(다바오 해변, 팍상한 폭포, 온천 및 시내)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신종열	카메카트로닉스		대원교육 및 지도	
지도교수	정광호	건축학과		대원교육 및 지도	
지도교수	김영문	음악과		대원교육 및 지도	
대장	조철호	카메카트로닉스	3	대장	
2	이종훈	건축학과	3	총무, 건축팀장	
3	조윤미	건축학과	3	재무/서기	
4	박정민	카메카트로닉스	2	문화팀장	
5	강원영	생명과학과	4	교육팀장	
6	김지혜	생명과학과	4	영양	
7	김태후	건축학과	3	영상	
8	최연경	간호학과	2	의료	
9	이혜미	상담심리학과	1		
10	황은지	화학과	3		
11	박상현	카메카트로닉스	2		
12	정예석	카메카트로닉스	2		
13	이병연	건축학과	1		
14	추인호	건축학과	1		
15	한소리	건축학과	3		
16	유세라	건축학과	3		
17	윤태영	건축학과	3		
18	김정실	건축학과	3	음악/울동	
19	이혜미	화학과	1		
20	윤혜진	간호학과	2	의료	
21	김정은	미술컨텐츠학과	2		
22	최소영	카메카트로닉스	2		
23	박건훈	카메카트로닉스	3		



단장 소감문

신종열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교수

이를 늦게 출발하여 학교 설립자를 만나 약 3시간 차를 타고 오지로 향했다. 늦은 밤에 현지 모임 장소에 도착했다. 많이 들던 목소리가 힘차게 들려온다. 분명히 예석이의 목소리였다. OK? OK. OK! 간단한 단어로 한국 문화와 학교를 소개하고 있었다. 소통이 되는 것 같았다. 자신감 넘치는 간단한 단어의 소통이 너무 신통했다.

나는 지도교수라 우리대원들이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한 명도 부상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안전이 제일이고 아무도 부상없이 돌아가자고 당부를 하곤했다. 또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눈높이(?)를 맞추려고 썰렁한 개그(?)까지 해야 했다. 유머도 없고 재미도 없었겠지만 내 말에, 농담에 귀 기울여 주고 즐거이 받아주는 아들, 딸들이 너무 예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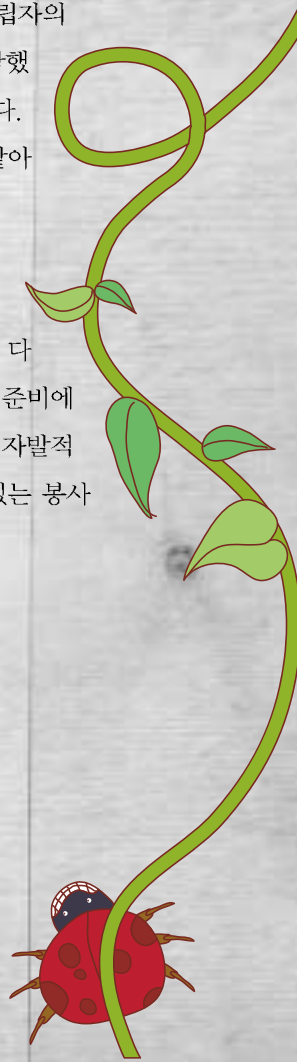
우리 봉사대원들은 처음 겪는 오지생활, 특히 화장실의 불편함을 이기고 모두 잘 참고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아침나절엔 건축봉사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문화 소개 및 과학/공작 등을 마치고 함께 재밌게 놀아주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오후에도 콘크리트를 비비고, 또 블록을 나르는 힘든 건축 봉사를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우리 대원들이 너무 신통하기도 했다. 언제 그들이 그런 일을 해보기도 했던가!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어했다. 근육에 알이 배기고 더러는 상처로 나기도 했지만 불평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봉사를 하고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줬다. 나도 아들딸과 같은 우리대원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의) 건축봉사를 하곤 했다.

우리대원들도 나와 같았을 거다. 한국에서 그 정도의 일을 하면 다음날 근육이 뭉치고 뼈근하게 될 텐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이다. 참으로 신기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몸이 무겁거나 힘들지가 않았다. 그 다음날은 거기 학생들과 4편을 나누어 농구 경기를 했다. 나도 한 게임을 풀로 뛰었다. 다음날 아플 것이 내심 겁이 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참으로 신기했다. 깨달은 바가 컸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를, 그것도 즐거운 맘으로 할 때는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참으로 신기했고 봉사의 힘은 대단했다. 우리봉사대원들의 봉사활동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

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거기 물은 전혀 이상이 없으니 그냥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설립자의 말을 믿고 우리 대원들을 물을 마신 모양이다. 2, 3일 지나면서 한 두 명씩 탈이 나기 시작했다. 화장실 사정은 최악의 상태이고 한 밤 중에 전기도 없다. 우리 대원들이 너무 힘들어 했다.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모든 대원들이 물갈이로 고생을 했다. 사전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했다. 그래도 돌아올 때는 거의 완쾌 돼 다행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닥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가 미흡했음을 시인하며 다음엔 가 능하면, 아니 꼭, 현지답사로 현지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어떤 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즉석에서 변경을 해야 했던 일로 손실이 있었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준비에 완전하면 손실도 적고 효율적이며 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봉사활동이었고 자발적 인 봉사활동은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새 에너지를 준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참으로 보람있는 봉사 활동이었다.





단장 소감문

김영문

통합팀 지도교수

첫 번째 해외봉사 경험은 내 인생의 많은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첫째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다. 필리핀 학생들은 진흙탕을 날마다 슬리퍼를 신고 걸어야 하고, 하루 세끼를 먹지 못하고 한국 돈으로 1,500원이 없어서 부모님 계신 집에 가지 못하지만, 항상 행복했고, 작은 배려와 선물 그리고 우리의 스치는 인사에도 항상 미소지었다. 필리핀이 행복 만족도 지수 2위인 이유는,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넉넉하고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만족과 감사였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감사할 수 있게 된 봉사였다.

둘째, 봉사대원들과의 팀웍을 통한 “배려하는 삶”이다.

26명의 봉사대원들은 서로 다른 과 학생들이 모인 그룹이었다. 물론 몇 명의 학생과 지도교수님은 같은 과였지만,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나의 경우는 두 분 교수님과 한 명의 학생과 약간의 일면식이 있을 뿐, 흥금을 터놓을 정도의 친분은 없는 터였다. 그런 26명의 15일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맺은 팀웍은 15일을 넘어 어떤 학생의 말처럼, 15년 같이 지낸 친분을 갖게 된 것이다. 그 팀웍의 근간을 이룬 것은 서로를 향한 배려였다. 서로를 향한 조그마한 배려에서 끈끈한 친분과 분열이 갈렸다. 모든 팀원들이 맡겨진 일을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한 것이 이번 봉사대의 최고의 성과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가족과 친구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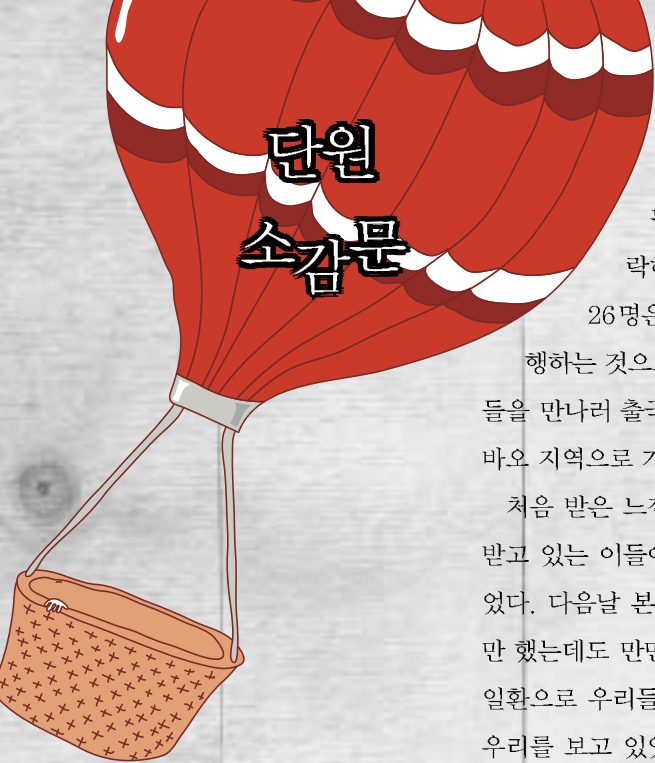
셋째, 내가 남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은 “은혜의 삶”이다.

한국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세 명의 조그마한 아이들을 맡기면서 내심 걱정이 많이 되었다. 건강도 좋지 않은 아내가 처음으로 15일이라는 기간을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보다 오히려 더 단합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 가족을 돌보셨다.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고, 안다고 다소 자만했던 내게 이번 해외봉사대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15일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두 분 교수

님, 23명의 헌신적인 학생들 그리고 아내와 세 아이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인 나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





단원 소감문

조철호

카메카트로닉스 3학년
통합팀 대장

26명의 순수한 아이들과 천사들

“필리핀 민다나우섬, 이곳은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게 될 지역이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봉사대는 현지 사정을 연락하고 알아본 후 봉사대 진행을 짜게 되었다. 우리 봉사대 26명은 건축봉사를 주로 하되 필리핀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팀을 정하고 준비를 하여 2011년 6월22일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러 출국하게 되었다. 민다나우섬 도착 후 현지 선생님을 만나 다바오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처음 받은 느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깊은 산골짜기에 소외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틀인 것 같았다. 짐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본격적으로 봉사다운 봉사가 시작되었다. 흙을 나르는 작업만 했는데도 만만치가 않았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노작교육처럼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들이 하는 것을 같이 하였다. 그 아이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말을 걸었다. “Hi”라고 그랬더니 아이들도 “hi”라고 대답을 해준게 신기하고 고마웠다. 봉사대를 준비하면서 필리핀은 영어를 쓰지만 파갈로그어를 국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준비한 파갈로그 인사말을 권했다. “Magandang vmaga” 하지만 아이들은 잘 모르는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중에 현지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파갈로그어가 아닌 비사야어를 사용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를 아예 쓸 줄 몰랐다.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로 물어보면서 비사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봉사활동에서 이것을 했던 것이 제일 잘 되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여기 봉사대원 누구보다 그들과 친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쓰면 우리도 그 외국인에게 친근감을 느끼듯이 그들도 그렇겠지. 결국 나는 비사야어를 쓰면서 그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건축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나는 비사야어를 쓰면서 그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건축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들의 건축 재료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벽돌을 밟으면 으스러지고 살짝만 쳐도 두동강이 나다니. 덕분에 벽돌을 옮기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으며 부상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 그러므로 조심히 옮기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다. 인부들은 생각보다 느리게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열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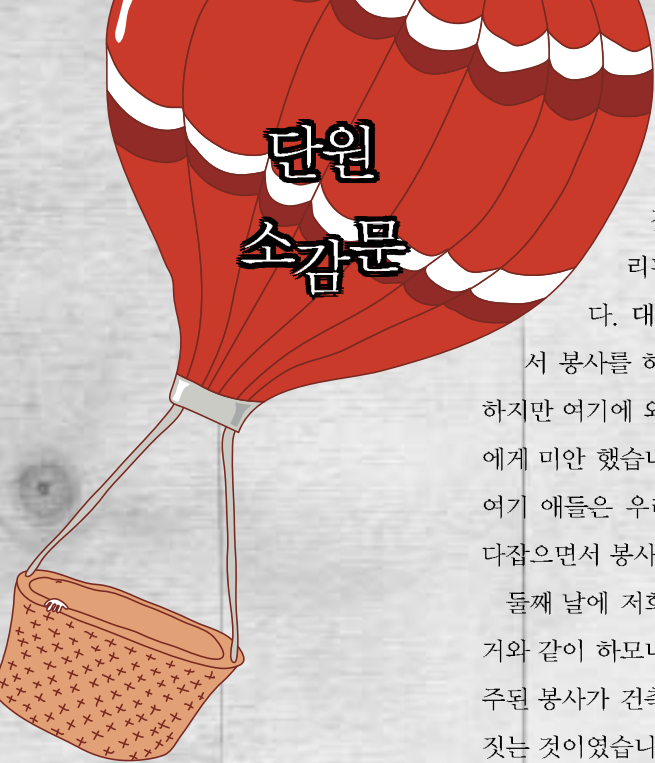
방의 국가들은 천천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 같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세 분의 사람이 오셨다. 건축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체계대로 따라가다 보니 일이 매우 일찍 끝나게 되었다. 필리핀 인부들이 매우 놀랐던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집 밖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새삼스럽지만 절실히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갔다. 가벼운 기분으로 왔던 대원들의 마음가짐이 봉사에 걸맞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익숙해져갔다. 몇 몇 가벼운 기분으로 왔던 대원들의 마음가짐이 봉사에 걸맞는 마음으로 바뀌는게 보였다. 이제야 모든 봉사활동인원이 천사들로 변하였다. 이때부터 일이 수월하게 풀려갔다.

3시간 전에 프로그램을 바꾸고 인부들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래 일이 너무 힘들어 소화 못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너무 잘해 주어서 가슴이 벅찼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에 기뻐다. 결국 빠듯한 일정이 끝났다. 못한 일도 많지만 잘한 일이 훨씬 더 많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시간이 흘러 떠나기 전날이 되었다. 정들었던 아이들과 작별을 해야 할 때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friend”라는 합창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기억해줄만한 물건을 주었다. 그리고 떠나는 날 그들은 우리들의 숙소 앞에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들은 울었다. 많이 울었다. 그 모습을 보니 측은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찬란한 수면 같은 그들에게 던져진 돌이 아닐까” 실제로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순수한 아이들이 저렇게 서럽게 우는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안했다. 하지만 고마웠다.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정을 주다니 그리고 조금 두려웠다. 물질 만능주의인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느낀 아이들의 순수함을 잃어 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왜 필리핀의 행복지수가 높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도 끝까지 의문으로 남는 “우리가 과연 저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의문은 “우리는 당연히 저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로 풀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번 봉사활동은 주는 것 보다 받는 것이 많은 봉사활동이라고 판단이 된다.

봉사활동을 가서 한국에 태어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되었고 부모님과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라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옆에 늘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을 못한 여러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기점이 만들어 졌다고 믿는다. 필리핀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26명의 천사들의 미소가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황은지
화학과 3학년

단원
소감문

소감문이라는 글 속에 느끼고 배운 것을 담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을 다시하게 되면서 처음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러 간다는 생각을 까먹고 여행가는 것처럼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보니 제가 그런 생각과 마음이짐으로 온 것이 SIA 학생들에게 미안 했습니다 저희가 온다는 자체로도 기뻐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기 애들은 우리라는 존재자체로도 반가워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마음을 다잡으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 저희가 왔다고 환영식을 해주는데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와 같이 하모니가 환상적이었습니다. 환영식 이후 봉사가 시작되었는데 주된 봉사가 건축봉사였습니다. 건축봉사는 학생들의 쉽터가 될 기숙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반이상 정도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위해 했던 일은 모래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모래는 남은 비료포대로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질퍽한 땅 이어서 장화를 신어도 미끄럽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아이들에게 기숙사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에서 어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처음엔 거의 대부분 공사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벽돌을 나르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봉사가 익숙해지니 벽돌도 던지면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공사를 잘하는 여학생들을 뽑은 곳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봉사한 것중 건축봉사가 보람 있는 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하루빨리 기숙사를 만들어 줘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한방에 15~20명이 잘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부족해서 수업도 11시부터 수업을 시작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SIA 학생들을 위해 또 다른 건물까지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저희가 떠날때 기숙사가 95%정도가 완성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막상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서운했는데 그 아이들이 우는 것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 또 가고 싶습니다.



단원 소감문

윤혜진
간호학과 2학년
의료담당

저는 이번 필리핀 해외봉사 통합팀을 다녀왔습니다. 2주동안 이 해외봉사는 저를 많이 바꾸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봉사에 대한 저의 생각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봉사를 신청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만으로 봉사를 해준 듯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봉사대를 떠나기 전 들었던 특강 후 저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봉사는 마음을 먹되 실천을 해야 하고 실천을 해야하고 실천을 하되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려고 했던 봉사는 제 스스로 뿌듯해지기 위해 하려고 했던 봉사 였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정말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2주 동안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3명의 봉사대원과 3분의 교수님으로 우리는 건물을 다 지을 수도 없고, 저희는 그들과 평생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곳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 지 말해 줄 수 있었고 우리가 한국에 가더라도 우리같은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또 다른 사랑을 전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작은 희망은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든 내가 봉사받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착각을 하지 않고 겸손히 그들의 일상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단체 활동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해외봉사를 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워본 적도 없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기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런 저를 매일 새벽에 일어나게 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머리감고 손빨래를 하게하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한 것이 기적인거 같습니다. 저를 많이 변하게 했던 봉사활동 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잊혀 지지 않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단원 소감문

무더운 여름 방학의 시작과 동시에 나에게 찾아온 것은 과제와 학업등이 제공하는 심리적 압박감도, 그것에 대한 해방감도 아닌 새로운 희망과의 만남에 대한 막연하다는 가슴벅찬 기대감이었다.

간략하게 전해 듣고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다바오지역의 SIA 의 현재상황과 현지학생들과 지역조건을 파악한 우리는 학기중의 절반가량을 현지에서 실시할 교육 항목을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팀별로 준비하였는데 과학 체육 미술공작 음악분야로 나뉜 각 분야별로 바쁜 학과 일과시간을 쪼개어 그 준비에 만전을 가했다. 또한 교육 봉사 이외에도 열악한 현지 교육시설 기숙사 시설등의 시공이 진행중인 그곳에 교육팀과는 번외적으로 건축봉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인과 어울리고 똑같이 땀흘리며 현지의 생활을 영위 함으로 오로지 배푸는 봉사만이 아니라 배풀고 봉사자인 우리들이 피드백으로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상호봉사를 계획하였다.

이종훈
건축학과 3학년
총무, 건축팀장

상기 언급한 약 반학기 두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11년 6월 22일부터 동년 7월 5일까지 봉사활동을 위해 인천에서 마닐라로 마닐라에서 다바오 공항을 이동한 뒤 현지 학교에서 봉사중이신 선생님의 안내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곳은 화장실과 같은 공중위생시설로부터 식수 음식, 숙소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낯설고 힘겨운 것이었으며, 더러는 풍토에 맞지 않는 물과 음식으로 복통과 설사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갑게 맞이해 준 현지인들과 레크레이션 및 교육프로그램등을 진지하게 참여해 준 초등 중 고생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보았을 때, 상기에 언급한 어려움은 모두 하찮게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벽돌을 나르고 모래와 시멘트를 반죽하여 몰탈을 비비며 흘린 땀과 세상물정에 물들지 않은 아이들의 순박함은 배품의 아름다움을 행하기 위해 타국에서 찾아온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침과 배품을 행사하고 있었다. 2주간의 덥고 습한 우기가 시작된 현지에서 정들은 그곳에서 행한 우리의 봉사일정 및 소감은 조그만한 종이에 담기 버거운 혹은 글 따위로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지 아이들과 주민들과의 추억이 혹은 고생이 담긴 몇 장의 사진과 가슴속의 벅찬 감정과 보람만이 그것을 대신 해주리라 믿으며, 두서없이 써내려 간 보고서를 마친다.



강원영
생명과학과 4학년
교육팀장

시험기간과 봉사준비 기간이 겹쳐 집중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첫 해외봉사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필리핀에 도착했다. 공항에서부터 밥도 제대로 못먹고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그렇게 다바오에 도착하고 봉사지까지 가는데 너무 험난한 길이라 운전기사가 못들어 간다며, 차를 멈춰 여자 9명이 무서움에 떨어던 일까지 일어났었다.

새벽 4시에 출발해 저녁 9시쯤 봉사지에 도착해 짐을 풀 수 있었다. 처음부터 빼고덕지려 걱정이 더 많이 됐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건축봉사가 시작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일하고, 필리핀 아이들 교육봉사하고, 밥먹고, 일하고, 교육봉사하고, 빠듯한 일정에 하루를 보내었다. 한국에서 편하게만 지내온 나와 내 친구들에겐 고된 일이었다. 환자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축봉사를 하다가도 현지 아이들과 소통하여 놀다 보면 아픈걸 잊곤했다. 한국 아이들과 다르게 수줍음 많고, 정 많으며 미소가 아름다운 순수한 아이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필리핀 온게 잘한일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your smile is very beautiful” 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 곳은 저녁 10시 반이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화장실은 매우 비위생적이고, 물은 필터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다. 또 저녁엔 늦가을처럼 춥고, 이름도 모르는 벌레가 득실거리고, 습하고 비도 자주와 땀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 기숙을 하는 맑은 아이들, 사람이란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란 것을 또 한번 느꼈다.

그 곳 사람들에게겐 그 환경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주일도 채 보내지 않은 우리들도 대부분 그 곳에 적응했다. 컴퓨터와 핸드폰이 없어 봉사대와도 아이들과도 깊게 소통하였고, 난생 처음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삽질을 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고, 한국에서 사는 나에게 감사했다.

4~5페소(약200원)가 없어 과자를 못 먹고, 머리를 못 감는 아이들에게 가슴이 아팠지만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고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조금 더 가지려고 안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경영정보학과

목적 및 취지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필리핀 나라의 오지를 방문하여 현지인의 생활을 경험하며, 어린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현지인들의 건강과 어려운 삶을 도우며, 어려움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생활하는 그들의 삶을 배우고 체험하여 학생 개인의 결심과 목적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필리핀, Talim Island
파견기간	6월 23일 ~ 7월 5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2명 - 대장 : 1명 - 대원 : 14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100MM Center
활동내용	의료봉사, 문화봉사, 건강세미나, 가정세미나, 건축보수 공사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6월 27일 ~ 7월 3일	필리핀	17명	오전-의료봉사, 오후-어린이 문화봉사 (200여명), 저녁-건강/가정세미나의료봉사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신종성			대원교육, 지도	
지도교수	이상엽	경영정보학과		대원교육, 지도	
대장	김영준	경영정보학과	3	대장	
2	이형철	경영정보학과	1	의료	
3	김유정	경영정보학과	1	지원	
4	이은솔	경영정보학과	1	의료	
5	장규환	경영정보학과	3	지원	
6	최혁신	경영정보학과	1	지원	
7	김혜인	경영정보학과	1	의료	
8	문호철	신학과	2	전도사	
9	김윤제	경영정보학과	1	지원	
10	최정락	화학과	1	문화	
11	주승환	경영정보학과	1	의료	
12	위승환	경영정보학과	1	총무	
13	최연지	식품영양학과	3	지원	
14	김동일	경영정보학과	1	지원	
15	이아름	경영정보학과	3	문화	



활동사진 자료집

- ❶ 봉사대 준비, 마사지
- ❷ 현지 건물 보수공사
- ❸ 교회에서 200명에게 문화봉사
- ❹ 봉사지 도착 후
- ❺ 현지 아이들과 문화 봉사
- ❻ 오전 가정 의료 방문 치료 중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 중의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명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떠나갈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존중하는 의무를 느낀다.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막는 것을 뜻한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갈구하며 발견한 사람이다.
-슈바이처





단장 소감문

신종성

경영정보학과팀 지도교수

그
곳
에
서
배우다
돌
봄
이
필
요
한
인
생
을

봉사대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힘들게 봉사대를 가지 말고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다녀온 후의 소감은 다시 한번 이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다음에는 더 잘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다.

경영정보학과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삼육대학의 교육이념에 맞춘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필리핀 오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짐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곳을 추천을 받아 현지에 필요한 최선의 준비를 하여 도착했다. 도착하여 바라본 학생들의 숙소와 활동장소는 참담한 현실 그대로였다. 인적이 거의 없었던 건물에 유리창도 없고, 천장도 다 뜯겨나가거나 썩은 나무가 지붕을 버티고 있었다. 비나 햇빛을 가리고는 있었지만 우기에는 어김없이 비가 새는 지붕 이었다.

뿐만 아니라 활동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집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 이었다.

현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학생들과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창문이 없는 건물에 창문을 달아주는 일과 지붕에 썩은 나무를 걷어내고 새로운 천장을 해주는 일, 물이 없는 곳에 펌프를 달아서 물어 끌어 올리는 일이 가장 시급해 보였다. 학생들과 의논하여 건축노작 시간을 통하여 배운 실력을 통하여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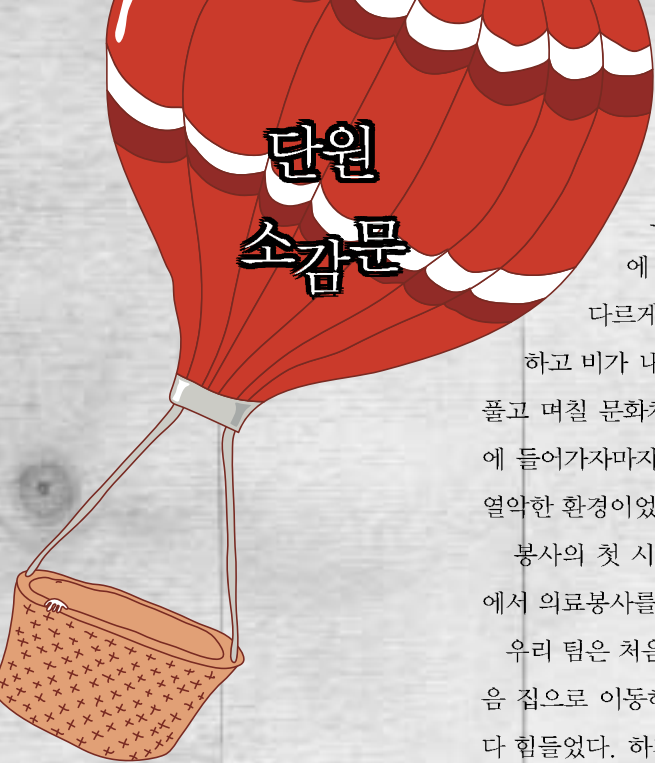
현지인 기술자와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차츰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변해가는 건물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졌고 모든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 현지인들이 변해진 건물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마을 지도자는 진입로가 문제인 것 같으며 건물까지 들어오는 진입로를 내주겠다고 흔쾌히 약속을 하였다.

오전 진료시간에 집을 방문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표정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오후에 문화 봉사에 참여한 200여명의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학생들은 학생으로서가 아닌 선생님으로서 서로가 협력하고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륙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섬에서의 생활을 익숙하지가 않았다. 한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었던 물건이 섬에서는 충분하지 않았고, 돈은 있어도 물건이 없기 때문에 돈이 모든 문제의 해

결은 아니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학생들의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는 식자재가 충분하지 않아서 매일 한 가지 반찬에 이름도 모르는 야채를 넣은 죽이나, 맨 밥을 먹어야 했지만 서로가 양보하며 챙겨주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다른 모습 이었다.

많은 걱정과 염려로 출발하고, 학생들 개인의 모습들이 봉사활동 하기에는 그저 부족하게만 보였지만, 봉사활동이 시작되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교육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많은 재정과 투자로 학생들의 참인성 교육을 실천하는 삼육대학의 교육이 이런 것이라라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깨닫고 지도교수로 깨닫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원 소감문

김동일

경영정보학과 1학년
지원담당

다시 가고 싶은 곳.
평생 기억에 남을 곳.

6/23일 기대와 걱정을 품고 봉사활동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발을 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를 타고 약 3시간에 걸려서 필리핀으로 이동했다. 도착한 필리핀은 생각과는 다르게 크게 덥지는 않았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권 안이라서 습하고 비가 내렸다. 필리핀에 도착한 후에 뉴스타트라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며칠 문화체험을 한뒤 진정한 목적지인 팔림 섬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든 생각은 그곳이 내가 지금까지 관광했던 곳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봉사의 첫 시작은 의료봉사였다. 3개 팀으로 나뉘어서 각자 맡은 구역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우리 팀은 처음 방문한 집에서 간단한 안마와 슌 치료를 했다. 그리고 다음 집으로 이동해서도 비슷한 봉사를 했다. 정말 간단한 봉사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 간단한 봉사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표정은 잊을 수가 없다.

그 다음 날에는 나는 형 한분과 함께 교회 천장을 수리하는 작업을 했다. 지난 학기 건축노작을 수강하면서 얻은 경력(?)이 있기에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천장에 합판을 대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못도 그렇고 천장에 있는 나무가 중간 중간 썩어서 더욱 힘들었다. 다음날 오전 시간에는 또 다시 세명 이서 근처 수로를 파는 작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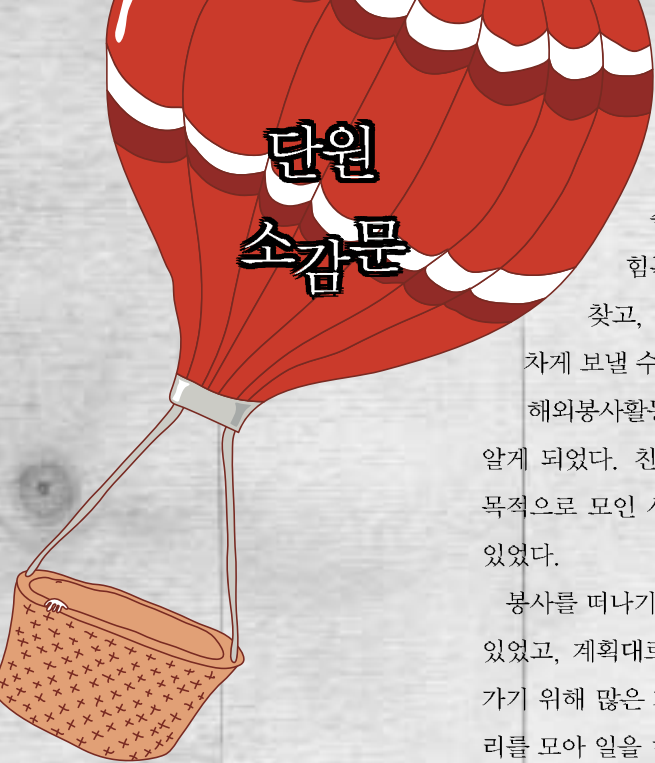
필리핀 땅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땅에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더욱 힘들었다. 그리고 그 날 오후에는 필리핀 아이들과의 문화 봉사를 했다. 그 날 문화 봉사내용은 리코더 교육이었다. 한국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 까무잡잡한 피부에 망가지 옷을 입은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순수함이었다. 우리가 작은 농담을 해도 크게 웃어주고 누구보다 우리를 반가워 해주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고 다음날에는 교회에 간단한 뒷정리를 한 후 아이들과 같이 보물찾기를 하였다.

그렇게 정해진 봉사활동이 끝나고 섬에서 나와 또 다시 숙소에서 쉬고 난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잠들기 침대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내가 봉사활동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나, 또 봉사활동을 진심으로 즐거워했나, 등

등이 말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 다시 팔림 섬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아이들이 보고 싶다. 다시 봉사활동이 하고 싶다. 등등이 말이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봉사활동을 같이 간 친구들과의 우정을 얻었고 또 활동지의 아이들과의 우정을 얻었다. 그것 만큼은 평생을 갈 것 같다.





단원 소감문

이아름

경영정보학과 3학년
문화봉사담당

바꿀 수 없는 가치

작년에 국내에서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학습보조봉사를 했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지만 봉사를 다니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고, 현재의 내 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값진 기회를 얻었다.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던 차에 필리핀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친구 없이 혼자 떠나려니 큰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봉사를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서 마음도 따뜻하고 순수하여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봉사를 떠나기 전에 모임을 가지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았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기도를 했고, 뒤로 빠지는 사람 없이 교수님과 더불어서 머리를 모아 일을 해결해 나아갔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는 학교에 모여 다 같이 마지막 점검을 하며 합숙을 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새벽에 공항으로 향하였고, 필리핀에 도착하였다. 우리 봉사대원들은 필리핀 팔림섬에서 봉사를 하였다. 필리핀 깔람바에서 한시간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서 배를 타고 또 한시간반 정도 들어가서 도착하였다. 휴양지와 관광지지만 생각하던 필리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팔림섬에서의 높고 파란 하늘과 은하수와 어우러진 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한번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다.

팔림섬에 도착하여 현지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지낼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의 환경은 정말 열악하였다. 천장은 나무판이 군데군데만 붙어있고, 전등도 하나만 달려있고, 문은 밖에서도 열면 열리게끔 허술하였다. 봉사별로 팀을 나누어서 대원들이 소속되어있었다. 대장, 총무, 문화봉사팀, 대민지원팀, 의료봉사팀으로 나뉘었다. 나는 문화봉사팀에 소속하여 봉사기간동안 아이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을 맡았다. 대민지원팀과 교수님은 내부의 천장수리와 전등 달기, 창틀에 유리문달기, 숙소 앞의 물 길트기, 현지분들의 화장실 수리하기 등 교회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덜하도록 도와주었다. 의료봉사팀은 아침마다 의료봉사를 다닐 때 각 팀마다 나뉘어져서 어려움 없이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을 해주었다. 우리 팀이 의료봉사 차 방문했던 아이 중에 가장 도움이 절실한 아이가 있었다. 어린 여자 아이였는데 동생이 바지에 불을 붙여서 하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었다.

학교를 가야되는 나이이지만 학교도 갈 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의료봉사 첫 날에 그 아이를 보았을 때는 내가 손을 잘 못 대서 더 아프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다리의 고름을 떼 주는 일을 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손가락이 살짝 베이기만 해도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어린 아이는 우리가 고름을 떼고 약을 발라주는 데 절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일이 없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아픔을 참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참을성 없는 모습을 반성하였다. 첫 날에는 손을 대기도 힘들었지만 아침마다 방문하여서 그 아이의 다리에 있는 노란 고름들을 조심스럽게 떼 주고, 떨어져서 고름과 돌아다니는 딱지들도 떼 주고, 빨갛게 살이 올라오고 있는 부위에는 약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문화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리코더를 갖다 주고 가르쳐주고 불어 보게 하고, 목걸이볼펜과 도화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며 놀아주고 그것들을 선물로 주고 왔다.

다른 집 방문하다가 그 아이의 집을 밖에서 슬쩍 봤더니 혼자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확실히 우리가 봉사활동을 마쳐갈 무렵 그 아이의 다리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고, 웃음도 더 많아졌다. 치료를 끝내고 매번 기도를 할 때 마다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현지 병원에서 조차 포기한 이 아이의 다리가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부디 깨끗이 나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의 깨끗하고 맑은 웃음 영영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가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아이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차오른다. 큰 화상을 입어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이답지 않게 아픔을 꼭 참고 미소 지어주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서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많은 물음을 던졌고,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주었다.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에 가지말까하고 고민했던 내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면 물질적인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슴 따뜻함, 순수한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크고 깊은 눈, 종교적인 믿음 등은 얻을 수 없다. 해외봉사활동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꼭 나의 경험을 말해주고 권하고 싶다.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니 꼭 다녀오라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내 첫 해외봉사활동. 장난기와 호기심이 많은 딸림섬의 아이들, 부모님들, 주민들, 딸림섬의 하늘 등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교감 말레이시아 고센

목적 및 취지

삼육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과 재능을 해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삼육대학생들 또한 그곳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사고와 시야를 넓혀 가고 현지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말레이시아 사바주 소재 사바삼육초중고교 및 고센 중고교
파견기간	6월 26일 ~ 7월 11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2명 - 대장 : 1명 - 대원 : 9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삼육대학교, 아드라 코리아, 아드라 사바, 사바삼육초중고교 및 고센 중고교
활동내용	각 대원들의 전공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일본어, 미술, 음악, 화학, 줄넘기등을 지도하였으며 현지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 보수등을 실시함.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2011/6/26 ~2011/7/11	탐파루리	3명	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음악을 지도	
2011/6/26 ~2011/7/11	고센	7명	학생들에게 화학, 한국어, 일본어, 미술, 체육등을 지도	

팀 명단(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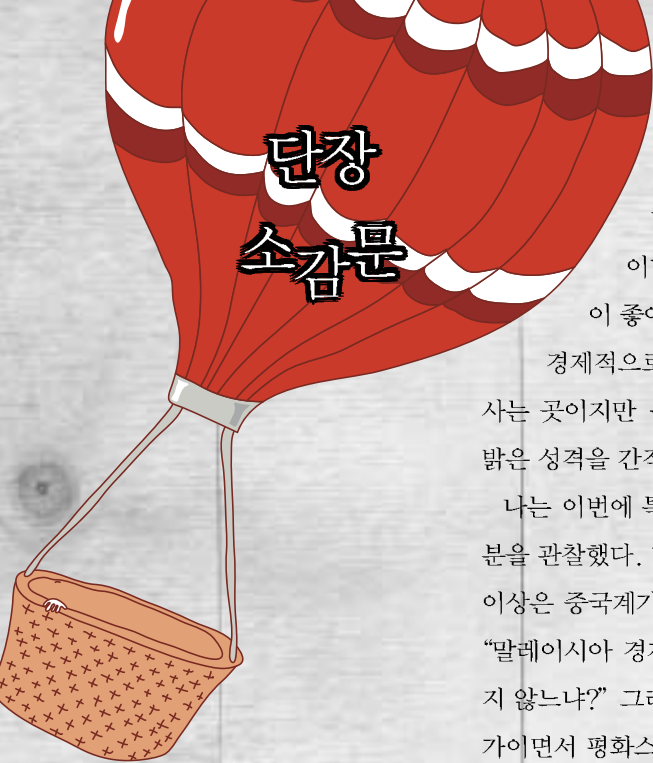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김수호	일본어학과		대원교육, 지도	
지도교수	야마사타 타스케	일본어학과		대원교육, 지도	
대장	진인호	화학과	3	화학, 한국어	
2	조민제	화학과	1	화학, 한국어	
3	임미정	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미술, 한국어	
4	김지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미술, 한국어	
5	세가와 미키	일본어과	1	일본어	
6	조윤경	환경원예그린디자인	3	한국어	
7	하예나	영어영문학과	4	한국어	
8	김희영	일본어과	4	일본어, 음악	
9	김혜림	일본어과	1	한국어, 음악	
10	박수이	음악학과	1	한국어, 음악	



활동사진 자료집

- ①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
- ② 성경캠프 출발전 학생들과 찍은 사진
- ③ 일본전통의상을 알리려는 대원들
- ④ Form6학생들 노래와 율동 배우는 사진
- ⑤ 과학수업을 마치고 학생들과 찍은 사진





김수호
일본어학과 교수

소박함의 가치

일본어과 교수가 주관하여 말레이시아 사바 주로 봉사대를 가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가면 갈수록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좋아진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은 나라(서말레이시아는 아주 잘사는 곳이지만 동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이면서도 소박함과 밝은 성격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는 정말 부러움을 느낄 정도이다.

나는 이번에 특히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인들이 사이 좋게 지내는 부분을 관찰했다.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말레이시아의 국가 경제의 90% 이상은 중국계가 갖고 있다고 한다. 나는 중고교 교감 선생님께 물었다. “말레이시아 경제의 90% 이상을 중국계가 갖고 있다는데 중국 사람들 싫지 않느냐?” 그러자 대답했다. “그들이 가버리면 우린 굶는다.” 다민족 국가이면서 평화스럽게 잘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자세를 엿보는 듯 했다. 시장에서도 아주 가난하게 보이는 산간 지역에서 온 아버지와 8살가량 된 딸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도 감동 받았다. 마치 노숙자처럼 보이는 그들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면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한국 사회는 매우 경쟁적이며 이기적이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마음은 가난해지고 물질이 풍요롭지 못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 어느 정도의 물질을 누리면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지? 이것이 지금 내 머리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이번에 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체육으로 줄넘기를 가르쳤다.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 되는 학생도 있었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땀 때마다 머리카락에서, 옷에서 땀이 튕겼다. 그런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 사회에서도 의욕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의 사바 주가 부럽다. 너무 욕심 내지 않고 가난하기 하나 사이 좋게 즐겁게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단원 소감문

조민제

화학과 1학년

화학, 한국어담당

‘교감 말레이시아 고센’이라는 제목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올라가져 있을 것을 보았다. 봉사가 목적인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한다가 아닌 누군가와 의 교감이라는 말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이 결과 난 일본어학과에서 주관하는 봉사대에 참여하게 되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마치고, 6월 26일 오후 비행기로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도착 후 우리는 탐파룰리에 있는 학교로 이동했다.

도심 속에서 살던 내가 이 곳에 왔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샤워기가 아닌 바가지로 샤워를 하고, 뼈격대는 침대와, 많은 벌레들 속에서 잠을 자야 했기 때문이다. 이 다음날 이동한 고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고맙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위의 불편함은 쉽게 잊힐 수 있었다. 특히 고센은 탐파룰리 보다 밤이면 쏟아질 듯 한 많은 별들이 있었고 낮에는 싱그럽고, 웅장한 나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나는 적응이 미처 되지 못한 채 고센 학생들과의 교감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처음은 쉽지 않았다. 선생님일 때와 수업이 끝난 후 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채 행동했기 때문이다. 야마시타 교수님의 충고 덕분에 이 후에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더욱 돈독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예로 수업 중에는 날 집중해주며 집중을 야기 시킬 때에는 학생들이 눈치를 채 따라 와주었으며 수업 외의 행동을 할 때는 선생님인 나에게 허락을 맡았다. 반면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전에는 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내 머리를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잘 묶는 형식으로 묶어 주기도하고 서로 떠들고 친구처럼 지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학생들과의 사이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이별할 시간이 왔다. 아이들도 굉장히 섭섭해 했다.

나 또한 슬픔을 숨길 수가 없었다. 봉사대 고센팀은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펜에 이름, 이메일 등을 한국어와 함께 쓰인 메시지를 붙여 학생들에게 주었다. 아이들은 좋아했다. 이 것이 인연에 끈이되어 오랫동안 교감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

다.

고센 일정을 마치고 탐파를리 팀의 음악회를 보러갔다. 우리 봉사대는 짧은 기간 동안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학생들과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교감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모습이었다. 난 한편으로는 이 봉사의 목적을 달성한 듯이 보여 부럽기까지 하였다.

처음에는 시간이 안가는 듯하고 집에 가기만을 절실히 원했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과 교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좀 더 있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해 주었다. 이 봉사를 통해 봉사의 참된 의미와 이 속에서 교감의 중요성을 알게되었다. 이 때문에 봉사를 했던 기간은 나에게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되었다.



단원 소감문

김희영

일본어과 4학년
일본어, 음악담당

나는 이번 말레이시아 봉사대에 2번째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 저번 달에는 교생실습으로 말레이시아에 1달간 다녀왔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번이 3번째다. 내가 매년 말레이시아 봉사대를 가는 이유는 작년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봉사대로 갔을 때,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봉사대를 신청해서 가게 되었다. 내가 처음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처음에 보고 느낀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였다. 거기에서 내가 세운 목표는 내가 봉사하는 것 보다도, 말레이시아 현지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배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목표는, 될 수 있는 한 현지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교류를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PRIMARY 6 CANNA(초등학교 6학년 칸나반)를 맡게 되었다. 6학년은 학생이 많아서 2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내가 맡은 칸나반은 남학생이 12명, 여학생이 12명으로 총 24명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일본어를 가르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일본어보다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여태까지 일본어밖에 가르쳐 본 적이 없을뿐더러 일본어만 가르칠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했다.

첫 수업은 간단한 인사와, 아이들과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하는 연습을 하고 끝났다. 한국어 교재는 봉사대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교재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내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수업은 참관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어 수업을 참관했다. 판짚 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선생님이 주의를 주지 않아서 조금 신기했다. 수업참관을 그 뒤로도 하고, 1시반이 되자 모든 수업이 끝났다.

그렇게 첫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다음 날 수업준비를 하는데, 한국어 교재를 펴보니 한글 중심으로 되어있고 내가 봐도 너무 재미없었다. 그래서 플래쉬카드를 10장 만들었다. 형용사와 명사가 쓰여진 카드 10장을 만들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쓸 수 있는 단어라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다. 플래쉬카드를 통해서 현재형, 의문형, 부정형의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매번 반복하고 반복했는데, 한국어는 외국인입장에서 보면 발음도 어렵고,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사도 바뀌기 때문에 가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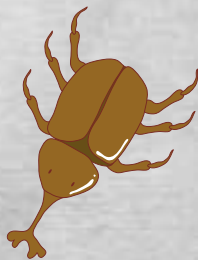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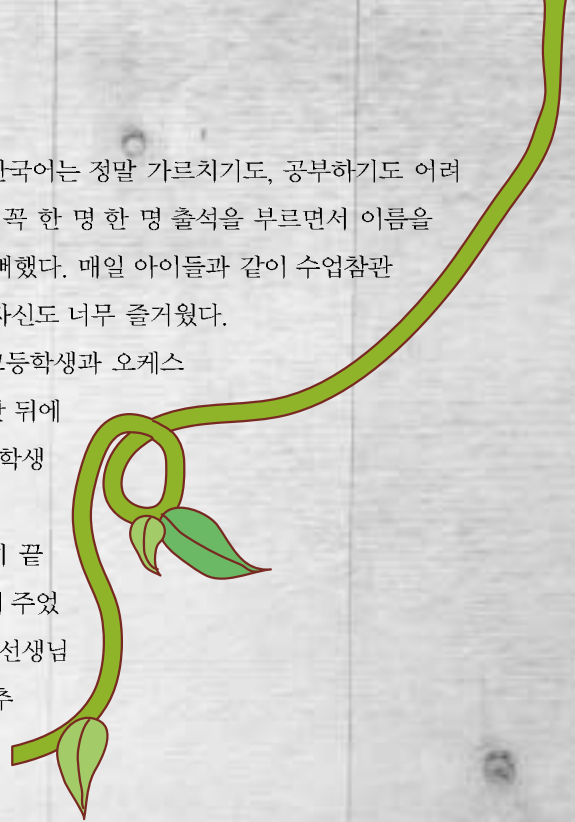
는데 있어서 많은 설명이 필요했다.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한국어는 정말 가르치기도, 공부하기도 어려운 언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또 수업을 시작할 때는 꼭 한 명 한 명 출석을 부르면서 이름을 외었다. 아이들과 교류를 할 때도 이름을 부르니 너무나도 기뻐했다. 매일 아이들과 같이 수업참관도 하면서 마치 내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어서 나 자신도 너무 즐거웠다.

이번 탐파를리 봉사대에서는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과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2월에 한번씩 수업이 끝난 뒤에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모여서 연습을 같이 하면서 오케스트라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2주가 끝날 무렵, 콘서트도 실수는 많았지만 무사히 끝나고, 마지막에 초등학교에서 우리 봉사대를 파트락에 초대해 주었다. 파트락에서는 저녁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반의 한국선생님과 노래 발표회와 현지 분들과 같이 말레이시아 전통 춤을 추는 시간도 가져서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한국 대학생이 외국어로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해보았으면 좋겠다. 한국이라는 좁은 범위가 아닌, 외국이라는 넓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

외국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외국이라는 넓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고,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큰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카이신구어(중국어학과)

목적 및 취지

중국 현지에서 한류를 반영한 한국어 교실을 통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 전공과 연계하여 보다 동감가는 수업을 구성하여 현지인들과 의사소통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중국 산둥성 조장
파견기간	6월 26일 ~ 7월 24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1명 - 대장 : 1명 - 대원 : 20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산둥성 조장대학교
활동내용	한국어 교실 외 현지 상황을 반영한 각종 불우이웃돕기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6월27일 ~ 7월8일	조장대학교	전원	수준별 테마 한국어 수업 진행 및 교류회	
전 기간	조장대학교	전원	페폼모아 불우이웃돕기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박민수	중국어과		대원교육 및 지도	
대장	김예희	중국어과	3		
2	김정미	중국어과	2		
3	김유정	중국어과	4		
4	박소정	중국어과	1		
5	박주연	중국어과	2		
6	박혜은	중국어과	1		
7	오승미	중국어과	2		
8	이가은	중국어과	2		
9	이고운	중국어과	1		
10	이소연	중국어과	3		
11	이윤진	중국어과	2		
12	이정선	중국어과	2		
13	이제경	중국어과	2		
14	정윤주	중국어과	1		
15	조유빈	중국어과	2		
16	조희나	중국어과	2		
17	최선희	중국어과	3		
18	최우리	중국어과	2		
19	최인영	중국어과	1		
20	함선화	중국어과	2		

①



②



활동사진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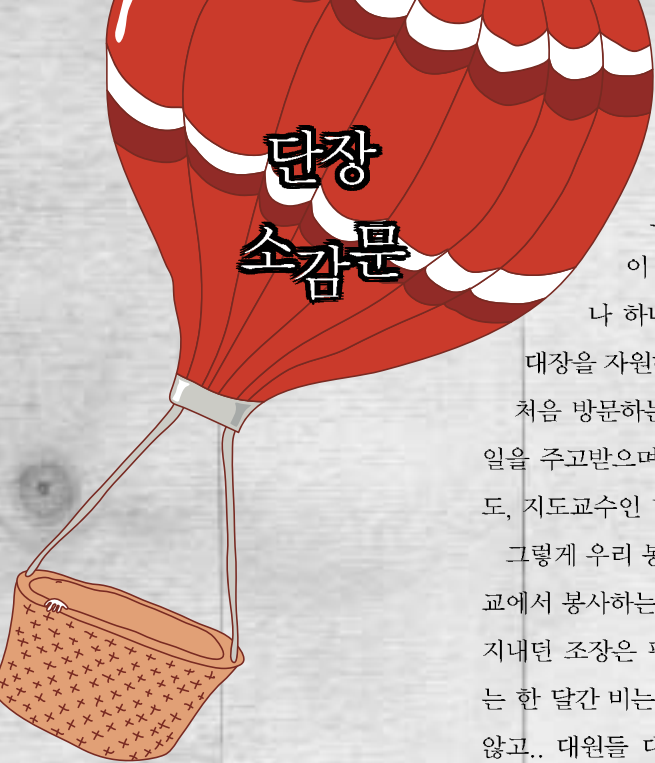
③





- ① 고급반 한국어 수업
- ② 관광과 친구들과 교류회
- ③ 한국어 교양수업 친구들과 교류회
- ④ 한국 맛 알리기 요리대회
- ⑤ 한국어 교실
- ⑥ 수료식 인증





박민수
중국어학과 교수

산둥 조장대학교 水土不符

2008년 자매대학인 옥계사범대학에서의 봉사를 시작으로 벌써 3년째 봉사대를 다녀왔다. 이번 봉사대는 인원이 가장 많았고 전체인원 22명중에 남자라고는 지도교수인 나 하나였다. 막막했지만 봉사대를 함께했던 3,4학년 학우들이 대장을 자원하여 그렇게 봉사대를 떠났다.

처음 방문하는 자매대학이고 봉사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일을 주고받으며 들었던 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현지 상황에 학생들도, 지도교수인 나 역시도 난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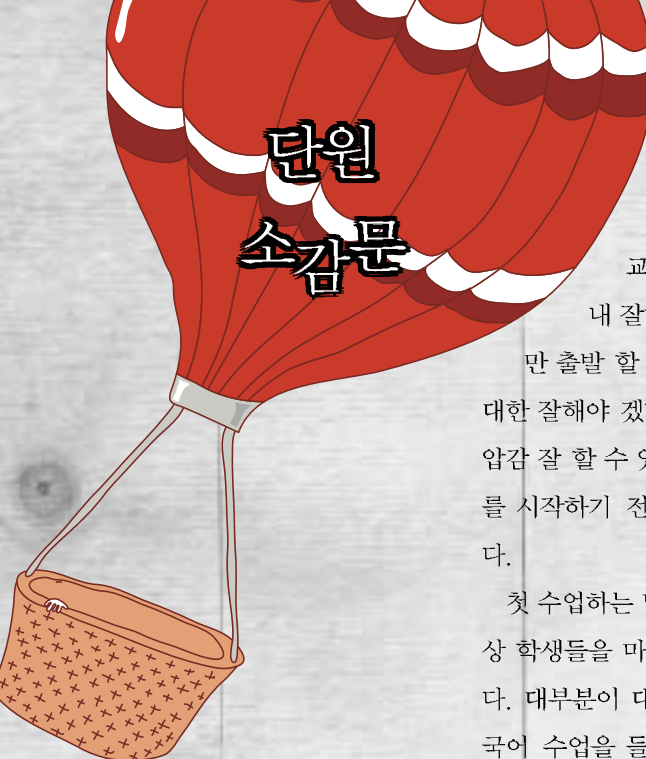
그렇게 우리 봉사대의 일정은 시작되었다. 우리가 중국 산둥성 조장대학교에서 봉사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비가 내렸다지만, 우리가 지내던 조장은 평균 38도의 아찔한 사우나 더위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있는 한 달간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대원들 대부분이 拉肚子(설사병)에 걸려서 약을 달고 살았고, 심지어 병원에서 수액을 맞기까지 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 학생들도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현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했다.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은 ‘水土不符’(땅, 물이 맞지 않음)였다.

대원들은 약물투혼을 하면서도 ‘아픈 건 아픈 거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세로 한국어 교육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안했고 대견했다. 교육봉사를 통해 모든 대원들은 ‘教學相長’을 배웠고 그것만으로 이번 조장대행은 큰 수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달간의 단체생활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관용, 양보, 배려, 희생 등을 배웠다. 또한 4번의 Q.T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잠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결심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감사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일을 우리가 계획을 해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느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체험할 수 있었다.

감사한다.





단원 소감문

박주연
중국어학과 2학년

중국 봉사대를 출발하기 전에는 해외봉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봉사에 대한 교육과정과 선물, 학생들에게 보여줄 공연들을 준비하는 내내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출발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출발을 하고나니 한국어 교육봉사에 대한 잘해야겠다는 의무감과 한국 그리고 삼육대학교의 대표로 왔다는 중압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교육봉사를 시작하기 전 까지는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하는 날 수업준비를 마치고 학생들을 기다리는 내내 떨렸는데 막상 학생들을 마주하니 불안감은 사라지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는데 자신의 학교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많은 학생들이 찾아 와주었습니다. 찾아온 학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 중 한 명은 중학생이었는데 음식점에서 우리들을 보고 한국에 관심도 많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학생이었습니다. 그 열정에 감동하여 제 자신이 더욱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한글이름을 알려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중국어를 동원하여 서툴지만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생들도 우리의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주고 우리가 하는 말 중 틀린 말이 있으면 정정해주면서 저희가 이끄는대로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칠판에 필기를 하면 하나같이 모두 다 열심히 노트필기하고 발음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일대일로 발음교정해주는 시간을 매 시간 가졌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고 질문도 많아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한국어 수업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날 배운 표현들을 이용해 게임도 하고 게임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조그만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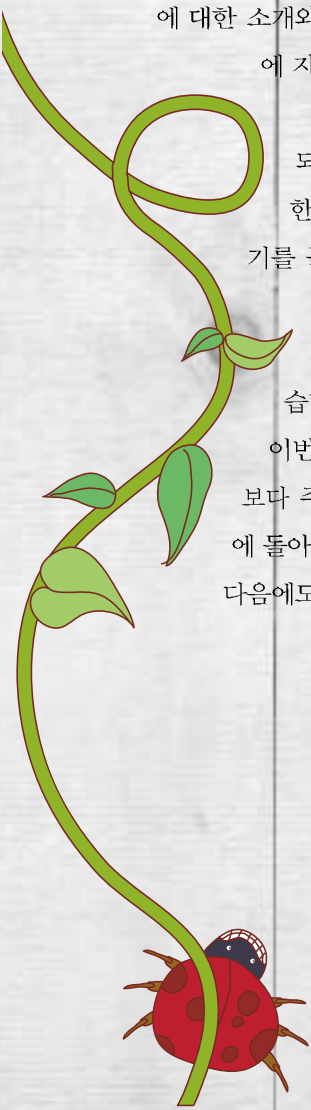
학생들이 게임을 정말 재밌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어서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모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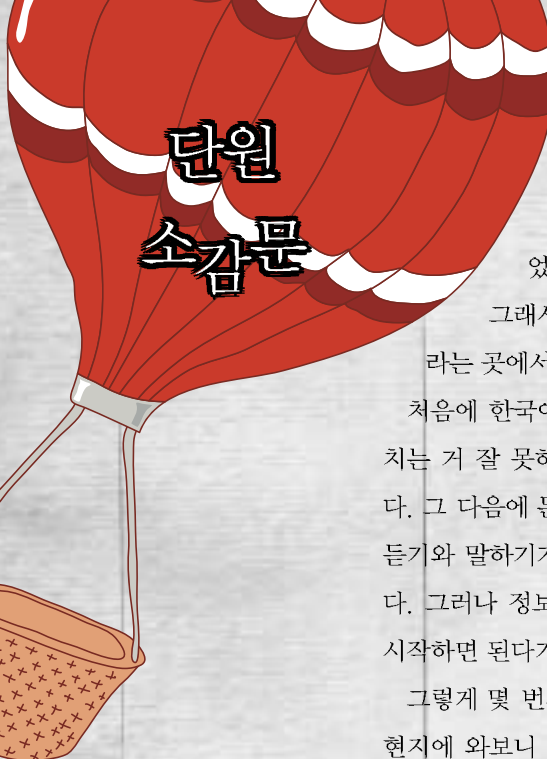
에 대한 소개와 날짜, 시간 등을 말할 수 있게 된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과 뿌듯함이 컸습니다.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학생들과 정이 많이 들어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몇 번의 수업을 더 한 후에 학생들의 시험이 모두 끝나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마지막 수업시간에 결석과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사온 전통부채를 주고 학생들도 아쉬웠는지 사진기를 들고 와서 같이 사진을 찍고 수업이 끝난 후에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학교 밖을 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할 때는 친구같이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 보다 학생들에게 배운 것이 훨씬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서 국적은 달라도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어디서나 통하고 도움을 받는 것 보다 주는 기쁨이 더욱 더 크단 걸 느꼈습니다. 또 좋은 중국 친구들을 사귀는 것 같아 기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꾸준히 연락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번 활동을 발판삼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단원 소감문

이고운

중국어학과 1학년

대학 입학 후 처음 맞는 여름방학을 그저 알바나 피서로 보내기는 아까워서 이왕이면 무언가 뜻 깊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리 과에 해외봉사대가 있다기에 신청했다. 그래서 우리학교 자매대학인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조장대학이라는 곳에서 한국어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어떻게지 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잘 못하는데...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중국어로 어떻게 이야기 하지?’였다. 가장 중요한 듣기와 말하기가 이제 3개월 배운 사람에겐 약간 버거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에 의하면 가나다는 어느 정도 마쳤고, 숫자, 문장 등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에 조금은 안심하고 거기에 맞춰 수업을 준비했다.

그렇게 몇 번의 모임과 준비 끝에 6월 24일에 조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현지에 와보니 정보는 전혀 달랐다. 학생은 우리가 모집해야했고, 가나다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좌절 반, 낙심 반으로 처음 온 일주일 동안은 학생 모집과 수업 준비에 전력을 다했다. 학생모집 기간에 여기 대학에서 교양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었는데 중국이라 그런지 하루 썩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그 학생 수가 꽤 났었다.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른 말이 너무 바쁘고 우리가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니 처음엔 느려졌다 또 다시 빨라져서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기운도 많이 빠지고 많이 힘들어져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의 듣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그 후 한국어 수업을 받고서 조금 안도했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시험기간이 있어서 다들 시험공부하고 시험이 끝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학생 수가 줄어들더니 예상보다 이르게 종강된 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나와 준 학생들이 있었는데 너무 고마웠다.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어색하고 처음해보는 거라서 우왕좌왕도 했지만, 덕분에 사전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조금은 느꼈다. 처음에 학생들의 중국어 이름을 받아서 한국어로 바꿔

주었는데 다들 따라하면서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다.

수업을 하는 첫 날, 중급반 선생님 중 한분이 우리 반에서 청강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 선생님이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해주면 어순이라든지 문법이 안 맞는 부분을 고쳐주시면서 앉아있는 다른 학생들도 이해하고 우리도 이렇게 쓰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첫 날 우리 반에 오셨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

또한 그러면서 내일은 대본도 만들어보고 수업도 더 꼼꼼히 검토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와 같은 학생이기에 노래와 게임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것과 연관된 노래와 게임을 하면서 더 잘 기억하게 되고 더불어 흥미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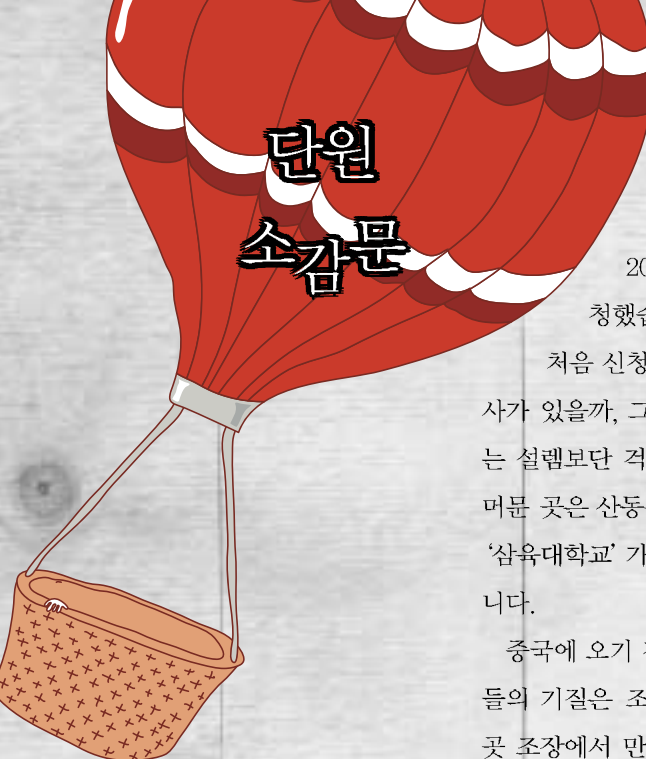
특히 숫자를 가르쳐주고 3.6.9 게임을 했을 때 예상외로 30, 40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대견하다고 생각되면서 기뻐다. 그리고 한 여학생이 감동을 준 적이 있다. 하루는 혼자만 와있어서 수업하기도 좀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험이 바쁘데 꾸준히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니 하는 말이 멀리서 이렇게 구석까지 한국어를 가르쳐주려고 왔지 않냐며 그래서 자신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나오는 거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감동했다.

그래서 우리 반의 선배들과 상의해서 밥이라도 사주려고 점심을 약속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대접받아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 일찍 종강을 하고 서로 아쉬움의 작별을 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난 다른 팀의 반으로 가서 같이 수업하고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면 재밌겠구나', '다른 반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를 느꼈다. 그렇게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3주라는 시간도 금방 가버렸다. 돌이켜보면 각 사람 사람에게서 받은 교훈도 많고 받은 관심과 사람도 많았다.

단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크고 많은 걸 얻어가고 배워가는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싶다. 그때는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단원 소감문

이소연

중국어학과 3학년

여름 방학이면 할 수 있을 법한 여러 체험들을 제치고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조금은 조금해진 저를 달래며 저는
2011년 여름방학을 삼육대란 이름을 걸고 해외 봉사단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신청하고 나서 떠나기 직전까지 과연 한 달이란 시간동안 할 봉사가 있을까, 그 속에서 내가 내 역량을 잘 펼칠 수 있을까, 해외로 나간다는 설렘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란 시간동안 머문 곳은 산둥성에 있는 '조장시'란 곳입니다. 그곳의 '조장대학'과 우리 '삼육대학교'가 자매대학으로 있기에 그곳을 봉사활동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중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어과이면서도 잘 모르고 잘 못 오해했던 중국인들의 기질은 조금해서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속인다는 것이었는데 이곳 조장에서 만난 모든 중국인은 너나할 것 없이 외지인에게 친절하고 마시던 물도 그냥 내어주는 마치 우리네 농촌의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이라 말할 수 있는 한류의 붐을 타서인지 중국의 작은 시인 '조장'에서도 그 영향이 있어 한국인이라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함께 교류를 하길 원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중국에서 택한 봉사의 방식은 중국 내 '한국어 교육 봉사'와 '문화교류' 었기에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 5일 2주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위해 노래 배우기, 율동과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봉사'와 '문화 교류'가 이분화되지 않고 하나로 어울려진 시간을 보냈기에 봉사란 단어를 쓰기 죄송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리의 봉사 시간이 조장대학의 기말고사 기간과 맞물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과 후 시간에 남아서 저희의 수업에 참석해준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어준 그 날 그 날의 숙제까지 꼭꼭 물려서 정성스럽게 써서 준 그들의 학습태도였습니다.

중국어 실력도 많이 미흡하고 현지 상황이 녹록지 않아 준비한 ppt자료는 사용하지 못해 봉사 초반에 조금은 우왕좌왕한 감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데, 학생들의 그와 같은 열정 덕에 저희 봉사단 모두가 날마다 다음의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로 인해 저희의 중국어학 실력 또한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조장대학에 조희가 온 날부터 환영식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것도 모자라 저희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던 '관광자원과'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중 양국의 대학생들의 문화교류의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보의 시를 함께 나눠 읽고, 중국의 율동을 하고, 세계는 하나라는 내용이 노래까지 나누어 부르며 정말 이번 봉사대 체험을 신청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내가 중국인이었어도 단지 한국사람 또는 타지인에게 그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반성도 앞섰습니다. 30일이란 시간동안 내가 본 중국은 그래도 대륙이며 그들 모두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대인이었습니다.



단원 소감문

조희나

중국어학과 2학년

중국에 오기 전에 오티를 할 때 한국어 교육봉사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다. 1학년 때 대만으로 봉사를 갔을 때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봉사대는 느낌이 달랐다.

대만에서는 10일이었던 반면에 중국에서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조원들과 수업시간에 무얼 가르칠지 상의하면서 계획표를 짤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었다.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걸 다 이해할까?’,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모두가 흥미있어 할까?’ 등등 오만가지 생각들과 고민을 했었다.

기쁨 반 걱정 반으로 떠나 도착한 중국 조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더운 곳이었다. 제남 공항에서 4시간을 넘게 가야하는 곳 이었는데 조장에는 외국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의 방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조장대학교의 자연환경은 삼육대학교 만큼 좋았다. 특히 곳곳에 석류나무들이 많았는데 원래 그곳이 석류원이었다고 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머물 곳을 들어가보니 이것저것 세심하게 학교에서 우리들을 배려한 흔적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다. 한국어 교육 봉사를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수업이 끝난 반에 들어가서 직접 교육봉사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었다. 한국어 교육 팀은 총 5개 었는데 각자 맡은 반에 들어가 자기 소개를 하고 한국어 교육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여기 학생들이 한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느낀 것은 이 학교 자체에 한국어 교양수업이 개설되어 있고 그 반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홍보를 하러 각 반에 들어갔을 때 한국말로 인사해 주는 것조차 너무 신기했다.

며칠 동안의 홍보를 마치고 제대로 된 반을 개설하기 전에 걱정이 되었던 것은 바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내 수업에 올까?’라는 의문이었다. 불행히도 우리가 조장대학교에 봉사를 온 기간이 학생들의 시험 기간 이었다. 첫 번째 수업 당일 교실에 붙일 플랜카드들을 직접 예쁘게 만들어서 붙이고 교실에 미리 가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1초가 1년 같았다.

그 때 우리 조 네 명의 생각은 모두 같았을 것이다. ‘제발 한 명이라도 와라’라는 생각...수업시간이 되고 최종 우리 반의 학생은 여덟 명이 되었다. 세 명의 경제학과 2학년 학생과 3명의 컴퓨터학과 2,3학년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특별한 케이스였다. 그 두 명의 학생은 중학생이었는데 우

리는 시내에 있는 kfc에서 처음 만났다.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 친구는 우리가 한국인인걸 알고 먼저 말을 걸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니 자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우린 한국어 수업에 합류시켰다. 알고보니 그 학생의 집은 학교에서 멀었고 늘 어머니가 차로 등하교시켜주었다. 우리의 첫 날 수업은 인사말이었다. 그런데 가르치다보니 모두 이미 인사말은 알고 있었다.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

아무리 중국어과라지만 중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과 우리들은 서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고, 흥미 또한 비슷했기 때문에 비록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고 가르칠 수 있었다. ‘마음을 읽는 다는 게 이런거구나’ 를 세삼 느낄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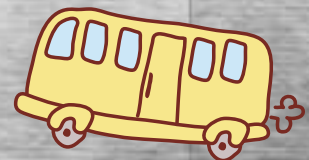
얼마 안되는 수업시간이었지만 정말 시간은 항상 빠르게 지나갔고 수업이 늦게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수업에 필요한 계임을 같이 하면서 이긴 사람에게는 한국에서 직접 준비해 간 예쁜 선물들을 줬는데 굉장히 값비싼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고맙단 말을 수 없이 말할 때는 나 또한 고마웠고 뿌듯함을 느꼈다. 수업하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일 뿌듯했던 것은 우리가 가르쳐준 말들을 다 기억하고 연습해서 배운 말들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였다.

어눌하고 부정확한 말투였지만 그 무엇보다 예쁘게 들렸다. 항상 수업시간에 오시던 그 중학생의 어머니는 우리 반의 수업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를 예뻐해 주셨다. 중국 전통과자도 주시고 같이 등산도 가자며 이것저것 권유해주셨다. 별로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고마워하고 우릴 항상 생각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쁘고 행복했다.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수업이 정말 늦게 끝이 났다. 그 동안 학생들이 궁금해 하던 한국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끝까지 헤어지기 아쉬워서 카메라로 같이 사진을 찍고 한국에 가서도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하고 다시 중국에 올 계획이 없나는 중국 학생들의 얼굴과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 도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달동안 함께했던 학생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잊지 않을 것이다.





단원 소감문

최우리
중국어학과 2학년

봉사대원이란 이름을 달고 중국에 온지 한 달이 지났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중국에 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이런 저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당황했던 때가 어제만 같은데 벌써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었다니 감개가 무량하다. 봉사활동을 오기 전 중국어가 서투른 탓에 이 곳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들의 걱정은 줄지 않았다.

수 많은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이란 나라와 ‘삼육대학교 학생’이란 두 개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조장에 외국인 많이 없어서 스무명 남짓한 우리 봉사대가 곧 한국의 얼굴이고 삼육대의 모습이라 생각하니 매사에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봉사를 시작하며 매 수업 전에 조원들과 모여서 그날의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 때 필요한 말들을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언어 속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었다. 욕심이 과했던 탓인지 첫 수업이 서투르게 어영부영 지나갔지만, 중국학생들이 한국어 자체에 흥미를 보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더 많은 준비를 통해 두 번째, 세 번째 수업들을 진행해 나갔다. 같은 학생입장이지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학생들’이란 인식에 우리에게 선생님이라 불러주는 학생들을 보며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수업시간 내내 내가하는 한 마디 한 마디에 귀 기울이며 따라 말하고 묻는 학생도 있었고, 한류열풍으로 드라마 대사를 외워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언어를 전공하는 나로서는 특히 그들의 배우고자하는 열정에 감탄했고 부럽기까지 했다.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님에도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하고 쓰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기도 했다.

첫 만남을 생각해 보면 ‘한국어로 말하는 애들이다!’ 하는 신기함과 호기심 때문에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우릴 동영상으로 촬영해가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다. 그것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 곳 학생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에 봉사를 하는 한 달 간의 여정 동안 많이 웃고 배울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다.

마지막 수업시간을 아쉬워하며 다 같이 모여서 한국 게임도 하며 즐기고 이메일 주소도 주고 받으며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는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한국어 교육반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감사의 의미라며 장식품과 저녁식사를 대접해 주기도 했는데 짧은 시간동안 우리가 가르치고 준 것들에 비해 너무도 많은 정과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싶어하고 주려하기만 해서 과분했던 것 같다.

짧지만 길었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보니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해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봉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취감까지도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인과 삼육대 대학생의 인상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모두들 최선을 다했기에 학생들도 알아 주었을 거라 의심치 않는다.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한 달간의 일정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중국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익숙지 않았던 점들도 많았지만 그들 나름의 질서와 규칙들 속에 베어 있는 지혜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간다.





미술디자인학부

목적 및 취지

1. 옥계사범학원(본 삼육대학교와 MOU체결 대학)에서 미술디자인학부생으로 구성된 대원들과 전공(미술, 디자인) 분야 연계 학술교류
2. 옥계시 제1소학교 학생들 대상 미술지도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중국 云南 玉溪市
파견기간	2011년 6월 27일(월) - 7월 7일(목)
파견인원	- 지도교수 : 2명 - 대장 : 1명 - 대원 : 17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1. 옥계사범학원 國際交流處 中韓學術交流主任, SDA文化院長(沈經燮 先生) 2. 玉溪市 第1小學校
활동내용	1. 옥계사범학원과 중국 전통판화기법 특강(작품제작)을 통한 학술교류 2. 玉溪市 第1小學校 4학년생 7학급(약 510명)을 대상으로 특별활동시간 미술지도 3. SDA文化院 직원들 대상 인성교육(단장)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	시간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3월 초순			지도교수	현지와 활동계획 조율, 미디학부장과 계획수립	
3월 중순			단장	학생처, 사회봉사단에 계획서 제출, 승인	
3월 하순			지도교수	홍보 및 봉사대원 대원 모집(확정)	
5월 중순		항공권(여행사)	20	회비(80만원) 입금 및 항공권(681,600원)구입 및 비자신청	
6월 중순				대원 사전교육(사회봉사단, 미디학부)	
6월 27일(월)	오후	인천공항 출국	20	16:30 집결, 18:30 탑승(KAL)	
	저녁	Kunming(昆明)		12:00 입국, 02:00(옥계대 게스트하우스 도착, 휴식)	
28(화) 오후 저녁	오전	玉溪大學	20 / 15	玉溪大學 캠퍼스투어 미술특강 / SDA文化院 인성교육	
	玉	溪市 第1小學校		玉溪市 第1小學校 당국자 미팅, 시내투어	
	玉	溪大學	10	玉溪師範學院 國際交流處 담당자 미팅	
29(수)	오전	玉溪大學	20 / 15	玉溪大學 미술특강 학술교류 / SDA文化院 인성교육	
	오후	玉溪市 第1小學校	320	玉溪市 第1小學校 미술 특활수업	
	저녁	玉溪大學		대원 미술 특활수업 준비	
30(목)	오전	玉溪大學	20 / 15	玉溪大學 미술특강 학술교류 / SDA文化院 인성교육	
	오후	玉溪市 第1小學校	510	玉溪市 第1小學校 미술 특활수업	
	저녁	玉溪大學		玉溪大學 & 三育大學 체육학과(무용) 공연 참가	
7월 1일(금)	오전	玉溪大學	20 / 15	玉溪大學 미술특강 학술교류 / SDA文化院 인성교육	
	오후	玉溪市 第1小學校	510	玉溪市 第1小學校 미술 특활수업	
	저녁	SDA文化院	35	문화원생들과 인성교육 및 친교 미팅	
2(토)	오전	특별 순서	30	玉溪師範學院 中韓學術交流主任 및 대원들 집회	
	오후	玉溪市	22	玉溪市立 博物館 견학(현장수업)	
	저녁	玉溪大學	20	玉溪大學生들과 미팅	
3(일)	오전	玉溪市		시내 투어	
	오후	玉溪市		玉溪大學 美術系(張漢東교수) 미팅	
	저녁	SDA文化院	35	SDA文化院生들과 환송식	
4(월)	오전	玉溪市 근교	22	문화체험(관광) - 青銅器博物館 견학	
	오후	玉溪市 장춘		후시안 호수 및 孤山島 渡船	
	저녁	玉溪市 근교		후시안 호수, 老兵호텔 숙박	
5(화)	오전	昆明	22	石林 관광	
	오후	昆明九鄉		동굴 관광	
	저녁	昆明 시내		온천호텔 숙박	
6(수)	오전	昆明	22	서산공원 관람	
	오후	昆明		云南 民族村 관람, 가명 화훼(花卉)시장	
	저녁	昆明 출국		밤 12:05 출국	
7(목)	오전	인천공항 입국	20	05:30 인천공항 도착,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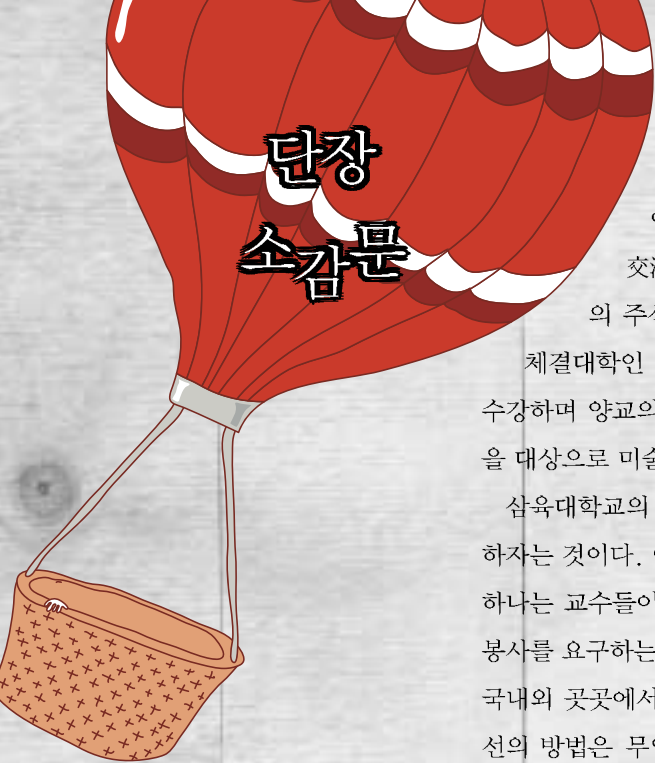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고태영	미술컨텐츠		봉사단장	
지도교수	전종범	커뮤니케이션		지도교수	
대장	채진	커뮤니케이션	2	봉사대장	
2	설현진	커뮤니케이션	2	어린이 교사	
3	김란	커뮤니케이션	1	어린이 교사	
4	김아로	커뮤니케이션	1	어린이 교사	
5	김혜영	커뮤니케이션	1	어린이 교사	
6	이나경	커뮤니케이션	1	어린이 교사	
7	이준규	커뮤니케이션	1	어린이 교사	
8	한희동	커뮤니케이션	1	어린이 교사	
9	황혜민	커뮤니케이션	1	어린이 교사	
10	이지영	미술컨텐츠	3	어린이 교사	
11	조정훈	미술컨텐츠	3	어린이 교사	
12	박슬기	미술컨텐츠	2	어린이 교사	
13	전혜리	미술컨텐츠	2	어린이 교사	
14	고수진	미술컨텐츠	1	어린이 교사	
15	김다혜	미술컨텐츠	1	어린이 교사	
16	박은지	미술컨텐츠	1	어린이 교사	
17	윤정인	미술컨텐츠	1	어린이 교사	
18	이태수	미술컨텐츠	1	어린이 교사	



활동사진 자료집





단장 소감문

고태영

미술컨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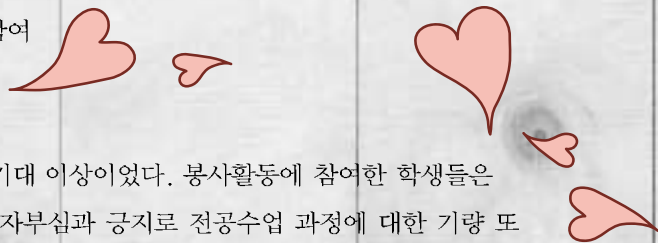
미술전공을 통한 봉사의 보람을 만끽하다.

중국 옥계지역 하기봉사대 인솔은 2010년 겨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활동 역시 玉溪?范學院 國際交流處 中韓學術交流主任이자, SDA文化院長인 沈?變 先生의 주선에 의해 추진되었다. 우리의 주된 활동은, 본교와 MOU 체결대학인 玉溪?范學院의 美術科 교수로부터 중국 전통판화기법을 수강하며 양교의 학술교류활동을 갖는 것과, 玉溪市 第1小學校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특활수업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인 三育人의 像은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를 양성 하자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그중 하나는 교수들이 학생들과 더불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봉사를 요구하는 곳들은 많다.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문봉사기관은 물론, 국내외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다. 최선의 봉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활용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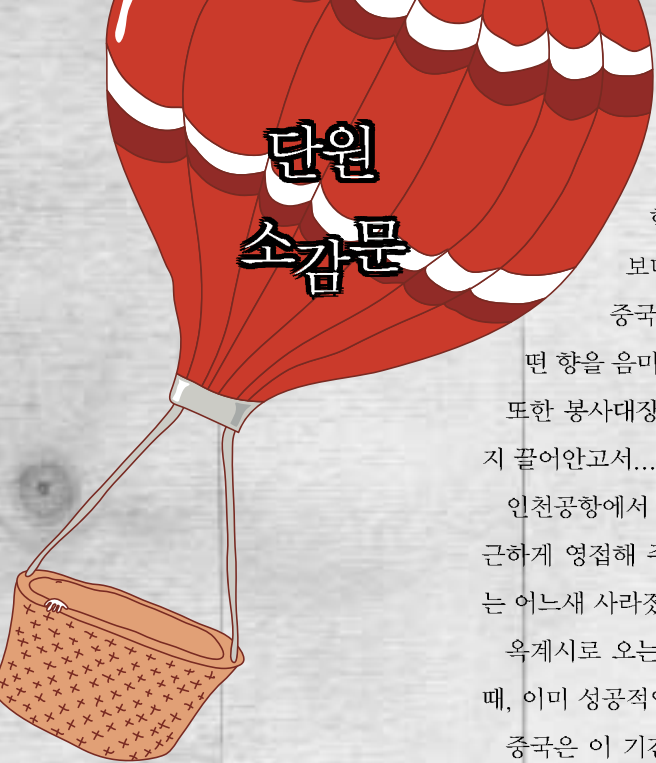
이에 본 미술디자인학부에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몽골(Mongolia)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rt School”이라는 명칭의 단기미술학교를 개최해 왔다. 미술 전공생들로 구성된 봉사대였기에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것은 물론, 실제적인 봉사능력과 전문성 역시 기대 이상이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와 학과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긍지로 전공수업 과정에 대한 기량 또한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보았다.

이번의 玉溪市 第1小學校 학생들의 미술수업지도 봉사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대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최고의 보람과 감동을 맛보았다는 것이다. 사실 그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그것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명문 소학교인데,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대학생(주로 1, 2학년생)들에게 특활수업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으리라. 이런 선택을 해 준 교장선생님과, 이일을 주선해 준 심선생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옥계지역에 뿌려진 심선생에 대한 신뢰로 인해 얻어진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 전통판화 수업도 인상적이었다. 컴퓨터에 더 익숙해져 있던 대원들이, 완성작품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오로지 수작업을 통해 완성해 내는 진지함을 보여줬다. 이와 같은 문화교류활동을 통해 작가 정신을 배우고, 중국 미술문화를 더욱 가깝게 체험하며, 양교의 우의를 더욱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체류기간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제공해준 玉溪?范學院, 매끼 구미당기는 음식으로 대원들의 식욕을 만족시켜 주셨던 김사모님, 통역을 도와줬던 두 파님과 현지 유학생들, 대원 지도에 힘써준 전종범교수... 모두 훌륭한 봉사자들이었음에 감사하다.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고 끝까지 성실성을 보여 준 18명의 봉사대원들에게 단장으로서 마음깊이 감사함을 전한다.



단원 소감문

채진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2학년
팀 대장

따스한 사람들의 가득한 중국 향기

중국 땅의 공기에서는 특유의 향이 난다. 음식의 독특한 향, 거대한 대륙의 다양한 민족이 남긴 전통의 향, 무엇보다 따스한 사람들의 향기...

중국을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던 나이기에, 이번에는 또 어떤 향을 음미해볼까라는 기대감으로 설레었다.

또한 봉사대장직을 맡았기에 리더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적잖은 걱정까지 끌어안고서...

인천공항에서 4시간 반 만에 쿤밍공항에 도착, 대륙에 첫 발을 딛자, 친근하게 영접해 주시는 현지의 심선생님 내외분의 넉넉한 미소에 걱정거리는 어느새 사라졌다.

옥계시로 오는 동안 함께 활동할 체육학과 리더와 일정에 대해 의논할 때, 이미 성공적인 봉사활동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 기간이 우기라고 했다. 보슬보슬 내려주는 가는 비는 우리를 환영해주듯 했다. 모든 대원들은 부푼 마음으로 옥계대학교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새벽 2시 경에야 잠시 잠을 청했다.

옥계대학교는 우리 삼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학교이다. 일찍부터 그분들의 환영인사

와 캠퍼스 투어로 기분 좋은 일정이 시작되었다.

한국과 다른 중국의 문화를 접하고 숨겨진 얘기를 들으며 신기해하는 나에게, 그분들은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었다. 매일 오전은 중국 전통미술 체험학습 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

옥계시 제1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

우리 조가 배정받은 학급은 초등학교 4학년 1반이었다. 선생님이 된다는 마음에 긴장도 되고 걱정과 부담도 많이 됐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우리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인사하는 그 함성에 너무 기뻐 입이 귀에 걸릴 정도였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어린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다.

우리가 준비해간 탈 재료에 색을 칠하는 수업이었다. 미리 만들어간 샘플을 보여주자 어떤 어린이가 “저는 선생님 것과 꼭 같이 그리고 싶어요.”

라고 응석을 피웠다. 아, 정말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건데도 이렇게 좋아해주다니... 내일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개구쟁이들이지만, 어떻게 그렇게도 해맑게 웃어 주는지 오히려 내가 웃는 방법도 배워온 것 같다.

불과 며칠 동안이었지만, 우리를 선생님과 생각해주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어 준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인해 너무도 행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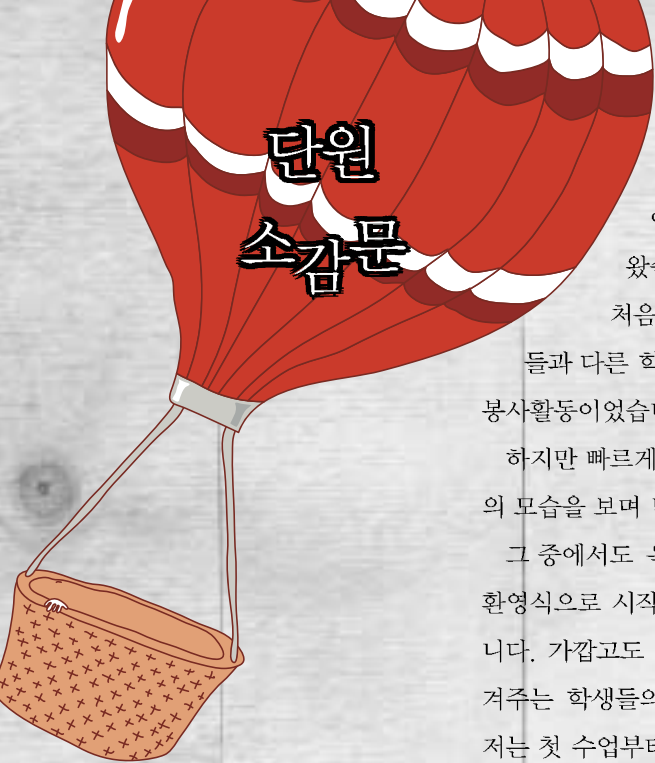
내가 정말로 멋진 선생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 하나만 들어 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나는 아이들에게 미술이라는 지식을 알려줬지만 그 아이들은 내게 더욱 뜻깊은 추억거리를 안겨주었고...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 “봉사란 남을 위해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봉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고, 큰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되니 결국은 나한테 봉사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의 이번 첫 해외봉사는 대학시절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키워드로 남을 것 같다.

해맑은 웃음을 지닌 우리 4학년 1반 학생들... 아직 한국의 대학생선생님을 기억하고들 있을까?

별써 그들이 많이 보고 싶다.



단원 소감문

설현진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학년
어린이 교사

크고 웅대한 중국대륙
여리고 고운 심성을
지닌 그 어린이들

부푼 마음을 안고 중국으로 출발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10일이란 기간이 지나 다시 한국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타국에 가서 낯선 장소에서 지내며 조금은 어색한 후배들과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 함께 지낼 생각에 솔직히 어렵게 선택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점점 중국생활에 익숙해 저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계시 제1소학교 귀여운 4학년 1반, 7반 친구들과 성대한 환영식으로 시작했던 탈 꾸미기 수업은 가장 인상 깊은 추억 중 하나였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에서 온 낯선 이방인을 너무나도 순수하게 반겨주는 학생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외국인 올림종이 있었던 저는 첫 수업부터 겁먹고 주저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중국이름과 한국이름으로 맞바꾸어 공유하며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이 서로 맞닿을 수 있었던 순수하고도 따뜻했던 이번 교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 7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길 수 없었던 아쉬움이 크지만, 모두가 귀여운 꼬막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중국어로 써준 즉석 명함은 정말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잘 읽지도 못하는 중국어였지만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정성만큼은 잘 전달되었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아울러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 또한 많았는데, 그 중에 판화수업은 수작업의 묘미를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기에 컴퓨터에 몇 시간이고 앉아 과제에 시달렸던 터라,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수작업의 참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 나무판 위에 스케치를 한 후 도장 파듯이 조각도로 파내는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편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힘들다며 찡찡대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파내고 칠하고 찍고 말리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던 4일 동안의 판화수업은 그저 유치원 때 고무판화로 그림을 찍어내던 쉽고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전통기법이 더해져 인공의 시간과 섬세한 작가정신만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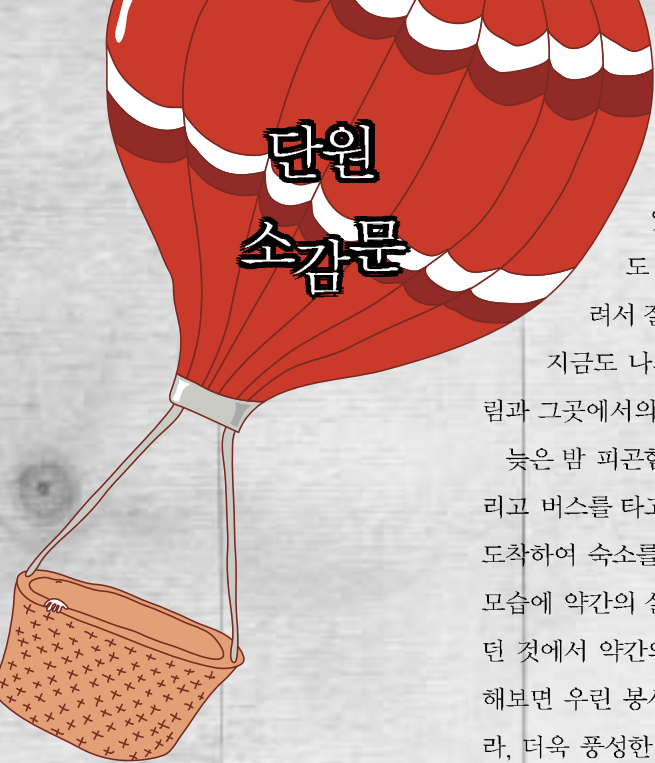
소 체험하게 한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의 의도대로 나와 주진 않았지만, 손까지 베어가며 공들였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의 첫 판화 작품의 탄생은 어떤 위대한 작품보다 특별한 애착과 정이 느껴졌습니다. 소녀가 잠자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었는데,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어서 그런지 뿌듯함을 감출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계대학 동양화 교수님의 작업실에서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수묵화그림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봐오던 한국화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그 그림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도교에서 비롯된 음과 양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교수님만의 사상이 담겨있던 그 그림들은 한 폭, 한 폭 수묵화 특유의 동양미를 뽐내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직접 연꽃그리기 시범도 보여주셨는데, 그 동안 작가들이 동양화를 어떻게 그리시는지 궁금했던 저로서는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옥계대학생들과 우리 삼육대학교 체육학과생들이 함께 연출했던 화려한 무대는 정말 공짜로 보긴 아까울 정도 멋진 무대였습니다. 단지 이색적인 볼거리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얼마나 큰 노력과 땀을 흘렸는지를 느끼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중국어와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하며 교류와 만남을 가졌던 즐거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젠 관광을 떠났습니다. 중국 대륙은 너무 넓어 바다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호수를 바닷가로 삼아 휴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바다라고 착각할 만큼 큰 호수에서 뱃놀이도 즐기고 물장구도 치며 동심을 경험했습니다. 대륙의미를 뽐내는 웅장한 구향동굴, 돌로 숲을 이룬 석림, 아름답게 잘 가꿔진 여러 자연공원들을 관광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일이란 기간을 보내며 동료 대원들과 친목을 쌓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이면에는, 우리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통역해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셨던 심선생님 가족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신 고태영교수님과 전종범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단원 소감문

이지영

미술컨텐츠학과 3학년
어린이 교사

대학 시절에 의미를 더해준 나의 소중한 중국봉사활동 체험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계속 원해왔던 해외봉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무엇보다 미술봉사였기에 많은 기대도 있었지만, 출국 전까지도 함께 가는 대원 학생들과 잘 어울려서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지금도 나의 첫 해외봉사지인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떨림과 그곳에서의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늦은 밤 피곤함과 설렘을 안고 우리는 중국 쿤밍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달려 옥계 시에 있는 옥계대학의 기숙사에 도착하여 숙소를 배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에 약간의 실망감이 들기도 하였다. 또한 일정이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것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린 봉사를 온 것이기에 그런 것들을(환경, 일정) 탓할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날들 동안 준비해 오지 못했을까하는(초등학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문화와 예술의 체험...

첫 번째로 우리는 4일간의 오전시간 동안 중국 전통 판화에 대해 직접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은 옥계대학 안의 학교 박물관에서 판화나 유화, 소수 민족 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을 구경하고 설명들을 들었다. 나머지 3일 동안은 중국 전통 판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의 당황함과는 달리 현지의 선생님께서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빨리 배우고 작업할 수 있었고 후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뿌듯하였다. 잠깐의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선생님들과 현지 분들이 매우 잘 대해주시고 친절하셔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미술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전통 미술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뽄뽄뽄뽄한 맑고 순수했던 아이들의 눈망을...

다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한 곳은 옥계시 안의 옥계 제1초등학교에서 4학년들에게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수업 내용인 한국 전통 하회탈과 부채꾸미기 수업을 위해 우리는 각각 4명이 한 조가 되어 미리 샘플용으로 탈 제작을 하고 수업멘트를 짜고 수업 진행방식을 의논하고 통역사와 미리 맞춰보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가졌다. 본격적으로 반에 들어가서 수

업을 진행하면서는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우리를 웃음으로 반기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뿌듯함과 동시에 마음이 맑아짐을 느꼈다. 한글로 우리의 이름을 써주기도 하였는데, 너도나도 서로 써달라고 물리는 바람에 약간의 난감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가득 뿌듯함이 밀려왔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위해 잘하는 4명에게 선물로 우리가 각자 만든 탈과 부채를 주기도 하였는데 멋진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아주 좋아해주고 환호하는 모습에서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교문에서 모든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며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한 반을 맡아 수업을 진행 하면서 작은 것에도 정말 좋아하고 잘 웃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우리가 그 반을 들어갈 때 마다 큰소리로 인사하고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겐 내가 기다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며 뿌듯하였다.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이제 막 친해지게 되었는데 정도 제대로 못 붙이고 마쳐야 해서, 그리고 작별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짐이 미안함과 커다란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해외봉사를 처음 경험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행복감과, (약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깨끗하고 느끼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그 때의 사진을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떠올려 보았다. 중국 현지 사람들의 따스한 미소와 친절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애정과 관심이 그리워서 일까? 저녁 식사 후 공원에서 중국인들과 같이 해 본 체조와 춤, 어두운 밤길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해말 때 친절하게 안내해 준 가족 분들,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고 우리를 위해 후문에서 기숙사까지 길을 안내해 준 옥계대학생들...

운남성의 다양한 현지 문화체험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하나도 잊을 수가 없다. 역사박물관 관람이며, 후시안 호숫가에서 먹어 본 잉어 탕, 폐달 뱀아 저어가는 배를 타고 호수 안의 작은 섬인 고산도(孤山島)를 다녀온 일, 운남성 26개의 소수민족의 삶을 맛볼 수 있는 민족촌(民族村), 그 안에서의 소수민족 민속 공연과 코끼리 쇼, 곤명시에 위치한 石甌(세계최대 바위 숲), 아주 아름다운 지하 동굴 중 하나인 구향(九鄉)동굴, 봉사활동 마지막 날에 대원들과 밤새며 많은 얘기를 나눈 일 등...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던 분들 한명 한명도 잊을 수가 없다. 현지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심선생님 가족들과 SDA문화원 사람들, 판화수업 교수님들과 초등학교 아이들, 거기서 만난 좋은 중국인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리고 11일 동안 함께했던 교수님과도 정말 소중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또한 중국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다. 무엇보다, 나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삶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많은 것을 배웠던 그 시간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단원 소감문

황혜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학년
어린이 교사

누군가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것 같다. 더욱이 이번의 경우엔 봉사활동의 시작이 해외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어떻게 봉사에 임해야 할까? 내 작은 존재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중국 해외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드디어 중국에 도착했고... 먼저, 우리가 봉사할 곳인 옥계시제1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학교를 둘러보고 왔다. 그리고 다시 자문했다. 나의 역할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첫 시간, 우리 반 아이들과 대면했을 땐 조금은 어색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밝은 표정과 태도를 보고 내 마음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더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점차 낯설던 곳이 익숙해지고 어렵게 느껴지던 아이들이 친근하게 여겨졌다. 아이들은 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고 즐거워하였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행복해 한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기뻐

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었으나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자원봉사는 나를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베푼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그들의 미소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결국 더 크고 많은 것을 몸과 마음으로 배웠음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 바빠서 주변 이웃에 관심이 없고, 또한 나눔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도 또한 그렇게 생활해왔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봉사활동은 내게 물질적인 이익이나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행동이다. 공부에 얽매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활동을 떠나보라고 권하고 싶다. 봉사활동을 통해 공부 몇 자 보다 더 뜻 깊고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니까 말이

다.

이것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들이다. 봉사란 힘든 게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문화스포츠봉사대(미리암, Fly)

목적 및 취지

- 1) MOU 체결대학인 옥계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과의 문화(무용분야) 및 스포츠(건강에어로빅, 태권도) 학술교류
- 2) 봉사대원들에게 전공을 활용한 해외봉사 기회 제공 및 중국(운남성 지방) 체험교육 및 문화시범(한국무용, 건강에어로빅) 공연 및 스포츠(태권도) 공연 및 체험 교육 실시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중국 옥계대학교
파견기간	6월 27일 ~ 7월 7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1명 - 대장 : 1명 - 대원 : 9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중국 옥계 SDA 어학원
활동내용	1. 초등학교 체육, 무용 교육 실시 2. 옥계대학교 체육학과 전공 시범 및 교류 학습 3. 삼육대학교와 옥계대학교의 교류 공연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6월 29일	옥계시 제일 소학교	300명	한국무용, 에어로빅, 태권도, 육상 교육	
6월 30일	옥계대학교 체육관	70명	옥계대학교 체육학과와 전공 실기 시범 및 교류 학습	
6월 30일	옥계 대학 음 악원 공연 홀	500명	삼육대학교 미리암 & 플라이 무용단 작품 공연과 옥계대학교 체육학과 실기 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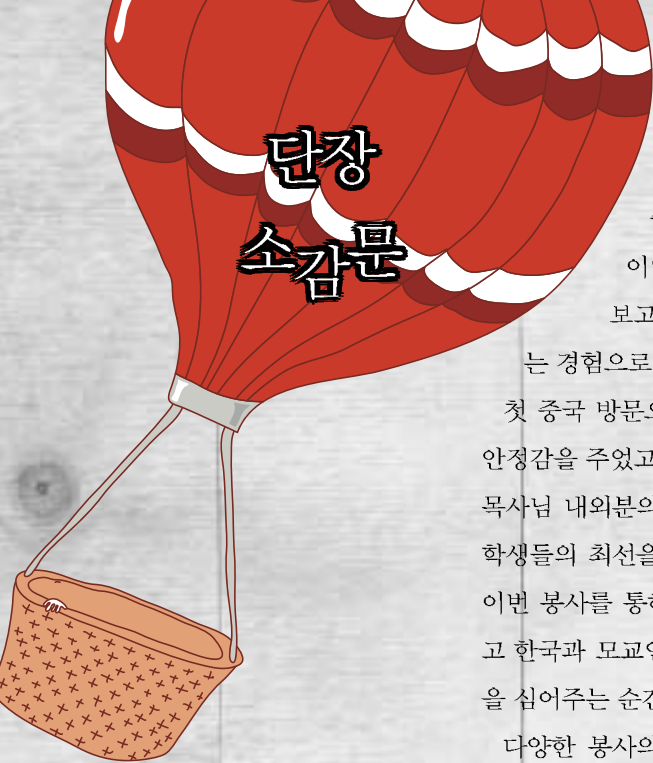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박승순	생활체육학과			
대장	최대훈	생활체육학과	4		
2	박휘진	생활체육학과	3		
3	송지윤	생활체육학과	3		
4	안성정	생활체육학과	3		
5	전보미	생활체육학과	3		
6	조은별	생활체육학과	2		
7	순승우	생활체육학과	1		
8	정수근	생활체육학과	1		
9	함다영	생활체육학과	1		
10	황효정	생활체육학과	1		



활동사진 자료집





박승순
생활체육학과 교수

소박함의 가치

많은 해외공연을 다녀 봤지만 이번 해외, 중국 문화예술 봉사단의 모든 활동과 경험은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들이었다.

보고서에 기술한 모든 활동의 하나하나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경험으로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었다.

첫 중국 방문으로 걱정스러움이 중국 옥계의 평화로움과 적절한 기온이 안정감을 주었고, 동행한 미술디자인 학부의 두 교수님과 현지의 선교사인 목사님 내외분의 친절하고 다정함이 큰 용기를 주었고,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이번 봉사의 성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최고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과 모교인 삼육대학교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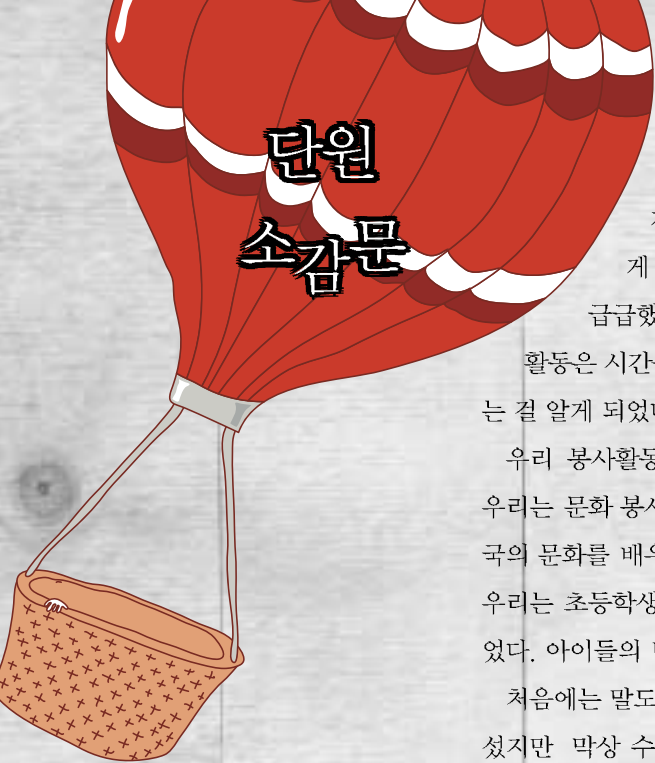
다양한 봉사의 개념으로 대학봉사대로서 전공을 살려 학생들의 잠재적인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봉사활동을 권유하고 싶다.

한 학기 내내 준비하는데 힘들었던 점, 마음 아팠던 모든 것을 다 보상 받은 것 같은 순간들이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10박11일 동안의 우리 학과 학생들의 모습은 학교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옥계의 초등학생, 대학생, 대학관계자들과의 화합, 또한 의미 있고 보람된 경험이었고 봉사기간동안 우리대학 교수님과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현지의 선교사의 생활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첫 해외봉사 활동인 만큼 많은 의미를 담아볼 수 있었다.

끝으로 생활체육학과 제자들이 참으로 자랑스롭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대학의 봉사 사업의 중요성과 지원에 열의를 다하시는 총장님과 사회봉사단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황효정

생활체육학과 1학년

단원 소감문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나에게 이번 중국 옥계 문화 봉사활동은 좋은 기회일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봉사활동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저 시간 때우기에만 급급했었다. 하지만 삼육대학교라는 학교에 들어오고 나니 봉사활동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봉사활동 이름은 플라이&미리암 문화 봉사활동이라고 붙였는데 우리는 문화 봉사활동을 하기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주며 문화를 교류하는 봉사활동이었다. 우리는 초등학생들에게 각각 태권도, 에어로빅, 현대무용, 육상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았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가르치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잘 따라와 주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선물로 준비해 간 육상유니폼을 받고 싶어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우리 수업에 임해주었다.

이렇게 초등학생 수업을 마치고, 다음 일정은 옥계대학생들과의 문화교류였다. 태권도 도복을 입고 체육관으로 들어갔다. 대학생들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맨발로 몸을 풀고 있었는데 나는 태권도를 관둔 지 오래되어서 초등학생 수업을 할 때보다 더욱 걱정했었다. 중국 대학생들의 시범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쿵푸시범을 보는데 역시 쿵푸의 고향이라 그런지 절도가 느껴졌고 날렵하고 멋있어 보였다. 태권무의 시범도 보았고 봉과 방패, 그리고 검을 들고 하는 무술시범도 있었는데 유머를 더한 시범이어서 그런지 웃으면서 재미있게 보았다. 중국의 시범이 끝이 난 다음에 우리팀의 시범이 있었는데 태권로빅의 1절과 일지매 중 에어로빅동작을 보여주었다.

시범이 끝 난 후에는 한국무용을 중국 대학생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다. 둥글게 두 줄로 서서 배우는 한국무용은 함께 배우는 나도 웃으며 열심히 했다. 중국 대학생도 재미있어 하는 눈치였다. 한국무용을 가르쳐준 후 우리는 중국의 대표 무예인 쿵푸를 배웠다. 기초동작이라고 알려준 3가지 동작이 있었는데 기초동작이라고 하기에는 무척이나 따라하기 힘든 동작

이었다.

3가지 동작을 배우고 나니 쿵푸에 재미를 느꼈다. 한국에도 쿵푸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쿵푸를 배우며 한국에 와서도 쿵푸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쿵푸의 절제된 동작과 멋에 매료된 시간이었다. 그 날 저녁에는 우리의 공연이 있는 날이었다.

우리팀의 봉사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공연이었다. 공연의 힘들었던 점은 중간 공연시간을 쪼개 의상을 갈아 입는 일이었다. 나는 이런 큰 무대가 처음이라 그저 틀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공연을 했지만 태평무를 시작으로 태권무, 소고춤, 일지매 그리고 뮤지컬인 워킹다운 더 스트릿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특히 국제 에어로빅스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받았던 일지매 공연은 인기 폭발이었다. 나중에 대기실까지 와서 일지매의 곡을 달라고 할 정도였다. 일지매의 옷을 입고 있으니 사진을 찍자고 오는 중국인들도 많이 있었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 자랑스러웠고 이 기회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옥계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지만, 오히려 내가 받은 것이 많았던 것 같다. 그 곳에서 가족 같은 좋은 분을 만난 좋은 기회였고, 문화 봉사활동을 하며 한국을 널리 알리고 중국의 문화도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배울 것이 많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





물리치료학과

목적 및 취지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못 받는 괌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건강 교육을 실시함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괌 SDA clinic, 물리치료실 및 괌 대학을 방문하여 국제 시스템을 체험한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220 Igesia Circle Dededo GU 96929, GUAM
파견기간	7월 3일 ~ 13일 (10박 11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2명 - 대장 : 1명 - 대원 : 15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괌 SDA
활동내용	- 교민 대상 물리치료 의료 봉사 - 교민 대상 건강교육 실시 - 노인회관 방문 공연 및 마사지 봉사 - 노숙자 대상 물리치료 의료 봉사 - SDA clinic, 물리치료실 및 괌 대학 방문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7월 4일~10일	괌 SDA	일평균 60명	물리치료 의료 봉사 및 건강 교육	
7월 5일	SDA clinic		병원장을 통한 병원 시스템 교육	
7월 6일	괌 대학		괌의 유일한 대학인 괌 대학 방문	
7월 7일	PT clinic		전공 관련 PT clinic 방문을 통해 현지 물리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7월 8일	노인회관	20명	문화 공연 및 마사지 봉사, 간식 제공	
7월 8일	괌 SDA	50명	교민 대상 문화 공연	
7월 9일	Dededo	30명	교민 청소년과 함께 동굴체험 하이킹	
7월 11일~12일			괌 역사와 전쟁 관련 장소 방문 및 문화 체험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이승원	물리치료학과		지도, 건강교육	
지도교수	송창호	물리치료학과		지도, 건강교육	
대장	마광진	물리치료학과	3	총괄, 플룻	
2	송윤광	물리치료학과	4	테이핑, 수화	
3	이현	물리치료학과	3	조장, 마사지, 오카리나	총무
4	이충호	물리치료학과	3	조장, 마사지, 오카리나	
5	조주연	물리치료학과	3	뜸, 오카리나	
6	이주현	물리치료학과	3	조장, 전기치료, 오카리나	
7	정히라	물리치료학과	2	마사지, 플룻	
8	허은영	물리치료학과	2	뜸, 오카리나	
9	전혜림	물리치료학과	2	마사지, 플룻, 사진	
10	전이삭	물리치료학과	1	뜸, 수화	
11	성윤제	물리치료학과	1	전기치료, 수화	
12	김종근	물리치료학과	2	마사지, 수화, 영상	
13	양유진	대학원물리치료학과		안내, 상담	
14	이경진	대학원물리치료학과		안내, 상담	

2011 Guam Volunteer Corps ①

SAHMYOOK UNIVERSITY

활동사진 자료집

- ① 물리치료학과 괄 봉사대 현수막
- ② 마사지 하는 봉사단원
- ③ 요실금 강의 및 운동하는 모습
- ④ 요실금 및 낙상예방 교육하시는 교수님
- ⑤ 대학교 캠퍼스 방문
- ⑥ 봉사하는 곳에서 단체사진
- ⑦ 입구에서 환자접수 및 관리, 치료해주는 선생님 두분





8



9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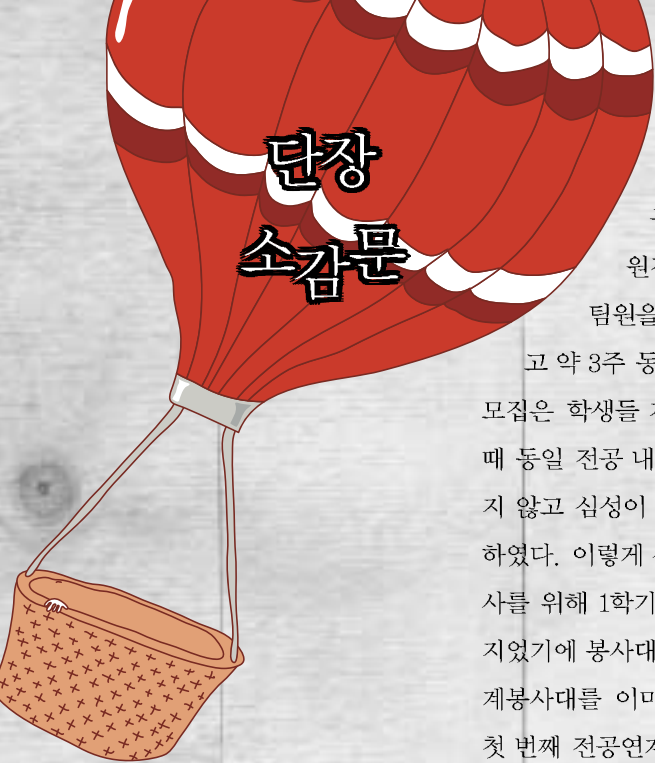
- ⑧ 땀 치료하는 모습
- ⑨ 사용된 땀과 땀기
- ⑩ 마사지 팀과 교수님 교수님의 준비 끝
- ⑪ 테이핑 하는 모습
- ⑫ 노인회관 방문 시 문화공연
- ⑬ 교민대상 문화공연 중 합창
- ⑭ 노인회관 방문 시 마사지 봉사



13



14



단장 소감문

이승원

물리치료학과 교수

전공연계 봉사대를 2009년 겨울에 다녀온 후 2번째 전공연계 봉사대를 다녀오게 되었다. 학과 내에서 봉사대 임원진을 구축하였고 선발된 대장과 임원진들이 마음이 맞는 팀원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모집과정은 1학기 초부터 시작되었고 약 3주 동안 심사숙고 끝에 지금 봉사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모든 모집은 학생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모집 후 모집기준에 대해 물었을 때 동일 전공 내에서의 선출이기에 전공의 이해여부보다는 팀워크를 해치지 않고 심성이 착하며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봉사대원들과 송창호 교수님과 함께 광 물리치료봉사를 위해 1학기 동안 준비해 왔다. 다른 봉사대 팀보다 먼저 대원을 확정지었기에 봉사대 준비도 일찍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한 번의 전공연계봉사대를 이미 인솔한 경험이 있어 준비하는 과정이 수월하였다. 특히 첫 번째 전공연계 봉사대에 대장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이번 봉사대에 같이 하게 되어 더욱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출발하는 날부터 사라지고 말았다. 철저히 준비된 봉사대라고 생각했지만 광 입국과정에서부터 빼터덕거린 것이었다. 우선 비행기의 문제로 늦게 광에 도착하게 되었고 입국심사 시 왕복표를 모든 대원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 입국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행히 통역직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모든 대원이 광에 입국했지만 도착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마중 나온 분들에게 실례를 범하게 되었다. 봉사 장소 도착 후 준비해주신 저녁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짐을 점검할 시 건강교육에서 중요한 물건이 빠진 것을 알았을 때는 봉사가 정말 잘 이루어질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었다.

이러한 걱정은 첫 의료봉사가 시작된 후 말끔히 씻겼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맡은 팀에서 최선을 다했고 같이 참여한 대학원생 2명은 교민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상담하였다. 이에 봉사에 참여하신 교민들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고 그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민신문 광고를 통해 이미 예고되었던 봉사였지만 입소문을 통해 알고 오신 교민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노숙자들로 날이 갈수록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치료받기 위해 봉사에 참여하였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면 올수록 봉사하는

대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봉사에 대한 기쁨과 보람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봉사하게 되었다. 물리치료를 받은 교민들이 제공해 주신 음식들과 각종 선물들, 또한 봉사기간 동안 계속 잡히는 식사초대 스케줄 등은 이번 봉사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우리 대원들이 베푼 작은 봉사에 교민들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었고, 대원들은 교민들의 넘치는 사랑에 봉사기간 내내 감동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각 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던 교민들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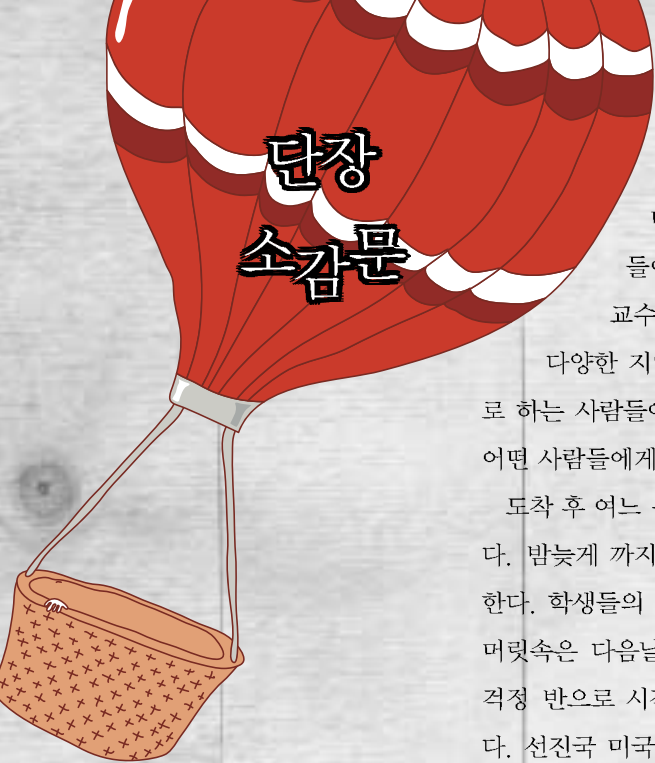
대원들은 처음엔 어색하고 서툰 모습이었지만 봉사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느덧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봉사대를 통해 대원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봉사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봉사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학인 삼육대학교에서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의료봉사시간 외에 교민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노인분들에게 문화공연 및 마사지 봉사를 통해 잠시나마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르신들의 반응은 친 손자손녀처럼 대원들을 대해주셨고 우리가 회관을 나올 때까지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아끼지 않으셨다. 대원들은 돌아오면서 서로를 쳐다보며 끝이지 않는 미소를 보면서 봉사의 기쁨을 맛 볼 수 있었다.

봉사대 장소가 꿈이라고 했을 때 주변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잘 쉬다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꿈에 와보니 미국령이기는 하지만 의료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교민들은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오히려 의료혜택 때문에 꿈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외부에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꿈 현지교민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은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비록 봉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물리치료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빡빡한 일정 속에 많이 힘들었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봉사에 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은 봉사대 스스로가 이번 봉사대를 통해 얻은 귀한 보물이 아닌가 한다.

다. 의구심으로 시작된 봉사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봉사대원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



송창호

물리치료학과 교수

단장 소감문

바쁜 일상 때문인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꿈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저 멀리 비행기 날개 밑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이미 봉사일정이 시작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교수 임용 후 7번째 봉사대.

다양한 지역의 많은 경험을 한 나지만 꿈이라는 지역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아직은 미완성인 학생들의 작은 물리치료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여정은 시작되었다.

도착 후 어느 봉사대 일정과 마찬가지로 매우 힘든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밤늦게 까지 학생들은 훈련시켜야하며 틈틈이 건강강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학생들의 식사를 위한 장을 보러 다녀야하고 바쁜 움직임 속에서도 머릿속은 다음날 있을 봉사일정을 시뮬레이션 하느라 분주하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물리치료봉사. 그러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선진국 미국의 땅 꿈이지만 그 속에서도 한인들에게는 의료혜택이 턱없이 부족하여 물리치료 봉사는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 야전병원을 상상하게 하는 시설이었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자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이번 봉사를 함께 추진했던 꿈 한인 대표 한선생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의료상담, 혈압체크, 전기치료, 온열치료, 기계마사지, 치료적 마사지, 뜸치료, 부항치료, 테이핑치료, 치료적 운동 등을 3팀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장소에 배치했고 각 팀별로 팀장과 팀원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병명과 부위에 따른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나는 저녁 건강강의와 한방물리치료를 담당하였다. 건강강의는 요통운동, 요실금운동, 당뇨운동, 고혈압운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한방물리치료는 뜸과 부항으로 시행하였다.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는 환자들 덕분에 내 마음의 쌓여있던 걱정은 멀리 달아나고 비록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보람과 기쁨으로 마음은 가득 찼다.

학생들도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었다. 팀원끼리 협력하였고 선후배가 하나되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웠다. 1학년 새내기 이삭이와 윤재는 아직 전공을 배우지 않았지만 형과 누나들을 따라 다니며 열심히 연습한 탓일까 마지막날에는 제법 물리치료사의 모습이 보였다.

둘째날부터 시작된 선물공세는 우리를 또 다시 행복하게 했다. 작게는 감사한 마음의 표현으로부터 크게는 식사대접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반응이 늘 그랬지만 이번 봉사대도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만 사랑을 받고 온다는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미용사가 더욱 기억에 남는다. 남들보다는 다소 무거운 몸을 가졌던 그녀. 하루종일 무거운 몸을 이끌며 다른 사람의 머리를 손질해야하는 그녀는 족저근막통과 종골통이 심한 상태였다. 발의 통증으로 밤에는 잠도 설쳐야했다. 비용문제로 병원을 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였다. 한국 교민들이 의료보험으로 인한 비용이 많아 보험을 들지 않고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 것도 여유가 있거나 사업차 왕래가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40년 넘게 꿈에 살고 계신 어르신은 꿈을 키우는 나라라는 말을 하셨다. 부족한 의술이지만 성심성의껏 치료한 덕분일까 치료를 받고 통증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잤다고 기뻐하는 그 미용사를 보며 내가 봉사를 해야하는 이유를 또 한번 알게 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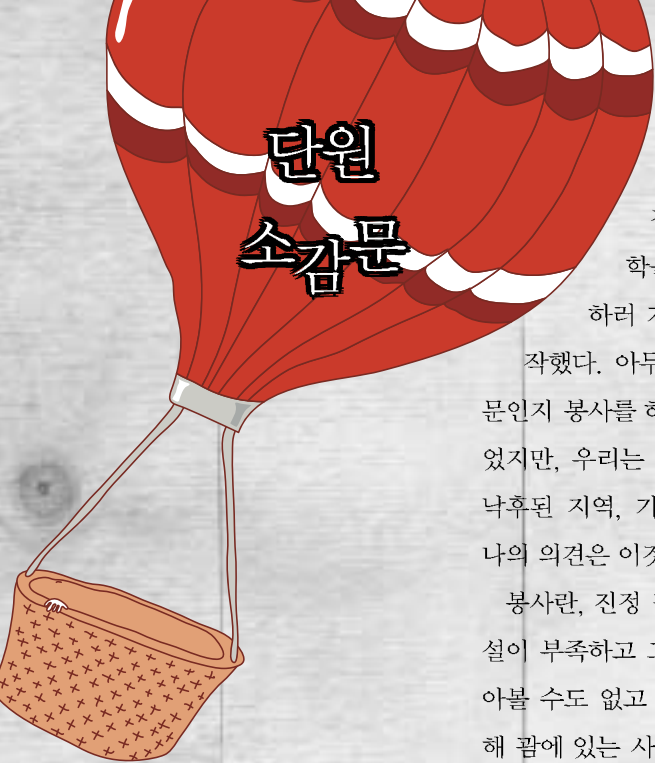
한국과 마찬가지로 꿈 또한 노인들이 많았고 노인회관으로 원정치료를 가게 되었다.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과 마사지 봉사등은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 생의 정리하고 계신 한인 노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헤어질 때는 눈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하여 학생들이 많이 훈련되었고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사드린다.

비록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나 또한 가족과 떨어져 있고 불편한 시설속에서 있었지만 물리치료사로서 교수로서 의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본 하늘은 유난히 더 아름다웠다.



이현
물리치료학과, 3학년
총무

단원 소감문

2011년 나는 물리치료학과 괄 봉사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여름에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남을 위한 방학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봉사대를 준비했다. 우리가 봉사하러 가는 곳이 괄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괄은 우리나라보다 GDP도 높고, 물가도 비싸기 때문인지 봉사를 하는 것이냐, 관광을 하러 가는 것이냐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지만, 우리는 묵묵히 괄 봉사대를 준비했다. 사람들은 흔히 봉사활동이 낙후된 지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의견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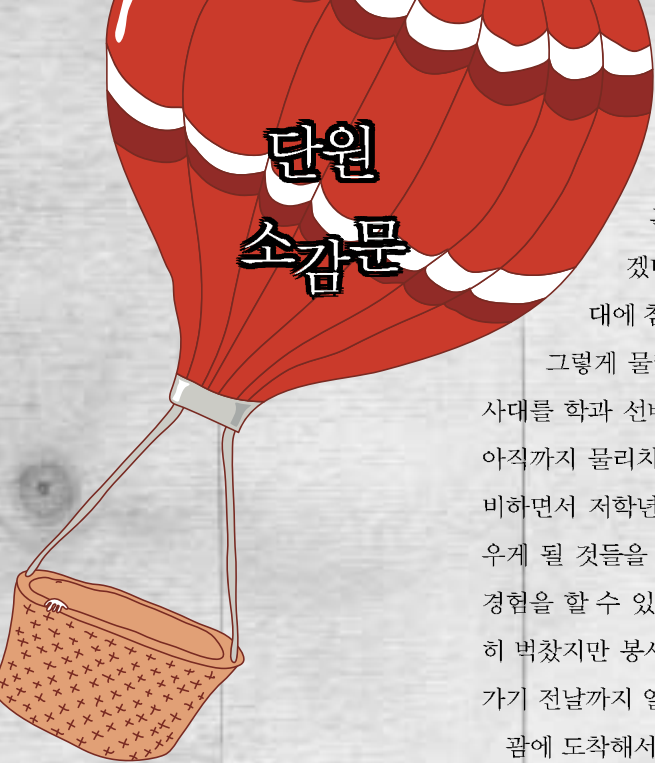
봉사란, 진정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괄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그 수준 또한 매우 낮은 지역이었으며 큰 병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나마 있는 의료시설마저 그 곳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해 괄에 있는 사람들마저 떠날 정도였다. 우리는 이렇게 의료 수준이 낮은 곳에 가서 전기치료, 마사지, 테이핑, 뜸 등을 통해 고가의 수준 높은 치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치료를 통해 그 곳 사람들에게 물리치료란 무엇이고, 어떤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처음에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물리치료가 무엇인지도 몰라 물리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물리치료를 알아가면서 그 효과에 대한 극찬을 하셨다. “괄에는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처럼 이런 마사지를 주위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리치료가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는 치료가 아니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셨던 분들께서는 큰 효과를 보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피로를 씻어주셨다. 이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괄에는 의료수준인 높지 않아 사람들은 치료를 많이 받지 않고, 치료를 받지 못해 많이 아프게 된 우리 몸에 치료를 적용했을 때, 그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봉사를 하면서 내가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다음에 꼭 다시 와주세요’라는 말이었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만족이나 봉사대에 대한 만족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다. 해변이 아름다운 괄, 잘 사는 도시 괄에서 우리는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아왔다. 치료가 끝나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그 분들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함께

봉사했던 교수님들, 봉사대장, 그리고 봉사대원들 모두 힘든 여정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기에 이번 봉사대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치료봉사가 계속되어 물리치료도 발전하고, 또한 '봉사를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성윤제

물리치료학과 1학년
전기치료, 수화담당

단원 소감문

평소에도 봉사대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기 중에 여름 방학에 팔로로 가는 봉사대 가보지 않겠냐고 학과 선배로부터 권유를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대에 참여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물리치료학과 팔 봉사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약 한 달여간 봉사대를 학과 선배와 준비하게 되었다. 물리치료학과에 신입생으로 들어와 아직까지 물리치료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대해 부족했던 나는 봉사대 준비하면서 저학년으로 흔치않게 직접적으로 4년간의 학부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될 것들을 교수님과 선배들로부터 먼저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학년인지라 배우는 것들을 완전히 소화하기가 상당히 벅찼지만 봉사대에서 환자분들에게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 그렇게 가기 전날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봉사대를 떠나게 되었다.

팔에 도착해서 한국의 보다 훨씬 더 더운 날씨에 좀 고생하긴 했지만 잘 적응해서 지낼 수 있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물리치료 봉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봉사대원 모두가 열심히 치료를 준비하고 여러 기구들을 점검한 뒤 첫날밤을 지친 몸을 이끌고 잠들 수 있었다.

봉사 첫날, 긴장한 탓인지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치료하는 곳으로 많이 방문에 해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정신없이 바쁘게 물리치료가 이루어 저서 그날 하루 봉사대원 모두가 많이 힘들고 지쳐서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다. 그렇게 첫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끝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치료봉사를 계획하여 봉사를 이어나게 될 수 있었고 봉사가 끝날 때는 모두 만족할 만큼 능숙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땀땀한 치료 봉사 일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이 돼서야 정리를 끝내고 잘 수 밖에 일정 속에서 모두가 힘들었지만 치료를 받으시고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봉사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해 애썼다. 마지막 날까지 모두가 이렇게 협력하고 애쓴 결과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서 많이 힘들고 고됐지만 그만큼 얻는 보람이 더 크고 만족스러웠다.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나 자신도 힘들지만 물리치료학과 신입생으로 아직까지 물리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에게 이번 기회

에 물리치료학에 대한 이해를 몸소 경험으로 체험 할 수 있었고 또한 직접 환자들을 대하면서 물리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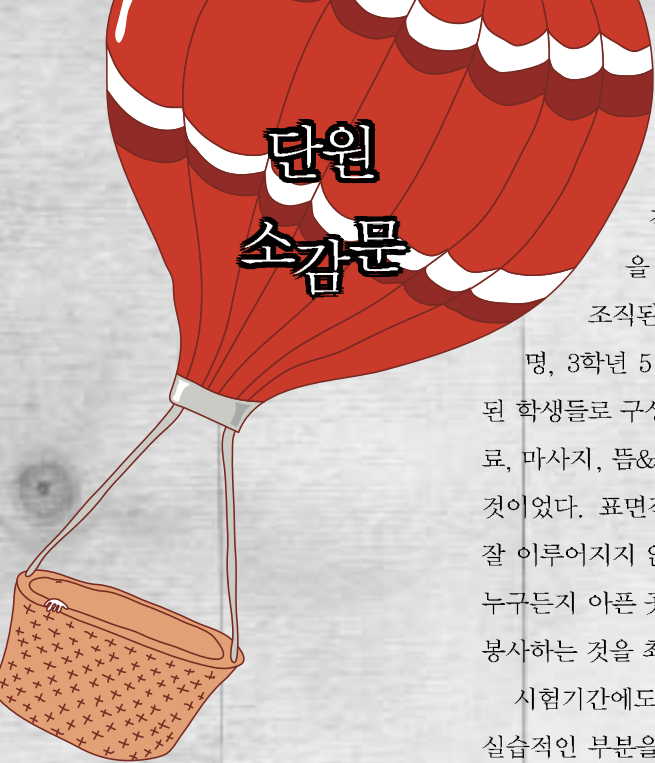
이번 봉사대는 특별히 나의 전공을 살려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봉사가 아니었나 싶다. 나의 전공이 단지 책을 통해서만 배우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봉사의 학문이라는 것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장래에 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싶은 나에게 조금씩 그 길에 다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미래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이번 봉사를 통해 힘든 일정 속에서도 인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봉사대원들 간에 힘든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는 배려하는 나의 모습 또한 발견 할 수 있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정말 좋은 곳에서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열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기를 빈다.





단원 소감문

김종근

물리치료학과 2학년
마사지, 영상담당

물리치료학과 꿈 봉사대는 조직된 이래 6월 초부터 시작해 출국 전 7월 3일까지 각종 물리치료 봉사를 위해 모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 과정과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조직된 인원은 담당 교수님 두 분과 조교 선생님 두 분, 4학년 1명, 3학년 5명, 2학년 4명, 1학년 2명으로 모두 물리치료학과에 소속된 학생들로 구성 되어 있었고, 봉사대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로는 전기 치료, 마사지, 뜸&부항의 치료 방법을 배워서 환자에게 능숙하게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관광으로 유명한 꿈이지만, 의료 혜택과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생하시는 교포 분들이 많았기에, 봉사대 단원들 중 누구든지 아픈 곳이 있는 환자에게 물리치료로써 의료적인 방법으로 치료, 봉사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마사지와 뜸, 공기부목 치료, 전기 치료와 같은 실습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봉사대 모임도 자주 만들어서 시작 전에 서로를 알아가고 실전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상당 부분은 해부학, 운동 치료학, 일상생활동작과 같은 학과 전공과목에 겹치는 부분이나 응용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 부분에 익숙해지면서 시험공부를 준비하면서도 타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더 알아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꿈 현지에 도착해서 숙소를 마련하고, 플랜 카드를 붙이고, 한인 신문에 실리는 홍보까지 하는 등 첫 시작이 아주 좋았다. 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치료, 공기부목 및 마사지, 뜸, 부항, 근육 테이핑 순으로 순서를 맞춰 각자의 파트로 나눠져서 정성으로 치료하다 보니 그 마음이 전해져서 고마운 마음을 간식거리나 식사 대접으로 보답해주려는 환자 분들이 많았다. 더욱이 환자들에게는 아팠던 곳

이 마사지를 받고 전기치료를 받으니 시원해졌다는 분들의 피드백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 밖에 더 아픈 곳을 치료해달라는 환자분

과 환자 주변의 다른 아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으러 오는 등 입소문을 타고 퍼져 하루에 약 60명에 육박하는 환자를 치료하기에 나섰다. 물리치료가 주무르고 전기로 자극을 줘서 오랜 시간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꽤 많은 인원을 치료한 셈이다.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의 반응은 전기 치료, 공기 부목, 마사지, 뜸, 부항, 테이핑 등 모든 부분에서 훌륭하다

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 것에 그치지 않고 매 번 봉사활동이 끝난 저녁 시간에 봉사대 단원들끼리 그 날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를 대할 때 모자랐던 부분과 여러 치료 과정의 동선 속에서 환자분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환자 분이 더 편하게 더 수월하게 치료를 받다 가실 수 있을지를 나누고 다음 봉사활동에 적용했다. 항상 겸손을 놓지 않고 남을 위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자신이 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다 쏟을 수 있게 집중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봉사대는 봉사대 단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가장 우선시하였다. 학과 내 활동에서 체육대회와 축제를 제외하면 학년별로 모이는 기회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서 손닿는 곳에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으니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나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가 채워주면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따끔하게 일침을 놓기도 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용기 불어넣어주면서, 힘든 시간 속에서 마치 얇은 나무 조각들이 한 곳에 모여 압력을 받아 단단한 합판이 되듯 하나의 공동체로 결착하는 모습이 아주 훌륭했던 봉사대였다.



목적 및 취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의 정글 및 오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지인을 위해, 인도네시아 의사 등 의료진과 함께 무료진료 제공, 어린이 프로그램 및 문화교류 행사 및 교육봉사를 통하여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을에 활력을 주고, 건강 증진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파견기간	7월 4일 ~ 15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2명 - 학생 : 11명 - 기타 외부 참가자 : 간호사 1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인도네시아의 Ilaga community service center
활동내용	- 무료 진료, 건강 상담 및 보건 교육 : 3곳의 원주민 부족(Inamco, Pomaco, Keukwa)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음. - 어린이 프로그램 : 3곳의 원주민 부족(Inamco, Pomaco, Keukwa)의 어린이들에게 축구교실, 종이접기, 매직 풍선만들기, 영어교실, 한글교실 등을 실시하였음. - 문화교류 및 가족사진 촬영 : 3곳의 원주민 부족(Inamco, Pomaco, Keukwa)과 함께 가족사진 촬영을 한 후 가족사진을 코팅하여 제공하였음.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7월 5일 ~ 7일	Pomaco	무료진료- 약 200여명 어린이프로그램-100여명	무료 진료, 건강 상담 및 보건 교육, 어린이 프로그램, 문화교류 및 가족사진 촬영	
7월 8일 ~ 9일	Inamco	무료진료- 약 200여명 어린이프로그램-100여명	무료 진료, 건강 상담 및 보건 교육, 어린이 프로그램, 문화교류 및 가족사진 촬영	
7월 10일 ~ 12일	Keukwa	무료진료- 약 200여명 어린이프로그램-100여명	무료 진료, 건강 상담 및 보건 교육, 어린이 프로그램, 문화교류 및 가족사진 촬영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이병희	물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진료	
지도교수	이석민	치과의사		지도교수, 투약	
대장	정고운	물리치료학과	3	무료진료	
2	김보람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3	어린이프로그램	
3	한국화	물리치료학과	2	어린이프로그램	
4	김규한	물리치료학과	2	무료진료	
5	이다은	영어영문학과	2	무료진료	
6	김태림	물리치료학과	1	무료진료	
7	이애연	물리치료학과	1	무료진료	
8	장민오	컴퓨터학부	1	어린이프로그램	
9	백기훈	동물생명공학	1	어린이프로그램	
10	김나라	물리치료학과	2	무료진료	
11	이수현	물리치료학과	1	어린이프로그램	
12	허미해	간호사		무료진료	



활동사진 자료집

- ① 국내 교육-팀장/지도교수 오리엔테이션
- ② 국내 교육 - 사전교육(특강)
- ③ 국내교육-사전교육(포크댄스)
- ④ 국내 교육 - 발대식
- ⑤ 현지 활동 - 무료진료
- ⑥ 마을 전경(수상가옥)
- ⑦ 현지 활동 - 드레싱
- ⑧ 현지 활동 - 종이염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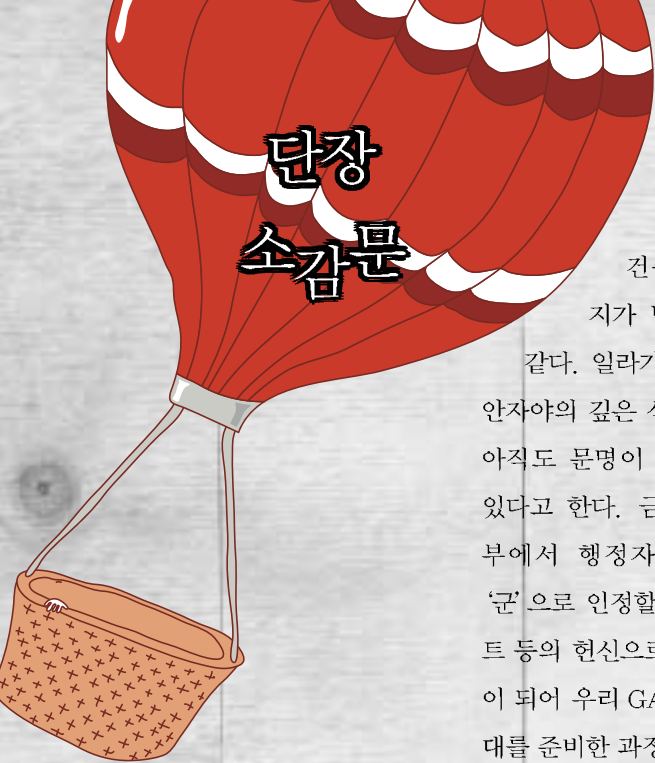




6

7

8



단장 소감문

봉사 예정이었던 일라가 마을

일라가의 정글학교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지가 벌써 3년 정도 된 것
같다. 일라가는 인도네시아 이리
안자야의 깊은 산속에 있는 부족으로
아직도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금년에 인도네시아 정
부에서 행정자치구인 우리나라의
'군'으로 인정할 정도이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율리우스와 알피안, 고버
트 등의 헌신으로 몇 년 전부터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과 연결
이 되어 우리 GATE팀이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한다. 다음의 내용은 봉사
대를 준비한 과정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이병희

물리치료학과 교수

지구상 최후의 오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 2011년 3월 1일. 유토 투어의 김OO부장에게 인천-자카르타 항공권
30명을 예약하였다.

- 2011년 3월 8일. SGS400 "세상을 변화시킬 400명의 봉사자(진리와
사랑의 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GATE는 해외봉사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
였다.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의 일라가의 작은 마을... 초 중 고등학교 건
축 및 보건소 건축... 그리고 집집방문과 과일나무 심기... 그리고 참가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다.

- 2011년 3월 15일. 유토 투어로부터 7월 2일-15일 항공스케줄이 왔지
만, 토요일 오후 출발이라 일정을 7월 3일 일요일 출발하여 15일 입국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2011년 3월 19일. SGS400 해외봉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을 주민
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대학생들과 함께 학교 건축, 집집방문 및 망고 등의
과일 나무를 심어줌으로써 5-10년 후 수확한 과일을 통하여 마을주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Province buncak Jaya의 일라가 마을 주민에게 보건소 건축과 함께 7월
5일(화)-7월13일(수)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의사 및 대학생들과 함께 무료
진료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무엇보다

다도 대학생들이 현지 마을의 아이들과 보낼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에 설렌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

- 2011년 3월 28일, 유토 투어로부터 7월 3일- 15일 항공스케줄로 30좌석 확보를 위하여 대한항공과 협상중이라고 하였다.

- 2011년 4월 7일, 유토 투어는 7월 4일(월) - 15일(금)로 대한항공과 항공권예약을 하였다. 3일은 일요일이라 단체 30석을 빼줄 수가 없다고 하여 출발을 하루 미루었다.

- 2011년 4월 11일, 종합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봉사대원 모집을 실시하였다. 방금 확인해 보니 2명이 지원했다. 오지로 들어가겠다는 학생들이 있다.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한 팀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봉사대로 가거나 일이 생겨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우리 팀은 지도교수 2명, 학부학생 9명, 대학원생 2명, 그리고 간호사 1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우리가 가야할 곳은 어떤 곳일까? 구글을 통하여 지도 검색을 해보았다. 해발 2200M의 고산지대... 과연 우리가 가는 곳은 정글인가? 오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글은 아닌 듯... 이미 개발이 된 곳과 개발 될 곳이 공존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작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통가옥인 호나이에서 생활하면서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는단다. 예전과는 달리 옷은 입고 있지만 삶의 수준은 아직도 원시적인 것을 완전히 벗지 못한 상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런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봉사대 출발 1주일 전... 인도네시아에서 급한 메일이 왔다. 우리가 봉사할 장소인 일라가의 두 부족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한다. 새로 '군'으로 지정되면서 '군수 선거'를 할 예정인데, 양쪽 부족 모두 군수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 부족간 전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한다. 급하게 봉사 장소를 다시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다. 일라가 대신 3곳의 부족을 소개시켜 주었다. 티미카에는 7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 3부족에게 무료진료를 부탁받았다. 결국 정글 학교와 보건소 건축에서 무료진료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준비하였다.



정글 숲을 지나서가자... Keukwa 가는 길...

12일간의 봉사대를 되돌아보니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 수상가옥에 사는 Pomaco 사람들, 일라가와 두구두구 등의 산 속에서 내려와 정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Inamco, 그리고 조상들의 모습 그대로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낚시와 악어잡이를 주업으로 삼는 Keukwa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간다. 도

시에서 불과 몇 시간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지만, 조상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전기도 없고,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서 식수로 활용한다. 화장실은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 참... 모두 생김새와는 다르게 착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이중에서도 Keukw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Keukwa로 가는 보트를 타기 위해 부두로 갔다. 정글이 우거진 숲 사이로 난 강을 3-4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왔다. 그곳이 바로 Keukwa였다.

숙소 앞에서... 주인아저씨와 함께

이곳은 2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한 곳은 87가구, 다른 한 마을은 120여 가구가 모여살고 있었다. 이 중 한 마을에 BASE CAMP를 차렸다. 나름 큰 집 2개를 빌려서... 남자 숙소, 여자 숙소를 정하고 짐을 풀었다. 낯선 이들에게 그들의 안식처를 내어준 후덕한 인심에 감사한다. 집과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식수인 빗물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낯선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이곳에서 만난 여인들은 대조적이다. 이른 아침 여인네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와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며... 그리고 오후에 만난 다른 여인은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며, 아이들을 위하여 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다. 담배를 피우는 아줌마와 교사를 보내달라는 아줌마... 아이들이 미래이고 희망이다. 교육만이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이 아주머니의 간절한 부탁으로... 인도네시아 대학생 중에 이곳 Keukwa로 올 수 있는지 학생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학생이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 대원들이 용돈을 모아서 보내주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한끼 식사가 이곳에 교사를 보낼 수 있다는 말에 모든 대원들이 힘을 보탠다.



비움... 화장실...

이곳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만약 옷만 입지 않았다면 문명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였을 것이다.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세상과의 단절이었다. 2G인 내 핸드폰이나 아이 폰 4, 갤럭시 S2나 똑같았다. 문명의 이기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전화도... 전기도... 없는 섬과 안식만이 있는 세상이었다. 우린 이곳에 왜 왔나?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준비하여 나누어주기 위해.... 아니 어쩌면 비우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많이 소유하여... 이곳 사람들에게 미안하여...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나눌 것은 옷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꿈과 희망이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교사를 보내달라는 아줌마의 말처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우린 조금은 느리더라도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곳 사람들처럼...



진실한 사랑과 인간적인 소통이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우린 비움보다 채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곳에서 자신을 비우는 법을...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한다. 비운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갈등이 될 것이다. 그때 마다 이곳 화장실 가는 길... 비우러 가는 길을... 추억하며 비우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를 초청해준 Ilaga community service center의 율리우스(Yulius Patadungan), 알피안(Alfian Sadondang), 고버트(Govert Waramori)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고버트의 집에서 홈스테이 할 때 그 불편함을 감수해주신 사모님과 어머니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부족한 GATE팀을 통하여 '이곳까지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무료진료, 가족 사진촬영,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 하는 동안 새로운 꿈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격려해준 고버트..., '일라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것이 매우 멀었을 텐데, 함께 있으므로 좋은 경험을 하게된 것 같습니다. 내년엔 다시 일라가로 와 주세요. 금년에 못 지은 학교도 짓고... 무료진료도 할 수 있도록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만나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격려해준 의사선생님 피나(VINA)... 그 외 많은 현지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GATE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희망... 사랑... 나눔...

늘 함께 해주어 고마우신 이석민 교수님... 특히 이번 봉사기간 내내 약국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팀의 대장 정고운...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팀을 잘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장이라는 생각을 했지... 위생병원 그만두고 봉사대 가겠다고 허미해간호사... 병원 의사선생님이 사직서대신 휴가를 보내주었다고 감사한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현실에 대한 감사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이다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니 저 또한 행복했다는 1학년 김태림, 이애연, 장민오, 백기훈..., 2번째 봉사대라 늠름해 보인 2학년 한국화, 김규한, 김보람... 대학원 조교 김나라, 이수현 선생님... 낯선 객지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구만...



모두 있어야 할 곳...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Inamco, Pomaco, Keukwa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난 이들과 함께 했기에 행복했고, 지금도 이들을 생각하면 행복하다. 이게 바로 봉사 후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다.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모두 하나님 의 은혜이다.



정고운

물리치료학과 3학년
무료진료 담당

살아있는가 사랑하는가

내가 스무살 때에는 세상이 온통 ‘나’로 가득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누구보다 잘되기 위해 고군분투하여서, ‘나’는 괴로웠다. 사실 팔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무엇이 달라졌다고 자신하기에는 부끄럽지만, 다가오는 세상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나를 대하는 것으로 보아, 작게나마 내 품안이 넓어진 듯하다.

이년 전에 처음 ‘봉사대’를 권유 받았을 때 내심은 이랬다. ‘봉사는 아무나 하나’ ‘허울이 좋다고.’ 봉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활동’이라고 나오는데, 나에게 있어서 ‘나’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말이지. 난감했다. 어떻게 잘 거절을 해야 하나. 봉사대를 떠나기 하루 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 수 없다 했었다. 이거 진짜 내가 가도 되는 것인가? 남들은 고작 이주일 단기 봉사대로써 얼마나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그까짓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이러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난생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는 하루도 싫었다. 이미 지칠 대로 치쳐있는 내 삶의 여정에,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당시 나라는 사람은 ‘젊은이’와 어울리지 않는 사고를 하고 있었을 테다. 대책 없는 열정은 어리석어 보였으니까, 부담스러웠다. 봉사대는 대책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의 맨 앞줄에 있었다. 번호를 매긴다면 피하고 싶은 일 1번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명으로, 나는 떠나게 되었었고, 이년이 지난 지금, 세 번째 단기봉사대를 ‘대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활동하고 돌아와 대한민국 서울에 다시 발을 내딛고, 소감문이란 것을 적고 있다. 그리고 텃붙여 말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의 예정된 여정 또한 떠날 예정이며, 누군가 나의 후배가 내가 예전에 했던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 우선 떠나라고 말이다.

원래 애초의 목적지는 ‘일랑가’라는 고산지대였다. 출발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그 쪽에서 연락이 왔다. 부족간의 전쟁 위협으로 외부인이 출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초기의 목적지를 ‘티미카’란 곳으로 수정했고 이제 우리의 계획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보통 원래도 그렇다. 봉사대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했던 계획은 사실 대부분 많이 수정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현지 상황을 그 쪽에서 보내주는 정보로 '상상해서' 준비를 꾸려나가니까, 정작 도착해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애초에 가고자 했던 장소마저 바뀐 지경이었다. 우선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나서 보니 그 다음 말이 눈에 들어왔다. 부족 간의 전쟁으로... 전쟁이 나면 한 부족이 몰살 할 때 까지 싸운다. 이 땐, 사실 차라리 잘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참, 어쨌든 앞일을 알 수 없게 된 우리의 여정이었다. 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는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자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나는 조금 더 걱정하는 일에 익숙하게 되었다. 새롭게 지내게 될 티미카란 곳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라는 정보를 뒤늦게 접하고서 말라리아 약을 구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도 대원들끼리 모여서 구호물품을 정리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즐거웠다. 지금에 와서 제일 처음 서로간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때를 뒤돌아보면 과장을 보태 한 십년 전의 일처럼 생소하고 아련하다. 이제 우리 대원들은 서로간의 얼굴만 보아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사이라고 자신한다. 완벽한 타인들이 서로에게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젊은 시절에 봉사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서로 고생을 자처하면서, 2주를 동고동락 한 후에 없어진 우정을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그 친구들은 십년지기 우정과는 또 다른 종류로써, 내 인생의 반가운 선물이 되어 주었다.

봉사대를 떠나면서 가장 '설레는' 순간을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떠나는' 그 순간일 것이다. 인천공항을 지나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떠나는 순간이다. 현실의 갑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간

다. 그리고 도착지로 향할수록 조금씩 긴장감은 더해져서 현지 공항에 내렸을 때 정점을 찍는다. 현지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도착해 주변을 파악하고 내가 서울이 아닌 지구 어느 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했구나 하는 현실감이 들면 서서히 그 긴장감은 잘해 보아야겠다는 열정으로 바뀌어 내재된다.

첫 봉사지인 포마코를 방문했을 때, 첫 방문 시는 도착 한 날 저녁이었는데, 여덟시가 조금 못되는 시간으로 기억하지만 너무나 칠홉 같은 어둠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아슬하게 강위로 나있는 다리를 조심스럽게 지나서 불이 밝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내부는 누가 봐도 곧 쓰러질 것 같은 수상가옥이었다. 어둠과 불빛이 이상하게 조화되고 있는 그 안에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죽히 스무 명이 되는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있거나 누워서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그들을 그들은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신기해하며 보고 있었다. 이름만 물어보고 손만 내밀었을 뿐인데도 자지러질듯이 웃어대며 즐거워하고 또 한편은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감사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일이 어디 있을까. 내가 있는 세계에서는 무엇이 그렇게도 괴로웠을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하얀 종이위에 글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더 잘나서 그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면

서 사는 것일까. 라는 생각.

이곳에서는 비가 오면 일제히 빨래 줄에 빨래 감들이 걸린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 빨래를 위해 따로 물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강가 위에 집을 얹어 놓고 있으면서도 마실 물과 씻을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강에서 용변을 보고 그 물에서 자라는 고기를 잡아먹고, 그 강가 갯벌에서 자라는 게들을 잡으며 아이들이 뛰어논다. 모든 쓰레기도 강에다 내다 버리면 물이 차올라서 빠질 때 쓰레기가 어렵히 같이 빠지려니 한다. 그래도 아이들은 즐겁다. 우리도 즐거웠다. 아프지 않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온다.

이곳에서 삼일 간의 활동을 마치고 짐을 간단히 꾸려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야말로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던 작은 고깃배를 타고 세 시간 반 정도를, 역시 그야말로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런 강가 우뚝을 거슬러 올라갔었다. 마을 이름은 꺾꾸아. 그곳을 찾았다. 도착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배가 닿는 곳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짐을 내리는 것을 돕는다. 배를 타고 올라가면 서는 나는 멀리에 그저 내리 잠만 자고 몸이 참 힘들었는데, 내려서 주위를 보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살면서 내가 이런 곳에 발을 딛고 돌아 갈 수 있다는 축복에 감사했다.

이곳은 포마코와 달리 모래가 건조하고 바다가 바로 옆인지라 바람이 자주 불어서 덜 습하다. 물론 낮에는 정말로 덥다. '무덥다' 라는 표현이 더 맞을 런지. 그래서 아무튼,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그저 해가 지기만 기다린다. 우리가 진행했던 무료진료 클리닉도 낮에는 해가 너무 강해서 열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그림자가 기웁할 즈음 돛자리를 펴고 현수막을 내걸고 환자를 맞았다.

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정말로 푸른 하늘 밑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눈빛이 반짝 반짝 하는 아이들이 색 색깔의 종이를 색종이를 접어서 모두가 같이 날리는데, 그래서 하늘 가득하게 색 색깔의 종이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나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오, 나의 신이시여가 저절로 나오는 내 인생의 몇 안 되는 일시정지 장면으로 남아있다.

내 평생에 그렇게 신나게 바다에서 놀아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

하면 무슨 과장인가 싶는데. 진짜로 이렇게 미간

을 찌푸리고 곰곰이 '내가 이렇게 신나게 놀았던 적이 있었나? 머릿속을 헤집으면서 옛 기억

을 찾아내려고 해보아도, 이보다 신났던 적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아마 그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바다가 어떤 휴양지처럼 그렇게 예쁜 곳도 아니었고, 속히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깨끗한 것도 아니었다. 정말로 그냥 바다였고, 주민들 에게는 새총을 들고 다니면서 바다 새를 잡으러 다니는 곳이었다. 하지만 워낙에 무더운 시간을 일하다가 맞은 휴식시간에, 시원하게 쉴 만한 곳은 바다 뿐 이었고, 우리 대원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해변을 찾았다. 그곳은 우리에게 그 어떤 곳보다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다. 다만, 이곳 역시 물이 없었던 곳이라 그렇게

바닷물로 해수욕을 한 후에 세 명에 할당 된 물 두 바스켓만으로 몸을 그저 행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샤워의 전부였다는 사실. 그래도 그 '샤워' 후의 기분만큼은 어떻게 상큼하고 시원한지. 최고급 비누거품으로 두 시간을 목욕했어도 그 후의 찾아오는 짜릿함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에 더위를 먹었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팠던 건지, 딱 만으로 하루가 지나자 이 빈약한 정신력을 지닌 육체는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남들은 다들 그렇게 덥지 않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넘어 갈듯하게 더운 건지, 열도 나면서 두통이 심해져 왔다. 대장이 되어서 체면이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고 부끄러웠다. 조용한 곳에서 누워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같이 이해해 주어서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다. 두통약을 먹고 좀 통증이 잦아들어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제 이 아름다운 곳에 언제 다시 와보나 하는 마음에,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그 날은 우리가 그곳에서 지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나는 더, 더 누워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일어나 앉으면 머리가 팽팽 돌고, 이미 해가 까무룩 저서 밤이 찾아 왔는데도, 몸은 너무나 더웠다. 집밖으로 나와 부채를 들고 돛자리를 깔아놓고는 밖으로 나와 앉았다. 조금 나은 듯 했다. 고개를 젓혔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야자수 나무 너머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나는 살아있고 내가 있는 이곳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맵소사, 당신 지금 살아있어 이런 곳에서. 더 무엇이 필요해? 컵가에서 쟁쟁하게 들리는 누군가의 말이다. 이미 충분히 감동을 받고 있는데, 어디서 음악소리가 들린다. 내일 떠나가는 마을 전체에서 우리를 위해 소위 잔치를 준비한 것이다. 넓은 마당의 한 가운데에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전통 악기를 들고 음악을 만든다. 그러면 동글 동글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음악이 시작되는 소리에 맞추어 일어나 몸을 흔든다. 다리를 들고 스텝을 밟아가면서 뒷사람을 따른다.

처음에는 마을에 주축이 되는 마을 청년들, 긴장한 아저씨들이 일어나 전체 춤을 리드하고 그 후로 그보다 조금 젊은 남자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이 따른다. 뭐, 타고난 어떤 재능을 언급하면서 굳이 피부색을 들먹거리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의 리듬감은 우리와는 달리 타고 나시는 것 같다. 음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변주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모두 다 같이 몸을 더 숙이면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 낸다. 우리가 따라하려고 해보았지만 웃음거리만 될 뿐이었다. 동작이 복잡하지도 않지만 신나면서 경쾌했고 어떤 패턴을 만들어 냈을 때는 멋있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물론 평생을 거쳐서 같은 춤을 쳐왔으니 잘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말할 수도 없지만, 하지만 그 작은 어린아이들이 짹짹 뺨은 흑인 청년 과 함께 똑같은 동작으로 춤을 만들어 내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타고났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도 춤을 추었고 그 분들도, 우리 대원들도 함께 했다. 우리 남자 대원들은 어디서 그런 센스가 발동이 되었는지 자신들만의 엉덩이 흔드는 동작으로 좌중을 휘어잡고, 춤을 추던 사람들,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나에게 다시 물었다, 너 지금 살아 있느냐. 그리고 사랑하고 있느냐. 축복받은 이 삶속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만든 감옥에 못혀서 너는 괴로워만 하고 있을 것이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가는 여정에 거쳤던 비행기에서 보다 훨씬 곤하게 잠을 잤고 마치 느낌은 어느새 인천이었다. 인천이고 서울이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어느새 꿈같은 2주가 지나고, 내 미래를 가꾸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무슨 일을 하던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양분 삼아야 할 기억은 따로 있다. 이런 종류의 경험들이 그렇다.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생각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삼육대학교와 대학봉사협의회에 감사한다. 사실, 감사하지 않은 일이 더 어디에 있을까? 삶이 축복이다. 그런데 당신, 지금 살아 있는 게 맞는가? 그렇다면 왜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컷가가 쟁쟁하다. 나의 인도네시아가 내 컷가에 선물을 남겨두고 갔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간직하려 한다. 감사하다.



단원 소감문

김보람

커뮤니케이션디자인 3학년
어린이 교육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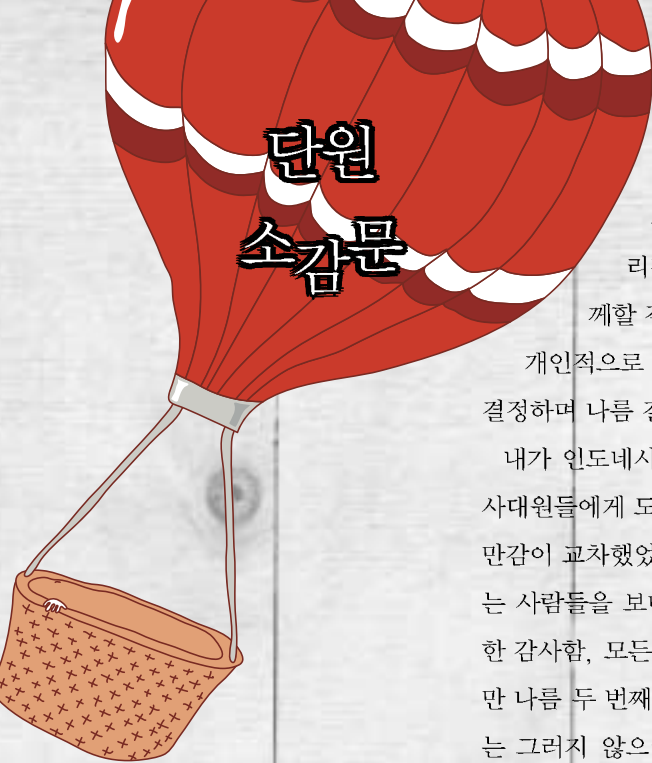
오지를 간다는 기쁨이 아주 컸었다. 언제 다시 그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모를 곳으로 가서 사람들과 교감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차있었다.

지난 삼년간 학교를 다니며, 내 삶에만 집중하고 내게 주어진 급한 일들만 급급하게 해내느라 정작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지금쯤에는 진중한 다른 무언가로 바꾸길 원하면서, 이번 봉사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다.

여느 대학생의 삶이 그렇듯, 아르바이트와 공부와 그밖에 다른 일들로 쫄쫄싸여서 틈이 없는 시간들에서 벗어난 그 기쁨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했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잘 참았다고 자유를 만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마음은 이미 감동되었고 벅차있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무걱정과 염려없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행복했다. 같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다.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눈으로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내가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것을 언어가 아닌 온몸으로,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한국은 내 삶이 너무 급급해 다른 이를 진정으로 돌아볼 시간이 없고,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 한번 할 수 없이 시간이 달려가버리는데- 이곳은 시간이 마치 멈춘것처럼 아주 솔직하게 감사해.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을 아무런 제한없이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지 않았다면 이런 꿈같은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었을까. 다른 어떤 일들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함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단원 소감문

이다은

영어영문학과 2학년
무료진료 담당

내 생애 두 번째이자 올해 들어 처음인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학과에서 가는 필리핀 봉사를 갈까 아니면 비록 혼자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할 겸 인도네시아 봉사를 가야하나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다.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를 결정하며 나름 길고 긴 봉사준비를 마쳤던 설렘이 기억난다.

내가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를 하며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함께 하는 봉사대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걱정도 많았다. 의료봉사를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었다. 상처가 흉터가 된 사람들, 치료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가도 정말 편안함에 안주하는 내 삶에 대한 감사함, 모든 게 편한 한국에 돌아가면 잊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름 두 번째 봉사인데다 감사함을 잊고 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드레싱 치료를 하며 현지인들에게 들었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난다. 한국에 돌아와 감상문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너무 감사한데.

2주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억들과 사람들을 알고 왔다.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달라 의사소통 하는 면에 있어서는 힘들었지만 마음 대 마음으로 대하다보니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다. 내심 한국의 더운 날씨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덥다고 투정 부리던 것이 생각난다. 나와 국적은 다르지만 같이 보낼 시간만큼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 적으로 무언가 통하길 바랐다.

예쁘게 생긴 얼굴들 때 묻지 않은 시선과 거짓 없이 보이는 눈이 인상 깊었는데 피부색과 나라만 다를 뿐 영락없는 내 친척 동생 같았다. 배우고 깨달은 것을 잊지 않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해외봉사가 너에게 큰 밑거름이 되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2주간의 대장정이 과거이자 추억이 되어버린 지금, 그러한 추억조차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벌써 그리워진다. 비록 날씨는 더웠지만 사람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숙박 시설 또한 만족스러워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실감 났었다. 14일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 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좋은 밑바탕의 경험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환경그린디자인

목적 및 취지

1.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본교 교육이념 곧 더불어 사는 삶 경험하기
2. 글로벌리더로서의 세계관과 국가관을 갖게됨
3. 환경디자인학과 학생들에 전공을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적 전문인으로 봉사를 준비함
4. 봉사지역의 대학생들과의 모임을 통하여 민간외교차원에서 양국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게됨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대만의란
파견기간	2011.7.10 ~ 7.20
파견인원	- 지도교수 : 2명 - 대장 : 1명 - 대원 : 14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대만 의란지역사회 봉사회, 룬빼이 지역사회 봉사회
활동내용	어린이 캠프(자연탐사학교), 한글학교및 문화교류활동등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7월 10일 ~ 12일	대만론뻬	60	어린이 캠프(자연탐사학교), 한글학교 및 문화교류활동등	
7월 13일 ~ 17일	대만의란	70	어린이 캠프(자연탐사학교), 한글학교 및 문화교류활동등	
7월17일~ 20일	대만의란일대	25	문화교류활동 및 문화체험활동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정해섭				
지도교수	류병열	환경그린디자인			
대장	김태관	환경그린디자인	3	대장, 총무	
2	박민조	신학과	2	신덕, 생활	
3	박정희	환경그린디자인	1	신덕, 생활	
4	배혜영	환경그린디자인	2	어린이캠프	
5	김해니	환경그린디자인	2	어린이캠프	
6	신상은	환경그린디자인	2	한글, 문화	
7	박지원	환경그린디자인	1	어린이캠프	
8	조은비	환경그린디자인	1	신덕, 생활	
9	류지혜	환경그린디자인	1	어린이캠프	
10	서수경	환경그린디자인	2	어린이캠프	
11	김민지	환경그린디자인	1	한글, 문화	
12	양지혜	환경그린디자인	1	한글, 문화	
13	김주현	환경그린디자인	2	한글, 문화	
14	이유리	환경그린디자인	1	신덕, 생활	



활동사진 자료집







단장 소감문

정해섭

환경그린디자인팀 지도교수

봉사대는 한 학기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한 학기 동안 교실에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위한 정신적, 영적, 신앙적, 활동들을 지도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오는데 한 학기의 수고도 그들을 그들의 추측으로부터 자유로와 지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봉사대 활동은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참여도가 매우 높다. 봉사대 기간 자체만 보자면 열흘남짓 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합숙이 있고 예비 모임들이 있으며, 봉사대를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 모임을 가질수 있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훨씬 더 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성과 함께 집중성이다. 특히 해외 봉사를 하는 기간에는 학생들은 모든 일들은 잊고 현지의 봉사 활동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게 있어서 봉사대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이번 환디과 대만봉사대는 특별히 학과의 적극적인 지원이 눈에 띄었다. 교수님이 두 분밖에 계시지 않지만 국외, 국내 봉사대를 위하여 시간을 들여 참여 하시고 학생들을 준비단계에서부터 지도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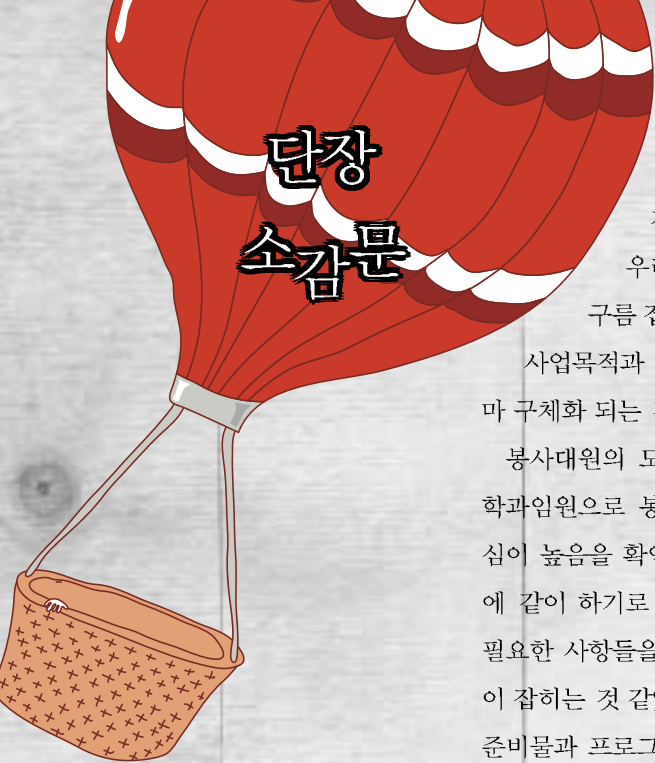
가장 효과적인 사역

아쉬운 점은 리더의 부재였다. 같은 지역을 작년 여름에도 다녀왔는데 이번에 다른 점은 인성교육이나 신앙교육을 리더할 리더들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교수나 지도목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봉사대라는 시스템을 100%로 활용하는데는 준비된 리더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많았다. 첫째, 잘 알지도 못했던 학생들이 한 학과 라는 이름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 둘째, 학생자치를 실현했다는 점인데 전체적인 아웃라인만을 주고 가이드만 하면서 분과별로 봉사대 전반을 책임지게 했는데, 취업사관학교가 되어서 학생자치가 약한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별로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친구들이라 조금 어려워도 했지만 그만큼 성취에 대한 만족도 매우 높았다. “우리가 해냈다”. 하는 자신감을 갖는 모습이 역력했다. 셋째,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봉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다시한번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넷째, 학과 내 봉사와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섯째, 건전한 국가관과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다.
다시한번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학교, 수고하신 사회봉사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단장 소감문

류병열

환경그린디자인학과 교수

환경그린디자인 대만봉사

학과에서 처음으로 해외 봉사를 계획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이 막막하기만 하였다.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무슨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지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으로 목사님과 시작하였다. 지역이 정해지고, 사업목적과 봉사내용을 정리하면서 봉사에 대한 막연함에서 조금이나마 구체화 되는 것 같았다.

봉사대원의 모집은 우선 학과임원에서 지원받기로 하고 공고하였는데 학과임원으로 봉사대원인원이 마감되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희망하였으나 다음에 같이 하기로 하였다. 팀원이 정해지고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면서 해외봉사에 대한 막연함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았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전체모임이 어려워져 조별로 준비물과 프로그램을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모여 최종 정리하기로 하였다.

출발 일주일전 일박이일 일정으로 준비물과 프로그램 정리 등 최종 점검을 하고 중국어로 성가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면서 대원들의 봉사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0일 9시에 인천공항에 모여 탑승수속을 마치고 탑승하는 시간동안 대원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하는 해외봉사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는 것 같았다. 숙소를 정하고 내일 있을 원주민 마을의 봉사활동에 대한 일정과 준비를 마치고 휴식하였다.

월요일 원주민 마을이 있는 룽페이로 아침 일찍 이동하여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오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을 많이 했으나 아이들을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음으로 통하는지 아이들과 바로 친밀하게 웃으면서 일정을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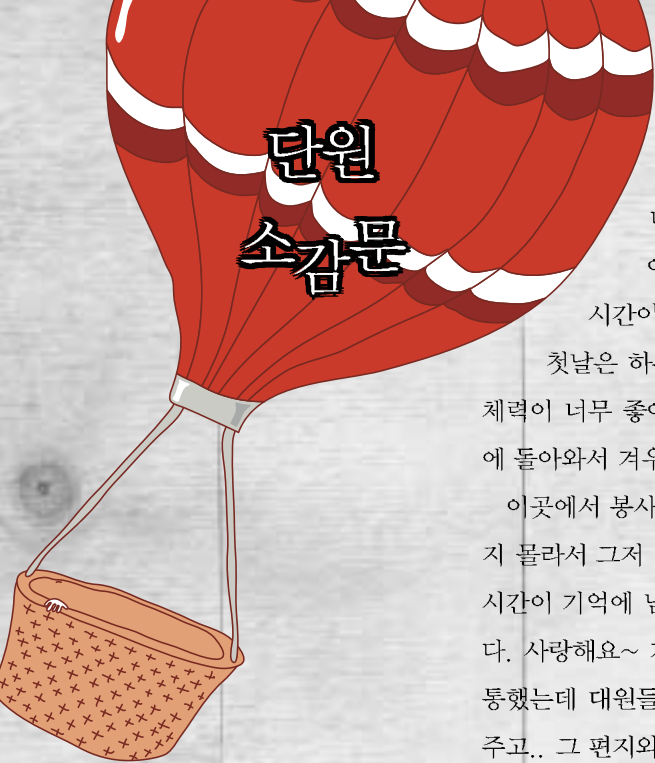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치면서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섭섭했지만 섭섭함을 뒤로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의란으로 이동하였다. 의란에서의 일정의 시작은 대원들을 의란시내로 홍보활동을 나가는 것이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홍보를 나가라고 하니 의아해 하는 모습으로 거리 홍보를 나가 의란 시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시내를 돌아보면서 대만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화적

차이 등을 느끼게끔 하는 시간이었다.

의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의란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대원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순서에서 그동안 봉사기간동안의 느낀점을 이야기 할 때 모든 대원의 공통된 이야기는 봉사를 하러온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는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을 볼 수 있었다.

봉사프로그램을 마치고 대만 문화체험일정동안 대만의 환경과 역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대만 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의란에 계신 이우진 선생님이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하는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약속을 하였으나 이번 봉사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하고, 봉사기간동안 대원들의 뒷바라지와 음식을 손수 챙겨주신 정해섭 교수님이 없으면 내년에 봉사를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번 대만봉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 같다.



단원 소감문

배혜영

환경그린디자인학과 2학년
어린이 캠프담당

10박 11일이라는 긴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밤 12시에 잠을 들어 거의 하루를 17시간이나 활동했다.

첫날은 하루가 얼마나 길던지 특히나 롬빼이교회에 어린이 친구들이 체력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놀아주어도 지치지도 않았다. 그러다 숙소에 돌아와서 겨우겨우 씻고 잠들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은 이틀 뿐이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몰라서 그저 내 체력이 다 빠질 때 까지 놀아준 것 같다.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기억에 남을까 걱정했는데 헤어지는 날 아이들이 펑펑 우는 것이었다. 사랑해요~ 가지마요~ 하면서 .. 정말 특별히 해준 것도 없고 말도 안 통했는데 대원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알아가서 손수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주고.. 그 편지와 선물을 받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리 고마웠는지 진짜 헤어짐의 순간이 몸소 느껴졌고 나도 이들과 정말로 정이 들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찡하고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다. 비록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이틀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롬빼이 마을 사람들과 헤어지고 의란으로 돌아왔다. 아쉬움이 채가지지도 않은 채 벌써 의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활동이 시작하는 첫날 의란에서 롬빼이 마을과 너무나도 다르게 학생들과 아이들이 겨우 5명 정도 밖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의란 시내에 사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수준도 높았고 중,고등학생이라 더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우리가 준비한 활동을 즐겁게 해줄지 걱정되었고 뭔가 그냥 어려웠다.

그러다 오후시간이 되고 선생님이 미션을 주셨다. 의란대학과 백화점으로 가서 홍보를 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전화번호도 받고 그 사람과 사진도 찍어오라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지만 우리는 모두 간절히 기도드리고 짜요!!! 하면서 길을 나섰다.

즐겁게 사진도 찍고 생각보다 대만사람들이 우리를 살갑게 대해줘서 일이 쉽게 풀렸다.

이제 의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번호를 써놓은 종이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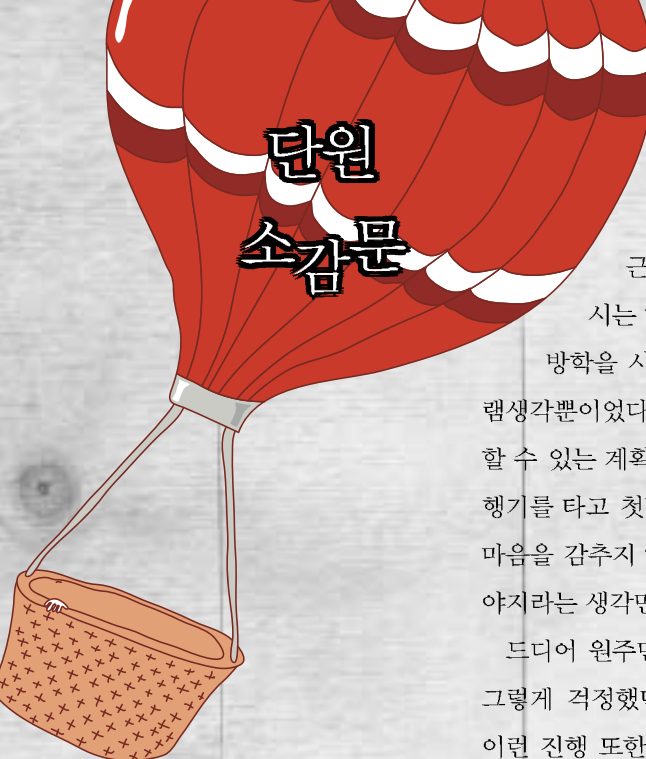
라진 것이 있다. 우리는 너무 당황하기도하고 이 더운 여름날 또 다시 갔던 길을 돌아가서 찾아와야 한다는 좌절에 짜증이 팍팍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용서라는 말씀묵상을 한 것이 떠올랐다.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종이를 잃어버린 친구에게 짜증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이 종이를 꼭 찾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한참을 걸어서 의란대학까지 왔다. 저 멀리서 우리가 찾던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있었다. 그 종이를 찾으니 정말 정말 기뻐다. 하나님이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에 진짜 환호를 질렀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실감했다. 우리는 이제 즐겁게 웃으면서 돌아왔고 또 중간에 사진이 또 하나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감사했고 추억으로 남을 하루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녁 대만 친구들과 야시장에 가게 되었다.

대만친구 역선의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야시장으로 썩썩 달렸다. 오토바이를 타고 본 이란 시내는 뭔가 정감가고 시원하고 높은 건물이 없어서 탁 트인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그냥 웃겼다. ㅋㅋ, 오토바이 타고 다닌 시간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다. 야시장에 도착하고 우리 3팀 친구들과 대만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대만의 물건도 구경하고 길거리 음식도 먹었다. 대만사람들은 대체로 2가지 맛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다. 땡땡한 맛이거나 엄청난 향이 나는 향신료를 넣은 음식이거나.

그런데 신기하게 나는 대만음식을 엄청 잘 먹는 것 같았다.

뭐 특별히 못 먹는 음식 없이 차려주면 다먹어보고 대만이란 곳이 살만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 하는 내가 정말 웃기다. 한 달을 있던 것도 아니고 1년을 지낸 것도 아닌데 벌써 다 적응 되 버렸다. 이제 돌아가면 아름다운 이 곳이 자꾸 생각 날 것 같아서 벌써 슬프다. 너무 좋은 사람들, 정말 너무 좋은 환경들.. 덥고 습하지만 그래도 좋은 자꾸 생각나는 이 곳 ..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곳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대만이란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의란의 사람들과 정말 좋은 친구인 이우진 선생님과 사모님까지.



단원 소감문

서수경

환경그린디자인학과 2학년
어린이캠프 담당

봉사대를 하게 된 이유는 교수님과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인해 신청하게 되었다. 1학년 친구들과 한 조가 되어 차근차근 프로그램이 계획되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고 다시는 해외봉사를 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들게했다.

방학을 시작하고 대만을 가기 바로 전까지 머릿속에는 온통 프로그램생각뿐이었다. 같은 조 친구들과도 몇 번 만나기도 했지만 딱히 이렇다 할 수 있는 계획은 나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서 조급한 마음만 들었다. 비행기를 타고 첫날까지 다른 친구들은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는 기대와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 어떡하지, 무엇을 해야지라는 생각만 온통 들어서 웃어도 웃는게 아니었다.

드디어 원주민 마을에서의 첫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마침내 여기에서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생겼다. 여기에서의 진행을 내가 하는지도 몰랐고 이런 진행 또한 처음 해봐서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하루가 되었던 것이다. 대원들도 첫 날이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분위기가 소란스럽고 게임은 처음부터 해서인지 온몸의 힘이 빠지고 덥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곤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새 우리 대원들은 친구들과 지내면서 적응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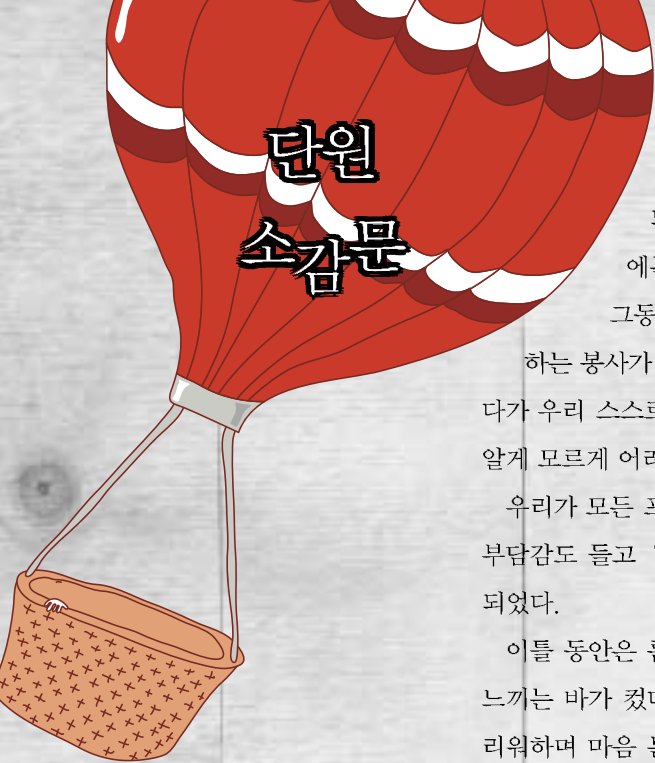
특히 나는 이 원주민 마을에서 나이임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유독 같이 다니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친하게 지내고 점심도 같이 먹고 쉬는시간이면 도움을 받아가면서 짧은 대화도 나누어보고 게임도 하면서 금세 정이 많이 들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찾게되고 챙기게 되었다. 다음날 점심시간, 이임이가 나를 불러내서 분홍색 봉지를 주었다. 내용물을 꺼내봤더니 약 30cm 정도 되는 타이완 섬 모양의 돌이었다. 처음 받았을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는데 이임이가 나를 생각해서 그 돌을 찾으러 다녔다는 생각을 하니깐 가슴이 찡해져왔다. 카드도 함께 주면서 내 한국이름과 자신의 이메일, 간단한 인사가 적혀있는 것을 보며 정말 이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나는 이 원주민 마을을 갈 때 아무런 선물도 안 가져가고 달랑 내 생활용품만 가져가서 이임이에게 줄수 있는 선물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 아쉬웠다. 하지만 생각 끝에 인사동에서 구입한 머리핀을 챙겨왔다는 것이 생각나서 바로 이임이에게 고맙다는 카드도 쓰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

서 이런 작은 선물을 받고 감동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아쉬운 헤어짐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순간 그 시간을 되돌려보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의란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1명만 와서 정말 이대로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10분이 지나면서 1명씩 계속오더니 나중에는 7명정도 와서 약소하지만 대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져 갔다. 모두 둥글게 앉아 모종을 심으면서 시간을 보내온 것이 의란에서의 첫 활동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소통이 어느정도는 가능하여 정말 빨리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탈도 만들고 부채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홍보를 통해 이 곳을 찾아준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도 좋았고 그 친구들과 야시장을 가서 대만표 길거리 음식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구경도 하면서 솔직히 봉사라는 느낌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고 사귀어가는 느낌이 강하게 났다.

비록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서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많은 사진을 찍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영원히 이 만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언어가 다른 친구들을 사귄 수 있게 해주고 리더쉽을 키우게 해주며 베푸는 마음과 그로인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이었다.



단원 소감문

신상은

환경그린디자인학과 2학년
한글 문화 담당

해외로 봉사를 나가는 것이 처음도 아니었는데 긴장도 되고, 설레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간다는 두려움까지... 이번에는 마냥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의 봉사활동은 모든 짜여진 프로그램과 계획 아래에서 하는 봉사가 많았지만 이번 봉사대는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게다가 우리 스스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따랐다.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부담감도 들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라는 걱정도 되었다.

이틀 동안은 롬페이라는 곳에서 봉사하였는데 그곳의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컸다. 정말 순수하고 티없이 맑은 아이들, 사람 간의 정을 그리워하며 마음 문을 먼저 활짝 열어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또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학과에서 배웠던 모종심기, 그림 그리기를 통해 알려주고,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러 갔지만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또한번 우리가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받았다.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한국 음식도 해먹고, 하루를 종일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마치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많이 친해졌는데 그래서인지 이틀 동안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특히 나를 잘 따르던 한 남자아이가 나에게 한국에 가서 읽어보라고 한 편지와 그림은 내 마음에 참 인상적으로 남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롬페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의란 마을로 돌아와서 한국 문화교류와 자연생태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후와 저녁에는 중, 고등학교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기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간단한 한국말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자부심도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누군가는 알려주고 누군가는 배우는 시간

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도 배우면서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인데, 대만 친구들과 함께 직접 야시장도 가고, 더듬더듬 언어도 배워가며 양방향의 소통이 되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내게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이 있던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봉사한 의란 마을에서 나의 정말 미약한 중국어와 피아노 연주, 학과에서 배운 내용으로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어떤 광고에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면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다. 그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면서 더 크게는 감사와 축복이라는 생각을 봉사하는 기간 내내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했다.

처음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이 큰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정, 사랑, 관심, 소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나는 그들에게 배웠다.

더불어 내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하면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들을 위해, 의란 마을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누군가를 나처럼 사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성경에서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란 쉽지 않다. 내가 이번 봉사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귀중한 마음을 배운 것처럼 누군가를 내 몸과 같이 더욱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이 글을 마친다.



원예학과

목적 및 취지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양성하고, 현지의 문화체험을 통해 더 넓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지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그것을 평생의 삶에 실천한다.
- 단체생활을 통해 대원들간의 협력과 양보의 정신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필리핀 마닐라
파견기간	7월 17일(일) ~ 28일(목)
파견인원	- 지도교수 : 2명 - 대장 : 1명 - 대원 : 20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100MM Center
활동내용	환경개선봉사(화단조성, 페인트칠), 펠로우십(집집방문, 문화교류)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7/18~21 (오전)	100MM Center	23명	웨딩가든의 정원가꾸기(잡초제거, 화단조성, 페인트칠)	
7/18~22 (오후)	캠퍼스 주변 지역사회	23명	현지인들과의 교류 (한국문화 알리기, 어린이 프로그램, 기념품 증정)	
7/18~22 (저녁)	100MM Center	23명	문화교류 및 발표회 (부채춤, 태권도, 노래 및 율동, 악기연주)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이창섭					20	최민주	원예학과	1		
지도교수	김재현	기획처				21	황선미	원예학과	1		
대장	윤혜진	원예학과	3								
2	이미라	원예학과	3								
3	김현화	원예학과	3								
4	송주희	원예학과	3								
5	이세희	원예학과	3								
6	임균미	원예학과	3								
7	남운우	원예학과	2								
8	박다솔	원예학과	2								
9	박수란	원예학과	2								
10	송부초	원예학과	2								
11	이원희	원예학과	2								
12	조아름	원예학과	2								
13	최은지	원예학과	2								
14	홍다은	원예학과	2								
15	황은성	원예학과	2								
16	손희라	원예학과	1								
17	오제학	원예학과	1								
18	원민호	원예학과	1								
19	유상원	원예학과	1								



활동사진 자료집

- ① 환경개선 - 화단조성
- ② 어린이 프로그램(페이스 페인팅)





③ 동네주민들과 교류
 ④ 페이스페인팅과 색종이접기 놀이 후
 ⑤ 순수하고 맑았던 꼬마아이
 ⑥ 사진을 좋아하는 아이들 & 우리들
 ⑦ 눈이 너무나 예쁜 필리핀 꼬마아이
 ⑧ 펠로우십 - 문화교류(부채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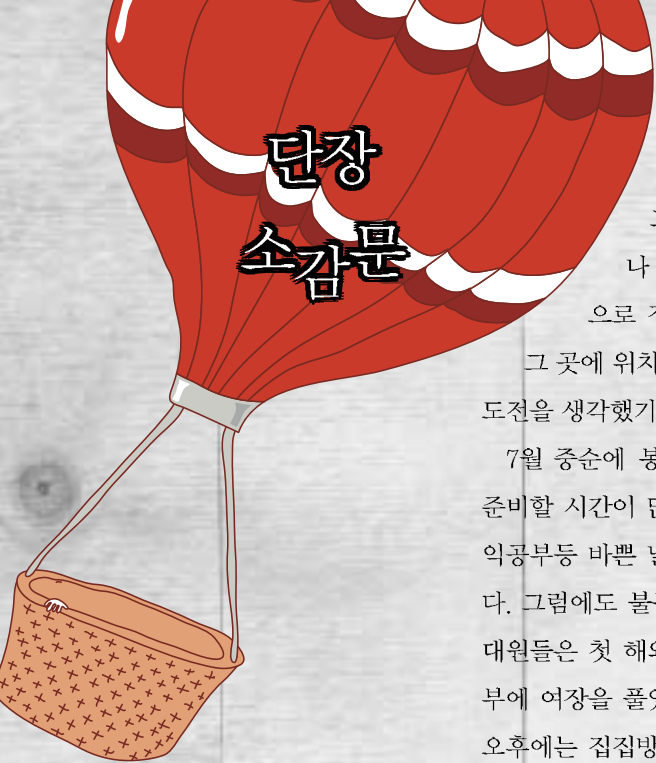




활동사진 자료집







단장 소감문

이창섭

원예학과팀 지도교수

해외 봉사에서 얻은 큰 기쁨

작년 여름에 이어 올 해 두 번째의 해외봉사를 경험하고 돌아왔다. 작년에 일본에 다녀온 것이 소문이 나 21명이 되는 학생이 이번 해외봉사에 신청을 했다. 장소를 필리핀으로 정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나라임과 동시에 그 곳에 위치한 100MM Center가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과 도전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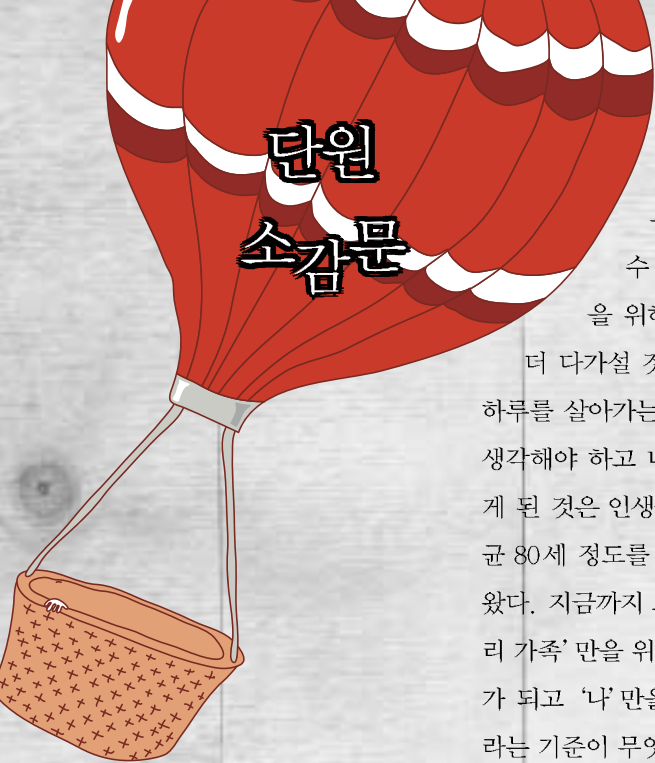
7월 중순에 봉사대를 가기로 계획했기에 방학 후 1달여의 시간이 남아 준비할 시간이 많을 거라 여겼는데 실지로 많은 대원들이 아르바이트, 토익공부등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 다같이 모여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열심히 준비를 했다. 짐을 꾸려 출발하는 날 대원들은 첫 해외봉사에 들떠 있었다. 드디어 필리핀에 도착하여 천명 본부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오전에는 화단조성 오후에는 집집방문 및 현지인과의 교류 그리고 저녁에는 문화공연을 하며 문화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밤비행기를 타고 와서인지 이삼일이 지나도 어둑이 풀리지 않아 걱정했는데 사일째부터는 대원들이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하여 안심하였다. 단체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은 대원들이 대부분이라 생활적인 면에서나 남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육을 통해 이내 잘 적응하였다 특별히 전공을 살려 봉사했던 화단조성은 대원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지인들과 만나는 오후봉사에서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로에게 느껴지는 인간애 덕분에 곧 친근해 질 수가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지 주민들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하여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이었다. 현지를 가 본 사람이 필요를 잘 알 수 있기에 다음번에 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간다면 더 잘 준비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귀국길에 대원들은 겨울에 또 같은 곳으로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고 했다. 처음 해외 봉사를 경험하며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을것이다. 또 한 가지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대원들이 말하기를 다음번에는 현지관광은 하지말고 전 기간 봉사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번 봉사대를 통하여 대원들이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천명 본부에서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이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도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젊음을 불태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도 배우고 깨달은 것이 많다. 특별히 대원들을 인솔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배웠다.. 다음 방학에도 원예학과 학생들과 해외 봉사 활동을 하므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누고 싶다.





단원 소감문

임균미

원예학과 3학년

대학생활 4년.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멋진 대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키우며 자신의 미래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성인'이라는 이름 아래 흥청망청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취업을 생각해야 하고 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는 이 때 '해외봉사'를 지원하게 된 것은 인생을 멀리서 보았을 때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이다. 평균 80세 정도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서 나는 사본의 일 정도의 삶을 살아왔다. 지금까지 오직 '나' 에게만 '나'를 위해서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가족'만을 위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내 것'에만 집중하다가 80세가 되고 '나'만을 알다가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과연 '우리'라는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학교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아야 한다는 이념이 있다. 이런 이념에 따라 이번 봉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도 진정한 봉사를 하지 못한 까닭은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덜 되어 이런 이념에 온전히 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였다. '내가 뭐라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해외라는 장소에 대한 의사소통의 문제, 도전의식 등이 지금과 같은 더 큰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학과 사람들과 함께인 것이었다. 무엇보다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라는 점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자국 내딛도록 도움을 준 것 같다.

우리 학과에서 가게 된 곳은 필리핀 마닐라 외곽 지역 실랑의 100MM Center였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도울만한 것을 찾던 중 조경시공에 대해 계획해 보았다.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하여 그 지역에 맞는 식물을 찾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페인트를 덧칠하는 작업부터 화단에 꽃을 심는 작업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였다. 그러나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20여명의 소규모 대원들이 조경을 시공하는 일은 미비했다. 다음 번 봉사 때는 설계를 미리 구상해 가는 등 더욱 정돈된 정원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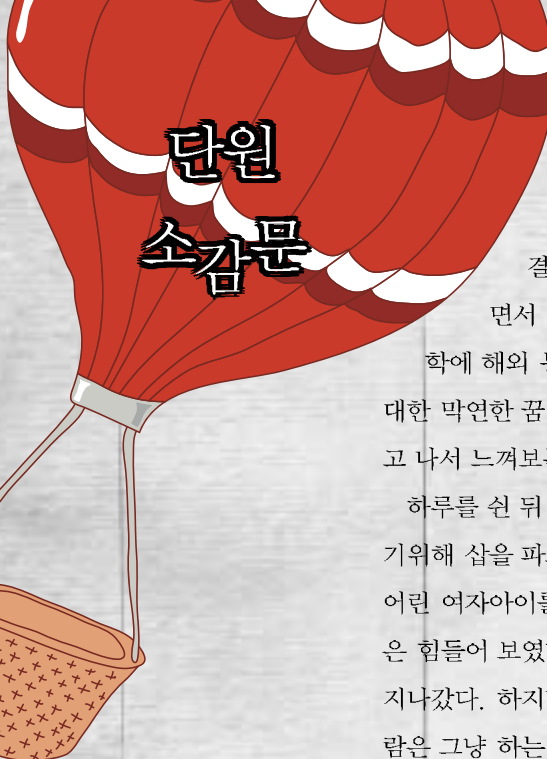
오전의 조경 봉사가 끝이 나면 오후 봉사로 집집방문을 통해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작은 손길을 보내는 것이었다.

특별한 것 없이 집집 방문을 하면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간 한국 전통의 부채도 나눠 드리고 마음으로 온정을 나누고 아프신 분들 간단한 마사지를 해 주는 정도였다. 4일 간의 짧은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다. 처음 할머니를 만난 곳은 좁은 골목을 굽이굽이 들어가서였다. 꽃으로 포인트가 장식된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께서는 발랄한 옷과는 반대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계신 것이 첫 인상이었다. 처음에 생각되기를 할머니께선 불쑥 찾아온 얼굴이 흰 아이들이 달갑지 않구나. 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사람들과의 교감을 위해 같이 이동해 주신 필리핀 현지인을 통해 할머니께선 다리를 사용하실 수 없고 나를 위해 이렇게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이내 할머니께선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다리를 애용하듯 치시며 다시 볼 수 없음을 슬퍼하셨다. 할머니 댁을 방문한 후 우리 조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할머니에게 다음날 찾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해주었고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액자에 끼워 다음 날,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다. 할머니께서는 조원들을 안을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고, 이내 눈물바다가 되었다. 할머니에 대해 우리는 서로 대화를 통해 나눈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을 통해 그 동안의 세월을 느낄 수 있었고 대화를 통한 것 이상으로 서로를 느낄 수 있었다. 집집 방문이 끝이 나면 지역사회의 동네 아이들과 함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비눗방울 놀이, 제기차기, 종이접기 등 여러 놀이를 하며 그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유치하고 사소한 놀이인데 당시에는 나부터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즐거워했던 기억이 난다. 올망졸망한 눈으로 사진기를 신기해하고, 비눗방울만 후 하고 불어줘도 비눗방울을 잡으려 다니는 꼬마 아이들, 요술풍선으로 강아지와 모자, 검을 만들어주면 신기해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즐거움의 기준’이 달라졌다. 나에게 있어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아이들처럼 이 해맑은 미소를 찾는 데 무엇이 작용한 것일까.

봉사를 하는 중 나를 가장 잘 따라주던 9살 그웨인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다. 첫 날 아이는 나에게 폭 안기며 내일 보자는 인사를 했고, 정말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찾아와 주었다. 이 후 아이의 들쭉날쭉한 펜글씨가 담긴 편지를 받게 되었다.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한 마음과 봉사를 했다는 뿌듯함이 다른 대원들에게 편지 받았다는 것에 대해 자랑을 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을 결코 아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 필리핀 해외봉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순수함을 통해 내가 더 배운 점이 많다는 것. 또, 사소한 것에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들의 삶을 통해 나의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다. 머릿속이 온통 ‘나’에 대한 걱정고민들로 가득하던 이 때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의 의미도 새로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들에게 봉사를 하러 갔지만 오히려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단원 소감문

유상원

원예학과 1학년

처음으로 들어온 대학은 모든 게 낯설었다. 시간표도 내 힘으로 짜야했고 급식도 없기 때문에 밥도 내 힘으로 해결해야 했다. 친구들과 선배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1학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 방학에 해외 봉사대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예전부터 복지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던 나는 고민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느껴보는 가장 뿌듯한 기분이었다.

하루를 쉬 뒤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침에는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삽을 파고 오후에는 집집방문을 하였다. 그러다가 한 쪽 팔이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다. 물건을 드는 것도 친구들과 노는 것도 조금은 힘들어 보였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한 마디씩 하며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다.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지만 나는 그 말이 듣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쌍하다는 말속에는 그 사람을 깔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전혀 불쌍한 아이가 아니다. 신은 그 애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신체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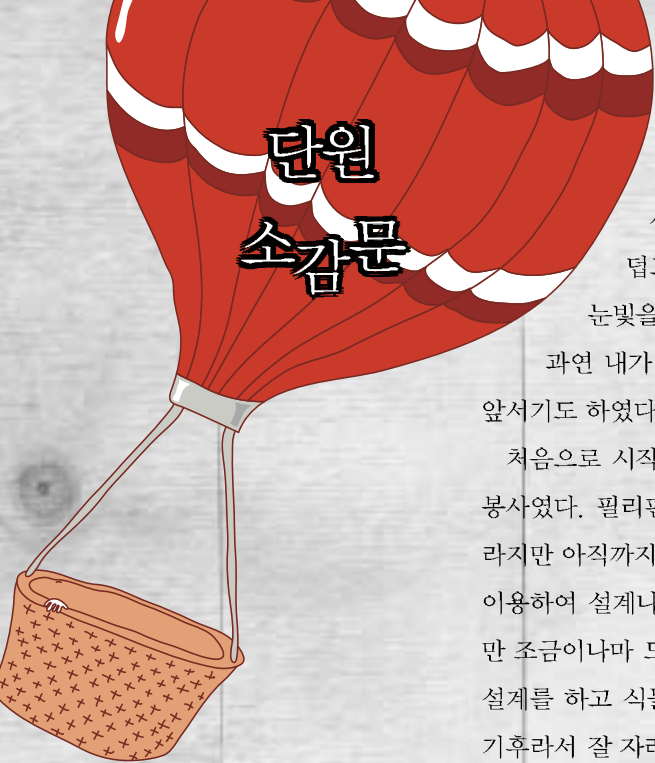
어쨌든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가 좀 더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그래서 보란 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은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신이 자신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려는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봉사를 하기에 시간은 정말 짧았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기에도 그 아이들의 아픔을 감싸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동안에 나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다. 컴퓨터와 TV같은 온갖 전자제품 속에 빠져있는 현대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순수함과 감사함이 생겼다. 나에게는 이런 나라에서 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닌 아직도 우리 세계에는 조그마한 손짓과 몸짓하나에도 누구보다도 해맑게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필리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얼어붙어 있던 나의 마음을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많은 사람들은 봉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봉사를 하다보면 결국 자신이 더욱 행복해 진다고 한다. 내가 이것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행복

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아닌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모든 봉사를 끝냈을 땐 소외되어 있는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미라

원예학과 3학년

단원 소감문

2011년 7월 17일 우리 원예학과는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떠났다. 새벽에 도착해서 처음 느낀 필리핀은 정말 무덥고 복잡한 나라였다. 무질서한 사람들과 웬지 모를 무서운 눈빛을 지닌 사람들을 보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었다.

과연 내가 이 나라에서 봉사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였다.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봉사는 원예학과인 우리 과의 특성을 살린 조경봉사였다. 필리핀은 열대기후로써 야자수나 푸르른 식물들이 무성히 잘 자라지만 아직까지 그 나라에는 조경에 대한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식물들을 이용하여 설계나 식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나라였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를 하고 식물을 식재하여 조경봉사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라서 잘 자라는 식물들도 다르고 필리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식물들 또한 잘 몰라서 힘들었지만 꽃시장을 다니면서 필리핀 사람들의 특성에 어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꽃들을 알게 되고 그 꽃들의 특징들을 알게 되면서 원예에 대한 공부도 저절로 하게 되었다. 저녁에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꼭두각시와 부채춤을 선보였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부채춤은 큰 인기를 얻었다. 한복과 부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지역봉사를 하게 되었다. 마을을 다니며 집집 방문을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거리감을 두었지만 2~3일 동안 계속 나가면서 얼굴도 익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갈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비눗방울, 종이접기, 물총, 제기차기, 공기 등을 함께 하면서 한국의 놀이도 알려주면서 다가가갈 수 있었다. 어르신들이 계신 집에는 한국의 전통무늬인 태극무늬부채를 선물로 들어거나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봉사를 하였다.

지역봉사를 하면서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생각나는 한 여성이 있었다.

손이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는 여성이 있었다. 나이를 물어보니 26살, 나보다 겨우 4살 많은 언니였다. 나보다 4살 밖에 많지 않은 젊은 언니였지만 몸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았다. 몸이 이렇게까지 아픈데 왜 병원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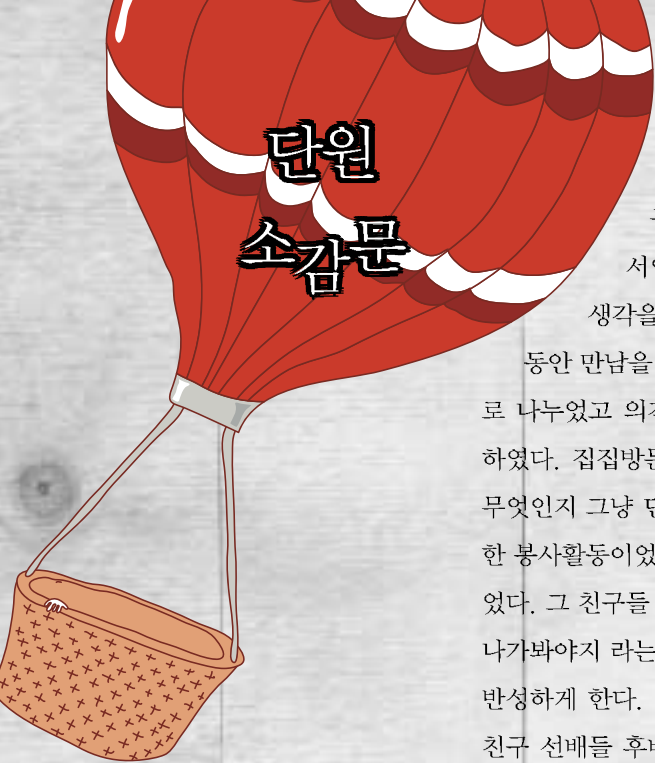
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 한마디가 나한테 정말 큰 아픔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언니에게 병원은 가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어려운 곳 이었다. 그 언니를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비상약품과 파스 밖에 줄 수 없는 내 현실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또한 지역봉사를 하면서 우연히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우리가 하는 율동과 동요들을 따라 해주고 제기와 같은 한국의 놀이들을 소개하였는데 고맙게도 매우 좋아해 주었다. 순수한 미소와 맑은 눈동자를 지닌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한다.

처음에 나를 보았던 필리핀 사람들은 신기하게 보거나 부끄러워서 숨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진심이 통하였는지 숨기만 하던 아이들도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이름도 물어보고 손도 잡으면서 같이 사진 찍기도 원하였다.

힘든 생활과 무질서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눈빛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맑고 순수한 눈빛으로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인종은 다르지만 마음만은 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내가 해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내가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온 것 같다. 봉사를 할 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나지만 앞으로도 해외 봉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이번 해외봉사는 나의 인생에 또 다른 목표를 가지게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단원 소감문

박다솔

원예학과 2학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것 같다. 더욱이 이번의 경우엔 해외봉사활동이라서인지 더 그렇다.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 원예학과 팀은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1주일 동안 만남을 가졌다. 좀 더 효율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4개의 조로 나누었고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조경, 페인트칠, 집집방문의 봉사로 정하였다. 집집방문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이거해라 저거해라의 봉사가 아닌 우리가 직접 계획한 봉사활동이었다. 1주일 동안 만남을 가지면서 비록 안 나온 친구들도 있었다.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바로 나였다. 나는 봉사활동보다는 해외에 한번 나가봐야지 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지금 소감문을 쓰면서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한다. 봉사활동을 위해 내가 꾸준히 나가고 나의 계획을 말하고 친구 선배들 후배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더라면 조금 더 나에게 뜻 깊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선다.

우리는 단지 작은 것을 나누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너무 순수해보였다. 우리가 가서 한 것은 의사소통이 안통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누어주며 놀아준 것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고 기분이 짜릿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은 점은 이런 아이들이다. 필리핀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와 슈퍼주니어의 소리소리와 원더걸스의 노바디 들을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원더걸스의 노바디 슈퍼주니어의 소리소리 춤을 춰주면 계속해서 춰달라고 부탁하고 같이 따라 하기도 하였다. 정말이지 너무 신기했다. 한 필리핀 아이 JERAMIE는 이런 나를 너무 따라 주고 너무 좋았다. 이 아이가 나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정말이지 감동이었다. 너무나 해맑게 웃던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던 어린아이들이 눈에 너무 선하다.

얼마되지 않은 잊지 못할 해외봉사였다. 짧게 느껴진 기간이었지만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풍경과 만났던 사람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었던 해외 봉사였다.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한 걸음 더 배운 것 같아 좋았다.





영미어문학부

목적 및 취지

- 대원들의 글로벌 리더십 증진
- 기독교 세계관을 깊게 함
- 봉사를 통한 인성 교육을 함양
- 영어로 가르치는 봉사를 통해 영어 실력 고취
- 학과의 연합과 발전을 도모
- 삼육대학교의 브랜드를 더욱 확산시킴
- 봉사의 기쁨을 누리고 봉사의 삶을 살도록 교육함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필리핀 따가이따이 Lipa Adventist Academy
파견기간	7월 17일 ~ 28일
파견인원	- 지도 교수 : 2명 - 대장 : 2명 - 대원 : 14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100MM Center
활동내용	1. Lipa Adventist Academy에서 영어, 보건, 체육, 음악을 교육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함. 2. LAA에서 교사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삼육대학교를 소개함. 3. 발표회하는 날 400명의 Academy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와 함께 발표회를 가지고, 하나되는 경험을 함. 4. LAA에 컴퓨터 한 대, 장학금 15,000페소를 두 명에게 지급, 학교 발전 기금으로 13,000페소를 기증 5. Center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미션과 비전을 나눔. 6. Center에 발전 기금으로 한화 1,020,000원을 전달함.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2011. 7. 17 ~ 21	LAA	18명	상기의 교육 봉사, 상기의 컴퓨터 및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	
2011. 7. 22 ~ 23	1000MM	18명	현지인들과 미션과 비전을 나눔	
2011. 7. 24	1000MM	17명	상기와 같이 1000MM에 훈련원 발전 기금을 전달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양종호			지도교수	
대장	도희주	영미어문학부	4	한국문화	
대장	문지혜	영미어문학부	2	발표회	
3	박하란	영미어문학부	2	레크레이션	홍보
4	이혜림	영미어문학부	2	레크레이션	
5	배빛나	영미어문학부	2	레크레이션	음악
6	윤누리	영미어문학부	3	영어교육	
7	박혜진	영미어문학부	3	영어교육	
8	주종현	영미어문학부	1	레크레이션	
9	김원준	영미어문학부	1	레크레이션	
10	이재향	영미어문학부	1	보건교육	
11	이지영	영미어문학부	1	보건교육	
12	이예지	영미어문학부	1	한국문화	
13	임다인	영미어문학부	1	한국문화	
14	정고은	영미어문학부	1	보건교육	
15	경재원	영미어문학부	1	한국문화	
16	박지훈	영미어문학부	4	성경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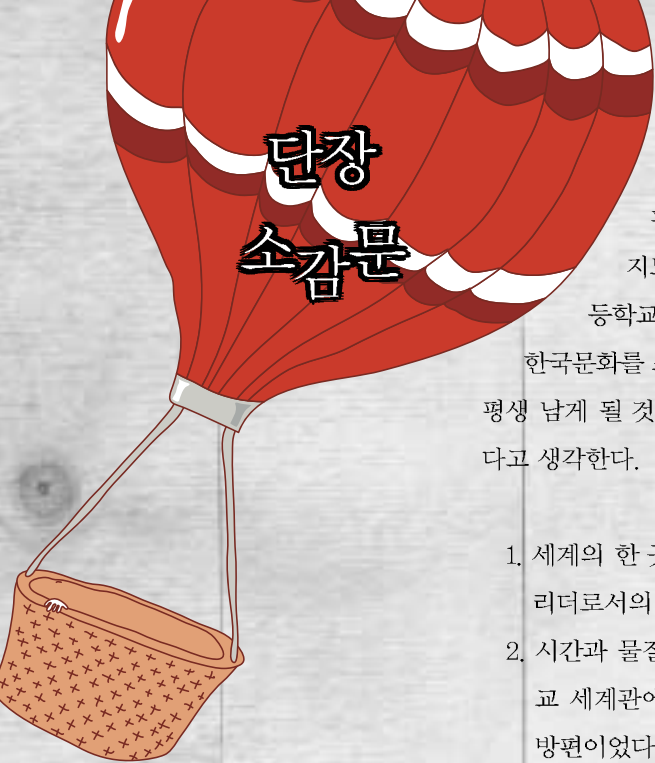


활동사진 자료집

- ① 영어 수업시간
- ② 대원들과 5~6학년 친구들
- ③ 사인만 수십 번째
- ④ 부채 만드는 중
- ⑤ 체육, 음악 수업시간
- ⑥ 체육대회







단장 소감문

양종호

영미어문학부팀 지도교수

영미어문학부 해외봉사대는 2011년 7월 17-28일 필리핀의 Lippa Adventist Academy에서 2명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6명의 대원들이 교육봉사를 수행했다. 부속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보건, 음악, 성경을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소개했던 경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자산으로 평생 남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1. 세계의 한 곳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교육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증진시켰다.
2. 시간과 물질을 드려 필리핀의 현지인들의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봉사와 사랑의 삶을 실천했으며, 인성 교육의 한 방편이었다.
3. 영어가 실질적인 봉사의 도구가 됨을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써 영어를 익히는 데 대한 보다 진지한 자세를 확립하게 되었다.
4. 영미어문학부의 연합과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5. 삼육대학교의 브랜드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었다.
6. 한국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민간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7. 20번의 아침, 저녁 예배의 설교 말씀과, 봉사의 삶 속에서 대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었다.
8. 대원들에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대해서 더욱 친밀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9. Lippa Adventist Academy에 컴퓨터 한 대, 두 명에게 장학금 15,000페소, 그리고 13,000페소의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함으로써 학교 발전과 장학에 기여하게 되었다.
10. 100MM Center에서 대원들이 현지인들과 교제함으로써, 문화교류를 할 수 있었다.
11. AiIAS, SSD, AUP 등 재림교회의 기관들을 감사함으로써 재림교회

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12. 필리핀 정부에서 주는 감사장을 삼육대학교에 전달함으로써 삼육대학교에 대한 봉사의 위상을 넓힐 수 있었다.

13. 한화 1,000,000원 넘게 기증함으로써 훈련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지원을 주신 삼육대학교 총장님과 김원곤 사회봉사단부단장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경룡 학부장님께 감사 드리며, 곁에서 적합하게 조언해 준 Bessie Haynes 교수와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Summer Mission? Lipa Adventist Academy, Lipa, Philippines- 2011

Sixteen students, Yang and I arrived in the Philippines late on July 17th. We first went to 1000 Missionary Movement to spend the night and do a little touring of Aaias and the Division Office. After supper on July 18th, we continued our journey to Bugtong, Lipa City to Lipa Adventist Academy.

We were greeted warmly and shown to our sleeping quarters on the campus of the school. Our mission was to teach students in grades one through six. Our students of sixteen divided themselves into five groups teaching Bible, First Aid, Korean Culture, Pronunciation, and Action Songs. They were prepared to teach grades one through eight, however upon reaching the academy we were informed that the academy had only grades one through six because grades 7th and 8th were on the campus of the high school with 9th through 12th grades. Our students immediately revamped and adjusted their plans to meet the needs of the school and the students.

Our students met and taught from 10 to 12 each morning and again from 1 to 3 in the afternoon each day. They were very energetic and motivated in there teaching. The teachers welcomed them and the elementary students fell in love with each of our students from Sahmyook University. In fact by the end of the week, the Lipa Academy students knew them all by name.

Our students from the English Department were very talented and gifted making all of their visuals and decorations. They taught and played with the children at Lipa Academy. The children and teachers were anxiously waiting for our students each day. Thursday was designated as Sports Day to be held

Bessie R. Haynes
영미어문학과 교수

outside, however there was a downpour of rain that meant no Sports Day outside. Our leaders immediately made other plans to have the activities inside of the building upstairs where we stayed. There were three sections to divide the student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classes. Each class had two grades for instance, first and second were together, third and fourth, and fifth and sixth grades were together. Altogether there were 3 classrooms in the Elementary school.

On Friday our last day of mission activities, our students prepared a program so the children could show what they learned during the week. The students performed in front of the entire student body from 1st to 12th grades and faculty members. The performance was great and Sahmyook University should be very proud of how our students behaved and conducted themselves during and throughout the entire mission. Their spirit was very positive and Christlike. I am sure our students received the greater blessing from this mission trip than the students at Lipa Adventist Academy. I would be please to travel with this group anytime.



단원 소감문

박지훈

영어커뮤니케이션 4학년

교육담당

필리핀 자원봉사를 지원한 계기는 정말 우연치 않았습
니다. 모든 학과수업이 끝나고 집을 가는 도중 같은과 같은
학번 형과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4학년이니 마지막 경
험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우리학과에서 자원봉
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도 계절학기가 딱 맞
아 떨어지게 날짜가 잡혀있어 마지막 경험이 될 수도 또 대학생으로서 마
지막 해외 봉사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신청하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봉사도 봉사였지만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 좋은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
는 것에 대한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설렘을 품고 한국을 출발
하였고 필리핀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덥고 생각보다 열악한 조
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솔직한 저의 모습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왔다는 생
각보다, 나 자신의 설렘을 충족 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생각이 더 컸기 때
문에 필리핀 방문에 대한 본분을 잠시 잊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착
하여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교육봉사를 위해 숙소로 머물고 있던
100MM Center를 3시간 남짓 떠나 도착한 곳은 리파 어드벤처리스트 아카
데미 이었습니다. 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봉사활동 이라는 것을 잠시 잊었
는지 옮겨간 숙소에 놀라고, 활동 여건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며 봉사활동이라는 본분에 대한 생각을 되
찾아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고 정신없던 아이들과도 다음
수업에는 조금 더 친해지고 또 그 다음에는 더욱더 친해지며 정을 쌓아갔
습니다. 저학년 수업도 있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내 자
신의 눈높이 또한 낮추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또는 쉬는 시간 중간 중간마다 필리핀 어린 친구들은 우
리에게 마음을 열고 나와 우리 대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우리말로 써주
길 바라고 또 우리들의 이름 또한 우리말로 써주길 바라며 정말 한류스타
가 된 기분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몰려 사인도 해주었습니다. 바쁘다는 핑
계로 내 자신 초차도 나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였는데 필리핀의
어린 친구들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
이들은 매우 순수하여 때론 아주 장난스러우면서도 우리 대원들의 말을 잘

따라 주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우리말이 뭐라고 그 글자를 받기위해 그리도 다정히 물어봐주고 찾아와 주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한없이 미소짓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순수해졌던 그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또한 저는 봉사 기간 중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예회 MC를 맡게 되었는데 하면서 학예회에 함께 와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였지만 사실 준비시간도, 기간도 충분치 않고 모든 것도 손으로 직접 제작하여 만들어 너무나 부족하고 허점이 많았던 학예회이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너무나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아쉬움이 남으면서 또 저 역시 그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이제 정말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봉사의 기간도 마무리가 지어져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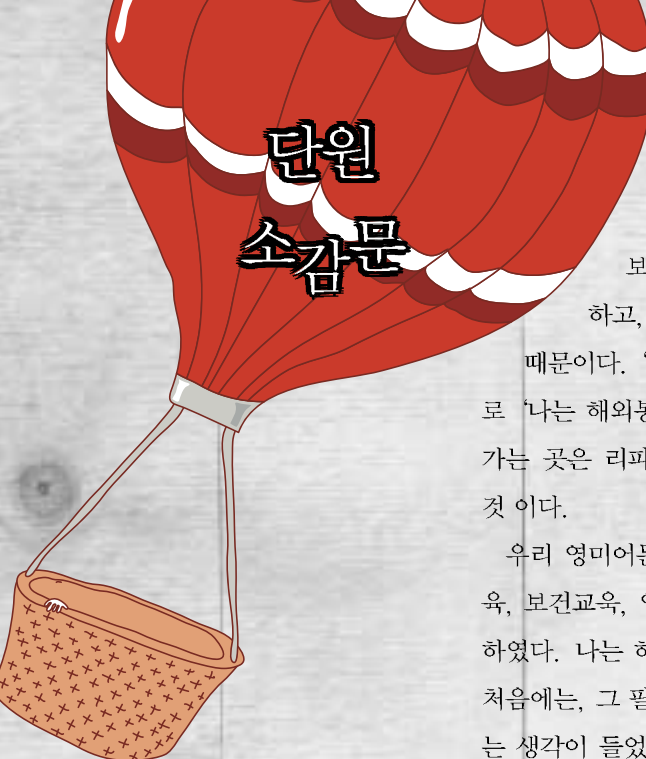
대원들 모두들 처음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모두들 아쉬워 하는 순간 이었습니다. 정말 봉사기간이 짧아 아쉽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보람되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실 봉사활동전 거의 알고 지내던 대원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원들과도 한층 가까워 질 수 있었고 또 다른 인연을 만든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대원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사실 한명을 제외하고는 저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또 함께 지원했던 형은 대장으로서 신경 쓸 부분이 많아 제가 단체 생활을 하며 잡아줄 부분을 찾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어리지만 어린나이에든 큰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어 따로 뭐라고 이야기 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좋은 대원들과 함께 하여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중 그 어린 아이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대해 또 낯선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많이 놀랐습니다. 매우 호의적이며 큰 관심을 보여준 그들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열의를 잃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존경까지도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 그들에게도 조금더 도움에 손길을 주고 조금만 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와 환경이 있다면 그들 중에서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인물들이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가운데 짧지만 좋은 기억으로 내가 존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그 기쁨은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았던 필리핀 봉사대 대학생들이 막바지라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학우들은 그런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얻는 것이 또 그것의 가치는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학생들 막바지에 알게 된 것이 아쉬움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봉사는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장소가 어디든 주최가 어디든 더 좋고 더 나쁜 봉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에 대한 더 큰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단원 소감문

이예지

영미어문학과 1학년
한국문화교육 담당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날 나는 매우 들떴고, 한편으로는
믿기지가 않았다. 해외봉사를 한다는 것은 mbc 'W 세계를
보는 새로운 창' 을보고, 월드비전에서 주관하는 기아체험도
하고, 한비야 님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로 바랐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나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
로 '나는 해외봉사를 꼭 갈것이다' 라고 입에달고 다녔기 때문이다.우리가
가는 곳은 리파카카데미에 있는 초등학교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는
것 이다.

우리 영미어문학부는 필리핀현지에서 교육봉사를 맡게 되었고, 문화교
육, 보건교육, 영어교육, 한국문화체험, 레크레이션의 총 5개의 팀을 구성
하였다. 나는 하란이언니, 다인이, 재원이와 함께 한국문화체험팀이었다.
처음에는, 그 필리핀 멀리 사는 친구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긴알까? 하
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를 소개하자면 정말로 설명할 것 들이 많지만
어린친구들이고, 나이에 맞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태
극기, 이명박 대통령 소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임을 알리고, 한복, 박
지성선수, 삼성과 엘지와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한류드라마, 경
복궁, 고려청자,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큰 뼈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우
리나라 전통 문양인 태극 모양의 부채를 색한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첫날,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이들이 통관심이 없어보였다. 처음
수업하는 것이라 너무 떨리기도 하고, 영어로 수업을 해야해서 긴장을 많
이 했는데 관심이 없어보이니 너무 당황하였다. 아!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길게 설명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줄여서 설명하
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채수업은 정말로 인기가 많았다! 아이들 스스로가 태극문양을 오려
서 부채에 붙이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다들 너무 재미있어보였고, 특별히
부채를 사용한이유는 더운 나라인 만큼 실용성을 고려해서 였다. 취지도
맞고, 아이들도 좋아하니 힘든줄 모르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점심을 먹고난 뒤에는 발표회 연습을 하는데, 우리팀은 아리랑과 성경노
래, 우리나라 동요를 부르기로 하였다.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함
께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고 팀을 나누어서 누가더 잘추나 대결하기도

하였다. 아리랑 이나 한국 동요를 아이들이 따라하기 힘든 모습을 보고 많이 속상해하였는데, 배시교수님 조언을 듣고 우리 대원들이 각자 한팀씩 맡아서 따로 가르쳐주니 잘따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발표회를 위하여 초대장을 직접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날, 우리는 발표회를 가졌다. 아이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다같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었을 때 감동이었고, 고마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고 느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벌써부터 학원가랴 공부하랴 바쁘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모여서 나무밑에서 수다를 떨거나, 공놀이를 하는 것,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여자 아이들이 너도나도 고무줄을 하기 위해 모이는 모습은 쉽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순수한 얼굴로 배우기를 열망하고, 또 함박웃음을 지으며 질문을하고,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이 한동안 마음의 여유를 잃은 나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왜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고 얻는게 많아져서 돌아가는지를 알게되었다.



자치기구 연합 A, B

목적 및 취지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 임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얻고, 또한 상황에 맞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삶이 삼육대학의 재학생들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되도록 준비시킨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캄보디아(뽕삿 & 씨엠립)
파견기간	7월 17일 ~ 28일
파견인원	- A팀 - 지도교수 : 2명 - 대장 : 1명 - 대원 : 10명 - B팀 - 지도교수 : 2명 - 대장 : 1명 - 대원 : 9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ADRA KOREA, ADRA CAMBODIA
활동내용	- 개발(노력)봉사 : 화장실 설치 - 교육봉사 : 과학교실(에어로켓, 유선전화기, 보건교육(손씻기, 물 끓여먹기, 양치질하기) - 문화공연 : 율동, 수화, 태권도(격파, 품세), 사물놀이, 합창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7/19 ~ 23	뽕삿	13명	화장실 건축(6동 건축), 교육봉사(과학, 보건), 문화공연	지도 교수 포함
7/24 ~ 27	씨엠립	13명	문화공연, 교육봉사(과학, 보건)	

A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강태진	약학과, 학생지원처			
지도교수	고충기	학생지원처			
대장	윤종목	경영	4		
2	채진	커뮤니케이션디자인	2		
3	이윤도	컴퓨터시스템	4		
4	유종석	경영학부	4		
5	위성준	경영학부	4		
6	손혜림	경영학부	4		
7	박정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1		
8	오근석	경영	4		
9	윤호성	컴퓨터	4		
10	지찬식	카메카트로닉스	3		
11	최범진	간호	2		

B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김정미	유아교육과			
지도교수	김현호	학생지원처			
대장	전훈	생활체육학과	4		
2	박건규	신학과	4		
3	이은미	동물생명공학	1		
4	주미지	상담심리학과	3		
5	하홍준	신학과	3		
6	한유진	사회복지학과	2		
7	양영아	동물자원학	4		
8	유선진	생명과학과	4		
9	이다혜	상담심리학과	4		
10	홍윤기	사회복지과	4		



- ① 뽕삿지역에서 화장실 건축 작업 1
- ② 뽕삿지역에서 화장실 건축 작업 2
- ③ 뽕삿지역에서 한국문화 소개
- ④ 뽕삿지역 주민생활체험

활동사진 자료집





- ⑤ 뽕삿지역 문화공연(사물놀이)
- ⑥ 뽕삿지역 교육봉사(만들기)
- ⑦ 뽕삿지역 봉사 후 단체 사진
- ⑧ 씨엠립지역 문화공연 (태권도)
- ⑨ 씨엠립지역 문화공연 (수화공연)
- ⑩ 씨엠립지역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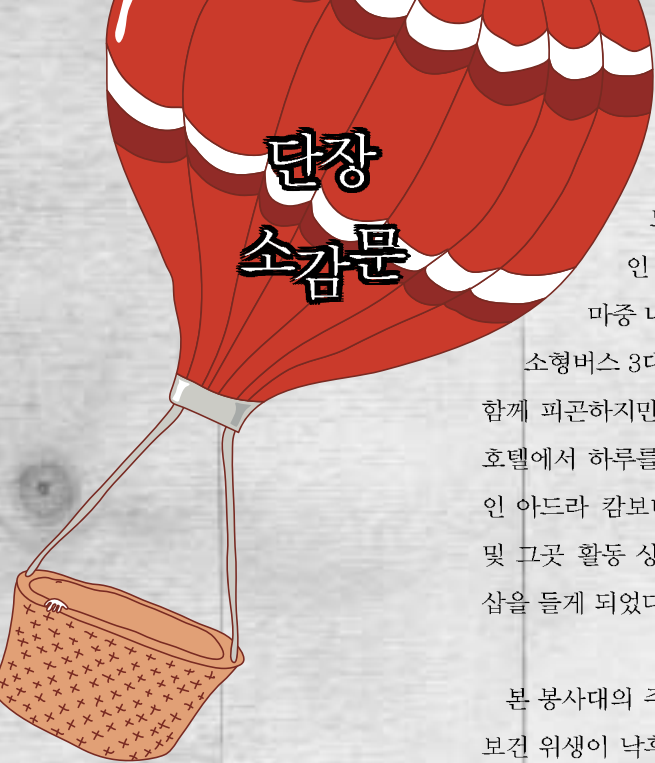




활동사진 자료집







강태진

학생지원처 부장
자치기구팀 지도교수

단장 소감문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출발시간이 지연되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본래 도착 예정시간인 10시 55분에서 약 30여분이 늦은 밤 11시 30분경, 공항에 마중 나와 있던 그 곳의 지역 담당자들을 만난 후 우리 단원들은 소형버스 3대에 준비한 봉사 및 교육에 사용할 장비, 의류 및 부품들과 함께 피곤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몸을 실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GGP 호텔에서 하루를 머문 우리 일행은 다음 날 프놈펜에 있는 봉사 구호단체인 아드라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봉사 지역 및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그곳 활동 상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봉사의 첫 삽을 들게 되었다.

본 봉사대의 주된 봉사 내용은 아드라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캄보디아의 보건 위생이 낙후된 지역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지어주고 그 곳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화장실이 없어 집 주변의 특정 장소에 해결해야 하고 그런 배설물이 주위가 오염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 특히 지하수의 오염은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복통을 호소하며 심한 경우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한다.

1차 봉사활동 지역은 프놈펜에서 버스로 5시간 정도 이동한 푸삿이라는 곳으로 그 곳 아드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화장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오전에는 이미 다른 봉사대에서 수행한 화장실 건축에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며 마무리 짓는 일이었고 오후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양치질, 비누로 손 씻기 등의 위생교육과 색종이를 이용한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등의 교육과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수화 등의 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3조로 단원들을 구성하여 하루 3개씩, 봉사활동 기간 동안 총 12개의 화장실을 완성시켰으며 치약, 칫솔 및 비누 등을 보급하여 그 지역의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

2차 봉사활동 지역은 앙코르 와트가 있는 시엠립으로서 1차 활동지역인 푸삿에서와는 달리 화장실 건축은 없었고,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문화 봉사가 주된 활동이었다.

첫날부터 시작된 봉사, 교육을 통한 그 지역에서의 어린이들과의 소중한 만남은 비록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의 만남이라도 헤어짐이 얼마나 가슴저린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있었고 맨발로 뛰며 교정을 누비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귀엽고 순박한지 우리보다 못산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 가운데 행복감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으니 우리가 오히려 배울 것이 많지 않았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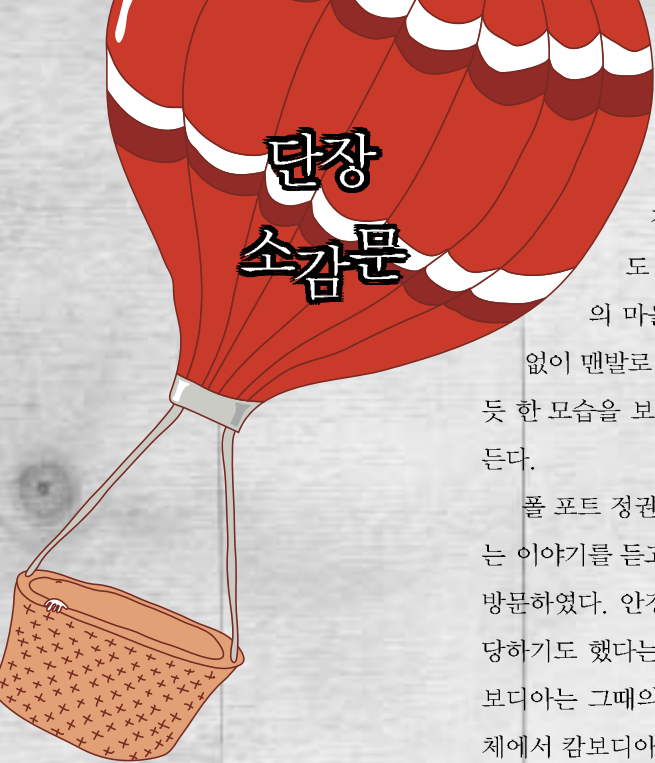
‘킬링 필드’라는 대량 학살의 아픈 역사로 인하여 캄보디아의 전통과 역사가 크게 바뀌었고 지금처럼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라, 캄보디아.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봉사활동이었다.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뜻 깊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어떤 봉사자이어야 할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봉사자이어야 할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가진 자로서 없는 자에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것이어야 할까? 과연 우리가 가진 자일까? 오히려 마음이 풍족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 곳 사람들인 것 같다.

우리 역시 6.25라는 아픈 역사를 이겨 내고 세계적으로 우뚝 선 나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았던 지원을 이제는 되돌려 주는 일만 남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은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우리 대원들의 아낌없는 봉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낯선 환경에서 서로 힘들지 않게 배려하는 대원들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다른 봉사자들을 힘들지 않게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아이들과 어울려 밝게 웃으며 함께 뛰놀며 즐기는 모습에 흐뭇하기도 하고 피부색과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적인 따뜻한 정이 있음을 느꼈다. 정말 훌륭하고 멋진 학생들이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이 사회에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대학 청년들이 이런 경험 통해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나아가서는 세계의 여러 곳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캄보디아여 일어나라!



고충기
학생지원팀장
자치기구팀 지도교수

단장 소감문

앞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한다는 것 빼고는 아마 6.25 전쟁 이후 60, 70년대의 대한민국 땅도 이랬을 것이다. 수도 프놈펜과 관광지로 유명한 시엠 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을들이 우리나라의 어느 시골 풍경과 유사하였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옷차림도 1년은 족히 빨지 않고 입고 있는 듯 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닌가 자책이 든다.

폴 포트 정권에 의해 75년 이후 약 3년간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고문과 학살 현장인 Toul Sleng 대학살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안경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식인으로 오해받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30여년이 지난 이후 아직도 캄보디아는 그때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느낌이 든다. 각 나라, 각 단체에서 캄보디아 봉사활동이 쇄도하는 것이 자못 이해가 간다.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 노원구청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예방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담당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나에게 왜 사람들이 해외봉사를 가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비싼 항공료와 숙박비 각종 지원비 등의 자금을 모아 그 나라에 직접 보내주면 더 많은 화장실을 지어줄 수 있을텐데 뭐하러 고생하며 그곳에 돈 버리고 가냐고 핀잔 섞인 말을 내 뱉는다. 솔직히 항변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나 또한 내심 그 말을 부정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 곳 실정을 보고나서 또한 ADRA Cambodia 구호단체 담당자를 만나고 나서는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문제는 구호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의식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 화장실을 무료로 지어주어도 창고로 쓸 정도라고 한다. 폐쇄된 사회에서 문명의 혜택까지 거부하는 그들을 만나 삶의 도전과 꿈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시절 온 국민이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고 정부와 기업의 경제개발정책의 매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새삼 우리 민족의 저력과 근면성에 뿌듯함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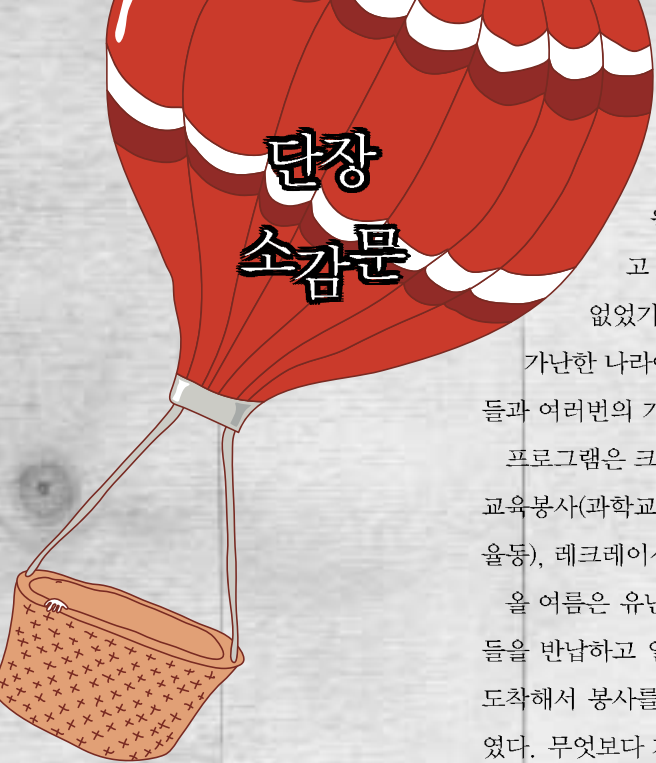
화장실 12개를 건축하고 Pursat의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한 일은 미

미할 지라도 봉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너무 많다는 것과,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봉사대원들은 삼육대학교를 대표하는 자치기구 임원들로 구성되었다. 자칭 리더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책임성을 보여 주었다. 준비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어디하나 질책할 일이 없었다. 이들 또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고 더 큰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 가리라 믿는다. 그것은 평범한 인물로 사라져가는 삶이 아니라 내 영역을 세계로 넓히고 돈을 좇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좇는 자가 되는 것이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살 수 있다면 그 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모습이 아닐까?

캄보디아,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 오염이 안된 나라,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이 나라에 많은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민족을 깨우고, 의식을 깨우고 희망과 열정을 불어 넣어 줄 젊은이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정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약하는 정책을 꾀하여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일에 우리 대학의 리더들이 사회에 나가 동참할 수 있다면 이 보다 값진 일이 더 있을까?

한 여름의 무더위 속에 흘린 땀방울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좋은 열매로 맺혀 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봉사를 위해 지원해 주신 대학 당국과 ADRA Korea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직접 봉사에 참여한 모든 24명의 봉사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단장 소감문

김현호
학생지원처
자치기구팀 지도교수

지난 7월 삼육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 임원 21명과 캄보디아 푼사지역에서 일주일간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큰 기대감은 갖지 못했다. 단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도움을 주러 간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학생들과 여러번의 기획회의를 통하여 봉사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노력봉사(화장실 증축-아드라코리아 캄보디아 협력)와 교육봉사(과학교실, 위생교실), 문화봉사(태권도, 사물놀이, 합창, 수화, 율동), 레크레이션으로 구성을 하였다.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고 날도 많이 더웠지만, 개인적인 시간들을 반납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서 첫 번째 감동을 받았다. 현지에 도착해서 봉사를 하는 동안 시종 학생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에 임하였다. 무엇보다 가난하고 씻지 못한 현지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봉사대원들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 감동과 배움을 얻었다.

봉사가 끝나고 학생들의 소감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 또 한번 놀랐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번 봉사대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갖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 것,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한국에 돌아가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처음 캄보디아에 간다고 했을 때 뭔가 도움을 주러 간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모든 봉사일정이 마친 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나보다 더 풍요를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순수함과 진실한 모습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었다. 보통 봉사한다고 하면 가진자가 없는자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번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봉사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삼육대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더욱 많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므로 사랑에 대해 더 알아가고 인생의 행복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단원 소감문

채진

커뮤니케이션디자인 2학년

아름다운 캄보디아에서 삶을 배우다

캄보디아는 행복하고 순수하고 그들은 정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천사들의 나라였다. 맨발로 뛰어다녀도 비록 옷이 찢어져도 맑게 웃는 캄보디아 아이들이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온 캄보디아에 우리가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점점 알게 될 것이라 믿었다. 봉사하는 동안 웬지, 항상 뿌듯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좋은 것만 얻는 것이 행복의 순위가 아닌데 말이다. 비록, 화장실도 없는 가난한 집이여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봉사를 하며 아이들과 교류를 하며 마음을 나누며 맑은 눈동자에 나도 어느새 흠뻑 빠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에게 좋은 배움을 주고 올까? 라는 생각에 내가 한번 더 성숙해지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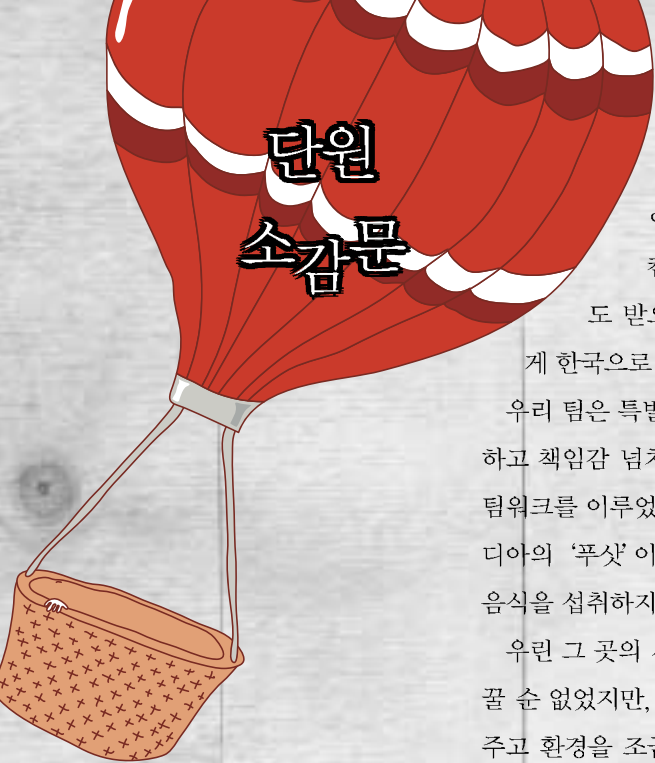
봉사 중에 비가 내려 봉사를 못할 뻔 했는데 자치기구 모든 사람들이 비오면 비 맞으면서 하면 되지 라는 말 한마디에 또 한번 우리의 보이지 않은 끈끈한 단합이라는 것을 한번 더 느끼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내가 왔다는게 너무 자랑스러웠다.

동행하신 교수님들도 선생님들도 내심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항상 봉사대원들은 지지해주고 믿어주시니, 봉사하는 동안 많은 얘기도 나누고 정말 아빠같이 때론 친한 친구처럼.. 정말 뜻 깊은 봉사대였던 것 같다.

씨엠립으로 가며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이 곳에 또 한번 오고 싶다는, 같이 동행해주신 현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학교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고로 잘 다녀온 것 같다. 2개의 팀의 리더들이 항상 걱정하고 생각해준 덕분에 탈 없이 잘 다녀 온것 같아 많이 감사하다!

생각지도 않게 이번 방학 때 두 번이라는 해외봉사를 통해서 21살인 나에게 많은 변화가 온 것 같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려라는 것과 이 단체 속에서의 규율이라는 예의도 배우고 별거 아닌 사소한 것 들이 날 많이 바꾸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



양영아
동물자원학과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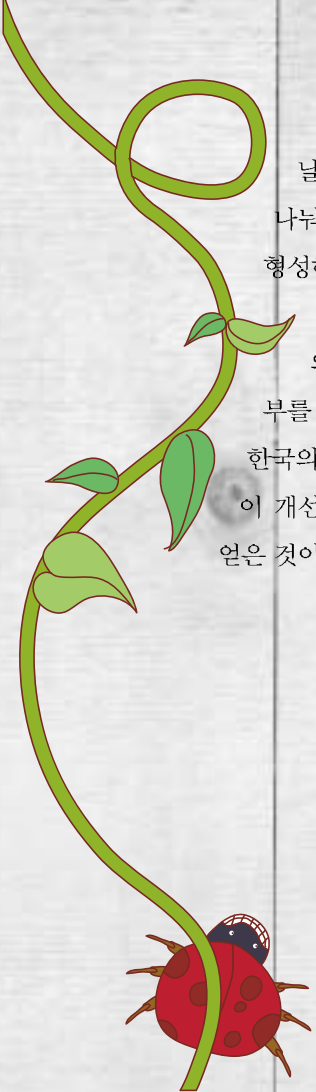
2011년 7월 17일~28일로 총 11박 12일에 걸친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마쳤다.

캄보디아에 도착하기 전 자주모여 연습도 하고, 사전 교육도 받으며 철저한 준비 끝에 봉사활동을 잘 마무리 짓고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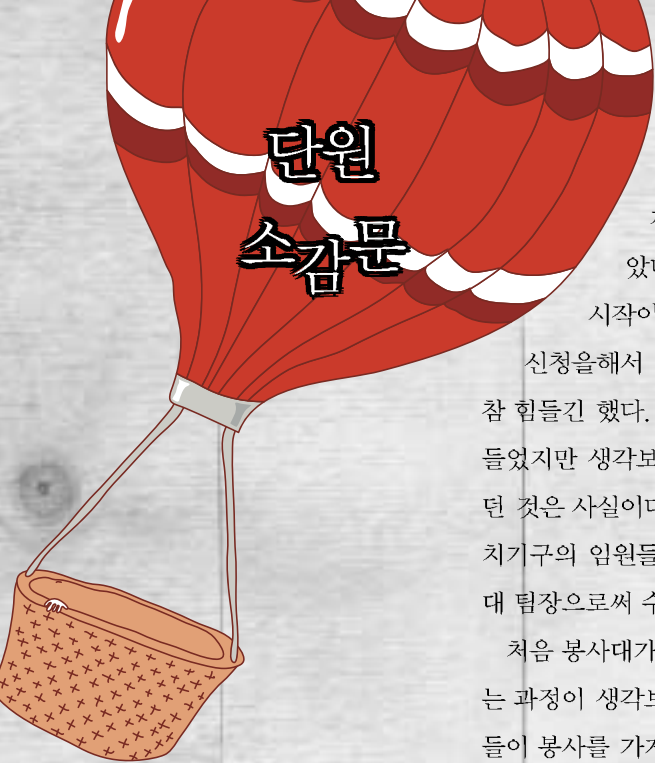
우리 팀은 특별히 자치기구를 이끌어 나가는 임원들로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책임감 넘치는 훌륭한 인재들이었다. 덕분에 서로 협동하고 타협하며 팀워크를 이루었고, 그 결과 완벽하고 체계적인 봉사를 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의 '푸삿'이라는 마을은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야위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그 곳의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을 지어주었다. 그 곳의 환경 모두 바꿀 순 없었지만, 이렇게 화장실 하나를 만듦으로써, 청결이란 것을 가르쳐주고 환경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햇볕이 많이 뜨거웠지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했다. 남자들이 벽을 날라 옮기면, 여자들은 시멘트를 발라 화장실을 완성했다. 물도 마시고 싶고 쉬고 싶을 때 마다 그 곳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게 맛있는 과일도 접대해주고, 직접 우리가 하는 일에 손수 도와주시기 까지 했다. 덕분에 일은 수월하게 끝났고, 다치는 사고 없이 완벽하게 총 12개의 화장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오전에는 화장실건축봉사를 했고 오후엔 그곳의 마을 아이들과 함께 교육봉사를 했다. 사실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쓸데 없는 걱정을 많이했다. 아이들과 놀다 병이 옮으면 어쩌나, 냄새가 나면 어쩌나. 하지만 바보같은 생각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반겨주었고, 낯도 가리지 않고 껴안고 손잡고 사진찍고, 너무나 밝은 아이들이라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내가 너무 창피했었다.

하루가 지날 때 마다 수가 느는 아이들을 보며, 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태권도, 수화, 합창등 여러 공연도 많이 준비했었다. 아이들은 우리가 준비해 온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청결교육'이라는 양치질 하는 법과 손씻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청결하게 생활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르쳤다. 또한 직접 새(고무동력기)를 만들어



날리기도 했고, 우주선(페트병을 이용한 놀이)도 만들고 직접 한글로 이름을 써서 이름표를 나눠주며, 맛있는 간식도 주고 더운 날씨 잘 지내라고 같이 부채도 만들며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해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 졌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우리 역시 아이들을 통해 이곳의 문화와 현지 상황을 많이 알았고, 좀 더 한국과 캄보디아와의 문화교류 나 국제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그러기 위해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캄보디아에 방문할 계획이다. 그 땐 지금보다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한국의 문화를 더 알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여러 교육을 통해 캄보디아가 좀 더 발전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되려 내가 많이 얻은 것이 많았다.



전훈
생활체육학과 4학년

처음 캄보디아 봉사대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까닭은 이제까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만 치중되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느껴서이다. 사실 처음은 봉사라는 의미조차 모르는 시작이었다. 한번쯤 살면서 봉사라는 것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을해서 가게 되었다. 사실 캄보디아로 출발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참 힘들긴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육봉사와 문화봉사의 준비량에 조금 부담이 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주었고 역시 자치기구의 임원들답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었기에 조금은 봉사대 팀장으로써 수월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처음 봉사대가 시작되어 어떤 봉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걸렸다. 사실 사전교육에서도 말했듯이 많은 학교들이 봉사를 가게되지만 봉사내용의 가장 큰 의미인 희망을 주는 부분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로 똘똘뭉쳐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짜내 우리들만의 자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조차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흥분되는 시간들이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리 많지 않았고, 적은 시간에 많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었다.

모든 봉사 준비가 끝나고 캄보디아로 떠나던 날 걱정으로 시작된 봉사는 프놈펜공항에서부터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프놈펜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무는 동안에도 다음날 우리가 계획한대로 봉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현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터라 두려움도 들었다. 하지만 현지에 추선엽 선생님의 많은 도움으로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현지 사람들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한 봉사는 단지 화장실을 지어주어 용변을 편리하게 처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줄 수 있는 봉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 웃고 팔을 벌리는 것 만으로도 아이들은 그것이 사랑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부채와 크레파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신기하고 쉽게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조금 더 많은 후원을 받아

서 갔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도 들고, 한편으로는 같은 나이대의 우리나라 아이들과 확연히 다른 교육환경과 수준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점점 캄보디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처음 캄보디아에 가겠다고 다짐했던 나의 마음가짐은 많이 도와주고, 많이 주고와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이 아이들의 웃음과 현지인들의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와 표정을 보니 이사람들과 한마디라도 더하고, 함께 웃는 것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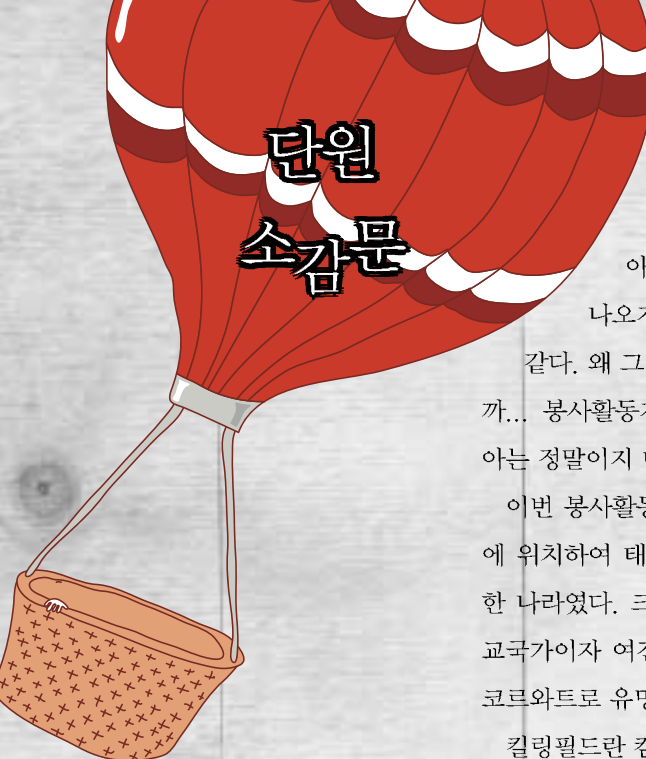
사실 캄보디아 봉사대의 팀장을 맡기 전까지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봉사를 가기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킬링필드’라는 뼈아픈 역사가 숨어있는 나라였다. 크메르단체의 폴포트라는 권력자가 자국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학살 한 사건으로써 그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지식인이거나 의사나 글자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학살한 사건이었다. 또한 병원과 학교등 서양문명의 힘이 닿은 모든 건물을 부수고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려는 욕망으로 캄보디아 문명의 발전은 더더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보고 단지 불쌍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내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진기를 들이밀면 손가락 두 개를 내미는 동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 다를것이 없는 아이들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느끼면서 점점 더 정이 가는 것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탕하나에도 해맑게 웃던 아이들, 감사할 줄 알고 우리에게 꽃목걸이를 만들어줄만큼 주는 것도 아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다.

이번 자치기구 해외봉사대는 나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해준 중요한 포인트 였다고 생각한다.

언제라도 다시한번 기회가 된다면 캄보디아가 아니더라도, 꼭 다른나라에가서 한국을 알리고 또한 많이 느끼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학 때 공부를 하고 영어점수를 올리는 것도 자기발전이지만 돈을 내고서도 배우지 못하는 이 감정을 대학생때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다음 방학 때도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팀장으로서 자원하고싶다.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간다면 더욱 보람차고 많은 것을 느끼고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다. 이제껏 살면서 느끼지못한 따뜻함을 가슴에 담고 한국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러한 기회를 준 삼육대학교에 감사한다.





단원 소감문

주미지

상담심리학과 3학년

누군가 당신에게 캄보디아란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마 잘해야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로 유명한 나라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혹은 겨우 이름만 들어본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자신하냐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들 중 한명이었으니까... 봉사활동지역이 캄보디아라는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 나에게 캄보디아는 정말이지 미지의 땅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하며 공부한 캄보디아란 나라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여 태국,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크메르 언어를 사용하며 국민의 95%가 소승불교를 믿는 불교국가이자 여전히 여왕이 존재하는 왕국. 외국인들에게는 킬링필드와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나라이다.

킬링필드란 캄보디아의 비극적 역사의 현장으로 불과 30여년 전에 내전이 일어난 곳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이름이다. 이때 지식인 계층을 포함한 1/4에 해당하는 자국민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기득권층이 단순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 정말이지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 인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스스로 뿌리 뽑아 버린 그들의 만행이 캄보디아 발전의 역사를 몇십 년 퇴행시켜버린 것이다. 킬링필드 유적지는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이 나라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봉사에 대한 더욱 강한 열망을 불어넣는 자극제가 되었다.

메인봉사지역인 푸삿으로 이동한 우리는 오전엔 화장실짓기를 오후엔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아직 캄보디아에는 화장실을 굴이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지 않아 그냥 들판이나 집주변에 용변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문화는 미관상 안좋은 것은 물론 위생상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화장실짓기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오후에 실시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중요하고도 신중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현지사정에 대해 제대로 사전조사 되지 않아 기존에 우리가 계획한 것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었지만 그곳 주민들의 도움과 봉사

대원들의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해결해나가며 프로그램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교육봉사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이곳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피부를 맞대고 접촉하며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었기 때문인 듯싶다. 빙그레 눈웃음을 지어보이면 그보다 몇천배 더 밝고 화사하게 미소로 화답하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생각날 때면 당장이라도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어진다.

분명 힘들고 아쉬웠던 점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되는 지난 열흘간의 봉사활동은 앞으로 나의 삶에 풍성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불과 한달여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것)의 나라였던 캄보디아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캄보디아가 아니다. 나에게 그곳은 가난하지만 여전히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며 눈에 별을 박아넣은 듯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가진 내 꼬마친구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자 21명의 뜨거운 청춘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아름다운 추억의 나라이다.



단원 소감문

유종석

경영학과 4학년

내가 방문한 이 곳,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생각했었던 봉사활동은 봉사하러가는 지역이나 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봉사자가 도와줌으로써 그 곳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무거운 짐을 옮기고 주변을 청소하고 말벗이나 해드리는 것이 나의 봉사의 모든 것이었다. 그 분들이 편함을 느끼고 웃음을 지으면 난 봉사에 만족했었다. 이때까지 봉사활동은 내게 쉬운 것이었다. 하지만 예비 소집일에 한국 유네스코 관계자분의 강연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 그냥 관광하고 오는 것이다.”, “현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바라.”, “해외 봉사하러 매년 3만 명 정도가 출국하는데 봉사활동지에 대한, 이동하는데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는 생각해 보았는지.”, “본인을 만족시키는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이 아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 “이전에 봉사지에서 했던 프로그램과 중첩되지는 않는가?”, “이 봉사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많은 고민을 일으키는, 우리가 가기 전에 꼭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를 던져주셨다. 내게는 이 문제들이 매우 새로웠고 이 봉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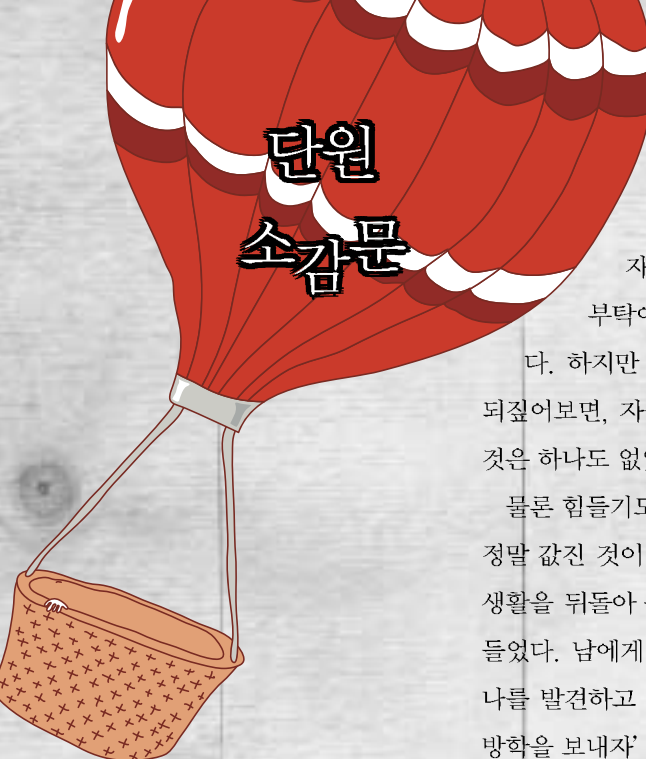
캄보디아 현지에서 화장실 건축 봉사와 교육봉사를 진행하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

에 기뻐지만 머리와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같이 있었다.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여유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세등과 같은 많은 것을 얻어만 왔다. 그 곳 주민들에게 우리의 봉사가 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봉사활동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봉사대 뒤로도 많은 봉

사대가 그 곳으로 봉사하러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선입견이다.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 가난하거나 불쌍하지 않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들은 삶에 만족하고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절대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한다. 교육봉사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는 현지의 상황파악이다. 정확한 현지 상황 파악이 있어야한다. 무엇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알아내서 필요한 교육을 해주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해서 봉사자가 만족하는 봉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크게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진정한 봉사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봉사활동기간 동안 봉사대를 돌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가장 고생한 봉사대 두 대장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



단원 소감문

박건규

신학과 4학년

내가 살면서 나의 봉사 점수를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사실 봉사라는 것을 내가 자진하여서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부탁과, 부탁이 아닌 강요가 더해져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소감을 쓰면서 내가 했던 ‘봉사’라는 이름의 활동을 되짚어보면, 자원도 아니고 강요로 했었던 봉사 활동도 나에게 손해가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같이 봉사를 하면서 얻는 기쁨과 친교와 뿌듯함은 정말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4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앞두고 나의 대학 생활을 되돌아 볼 때, 계속 나를 위해 4년 동안 달려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남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인데,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는 나를 발견하고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 ‘남을 위해 방학을 보내자’라는 생각과 함께 해외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해외봉사를 신청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된 문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봉사는 무엇인가?’라는 문장이다. 사실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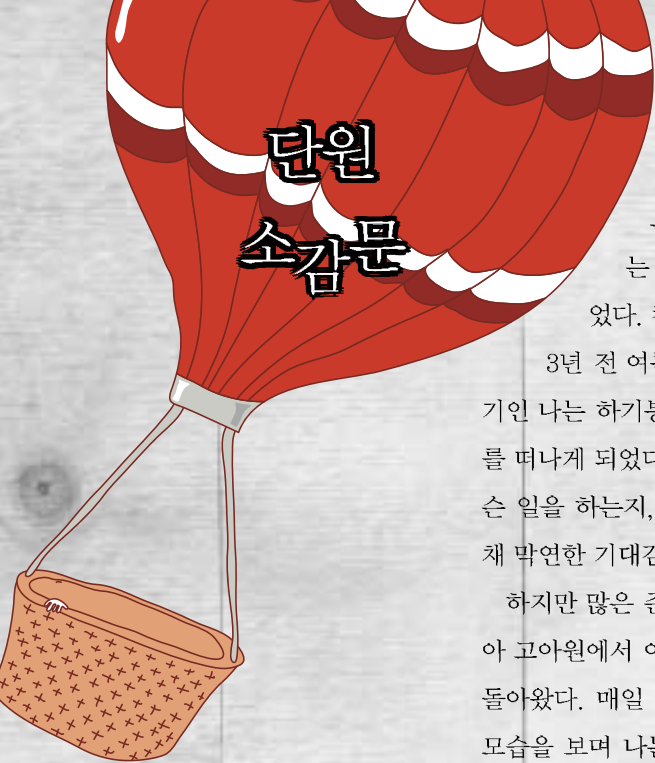
나는 이 질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활동’이라고 적은 기억이 있는데, 사실 너무나 어리석은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봉사라는 활동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했고, 봉사와는 관계가 멀어서 ‘이정도’의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사회봉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취업을 위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장학금을 얻기 위해 필요한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등등, 봉사라는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실한 봉사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남을 위해 한 학기를 보내보자 라고 해놓고, 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좀 더 편한 곳을 찾는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씁쓸한 미소가 지어진다.

감보디아 해외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전해주고 보여주려고 갔지만 오히려 받아 온 것이 더 많은 봉사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친

절은 나의 지친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해주었다. 오전에 진행된 화장실 건설 노력 봉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오후에 진행된 아이들 교육 봉사 역시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과 그들도 더 넓은 꿈을 심어주고 돌아왔다는 생각을 한다.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봉사에 대한 나의 인식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봉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이제 '남을 위하면서 나를 위하는 활동'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재능을 제발할 수 있고, 나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봉사라는 생각을 한다. 봉사를 하면서 대가를 바라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대가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마음의 양식, 자기 제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대가라고 생각한다. 아마 나의 봉사에 대한 인식은 내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더 가치 있는 봉사활동과 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소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다혜

상담심리학과 4학년

단원 소감문

방학을 앞둔 두 달 전, 캄보디아 봉사대 팀이 구성되었으니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봉사대를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캄보디아는 내게 있어 무척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3년 전 여름, 대학에 들어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겁기만 했던 새내기인 나는 하기봉사대로 학과 선배들과, 교수님과 함께 캄보디아로 봉사대를 떠나게 되었다. 사실 그 당시에는 1학년이었기 때문에 봉사대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았던 봉사활동 경험은 내게 무척 큰 수확으로 돌아왔다. 매일 아침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인가 되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빛나는 순수한 눈은 나도 이처럼 순수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의 마음가짐은 캄보디아에 다녀온 이후에 많이 변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건강한 신체, 긍정적인 마음가짐, 편히 먹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자유로움 등 -에 감사하게 되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었고 이는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그 마음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봉사대에 가는 것이 더 끌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쉽게 가겠다고 결심했던 것과 달리 그 준비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열흘도 되지 않는 봉사기간인데 비해 준비기간은 너무도 길게 느껴졌다. 출국 두 달 전의 몇 번의 사전교육과 시험기간에도 계속되는 사전회의,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화공연연습 일정은 사실 뻘뻘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캄보디아에 도착하니 막막하게 느껴졌고 우리가 준비한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쳤다. 땀별에서 땀 흘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도 그 자신감으로 항상 웃으며 일

할 수 있었기에 마음만은 벅찼고 행복했던 것 같다.

캄보디아에 입국해서 만난 봉사대 담당 선생님은 항상 표정이 밝았고 싱글벙글하셨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해맑게 만들었나 하는 궁금증이 커졌다. 그런 호기심으로 선생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여쭙어보니 선생님은 여기서 사는 것이 무척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벗어나니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고, 여기서는 물론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게 살고 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이 곳이라는 생각이라는 생각에 더욱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하셨다. 또한 이곳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무척이나 와 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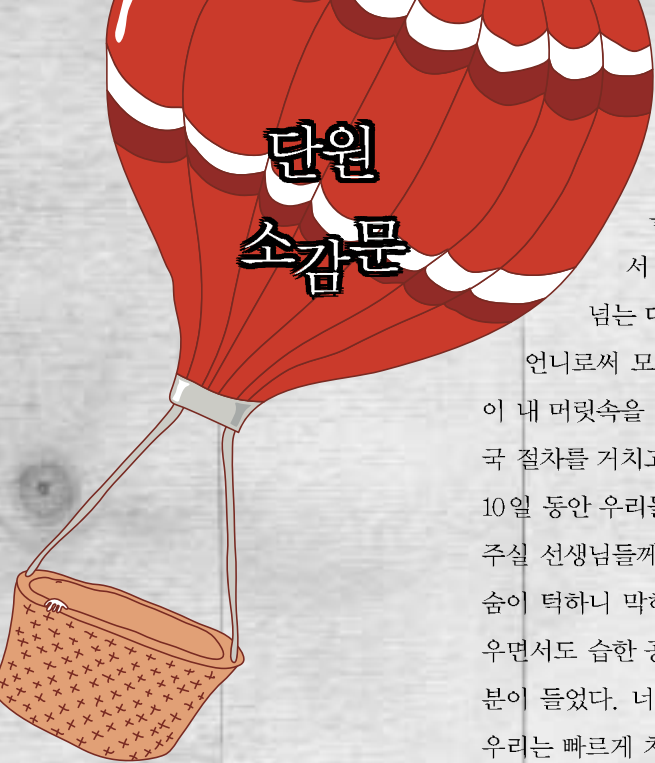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또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봉사기간 내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봉사활동을 하였다. 내가 땀 흘리며 일하고,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한 일로 인해, 나로 인해 기뻐하는구나’ 생각이 들 때마다 느껴지는 행복감이 또한 나 자신을 격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비단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내게도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번 봉사대를 통해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느껴지는 행복감’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은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가 되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앞으로 우리 학과의 리더로서 학과를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서, 또한 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 깨달음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야겠다.



유선진
생명과학과 4학년

단원 소감문

비행기에서 땅으로 발을 내미는 순간 마음이 울렁거림을 느꼈다. 단 며칠밖에 안 되는 봉사기간이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낼 수 있으며,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20명이 넘는 대원들과는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그래도 제일 나이 많은 언니로써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수많은 생각과 부담, 설레임 등이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도착 했다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나서 입국 절차를 거치고 짐을 케리어에 옮겨서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밖에는 약 10일 동안 우리들을 도와 차를 운전해 주실 기사분들과 통역사 역할을 해주실 선생님들께서 맞이해 주셨다. 인사를 하고 차로 이동을 하는데 순간 숨이 턱하니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비행기와 공항에만 있던 우리에게 더 우먼서도 습한 공기가 한 번에 내 몸속으로 들어오니 모든 구멍을 막는 기분이 들었다. 너무 답답해서 땀구멍 하나하나가 막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빠르게 차에 타고 숙소로 이동을 했다. 밖은 불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곳이었다. 캄보디아의 수도라고 해서 왔는데, 웬만한 시골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다. 낮선 간판들, 길게 늘어선 쓰레기, 오토바이들이 모두 나와 단절 된 공간의 것들이었다. 차에서 내려 숙소를 들어가는 입구에는 많은 벌레와 도마뱀이 있었다. 내가 과연 이런 곳에서 10일이나 지낼 수 있을까? 괜히 여기까지 와서 뭐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캄보디아는 나에게 좋지 않은 시작이었다.

2011년 7월 18일

- 프놈펜에서 뽕샷으로.....

창문에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살짝 유럽느낌이 들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높지 않고, 입구부분은 좁고 옆쪽이 길게 늘어진 느낌이다. 다른 곳은 높은 건물들도 짓고 있었다. 이제 점점 선진화 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흡사 우리 70년대 전후의 모습이 느껴졌다.

우리는 내일부터 해야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점심을 먹었다. 우리가 봉사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마지막 한국음식이었다. 한국에서는 잘 먹지도 않던 음식들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국음식이 그리웠는지 남기지도 않고 싹싹 먹었다. 대원들 모두 평소 먹는 양보다 훨씬

씬 더 많이 먹는 듯 했다. 그리고는 다시 버스를 타고 뽕삿으로 출발했다. 차에 있는 동안 밖 풍경이 점점 변화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와 시골의 느낌이 확실히 느껴졌다. 우리가 묵을 숙소에 도착했고, 저녁을 먹고 내일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걱정도 되지만 살짝 들뜬 모습이기도 했다. 내일 새로운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다.

2011년 7월 19일

- 화장실 만들기, 명찰 달아주기, 부채 만들기, 종이접기

뽕삿에서 첫 아침이 시작 되었다. 오전에는 화장실을 지어주는데 21명의 인원이 한 개의 화장실을 짓는데 모두 참여하기보다는 여러 개 조로 나뉘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 적이라고 판단하여 3개의 조로 나뉘서 작업을 하기로 했다. 우리 조는 김현호 선생님과 현지 선생님과 단원7명 총 9명이 한조가 되었다. 하필이면 우리 조 남자 단원이 모두 시멘트 작업을 해 본적이 없었다. 힘을 쓰기에는 좋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힘은 남자들이 쓰면 여자들은 모서리 부분의 시멘트를 메우는 작업을 하였다. 처음 10cm 정도 올리는데 겨우겨우 할 정도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런데 현지 선생님께서 너무 능숙하게 작업을 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살짝 부끄러웠다. 웬지 힘든 일은 안 해보고 자란 온실 속의 화초들 같았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20대 초반의 여자들이 몇 명이나 시멘트를 만져 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가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자랐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서 얼굴이 붉어졌다. 못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웬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운 것도 잊고 열심히 한쪽 면을 다 채울 쯤 신장의 한계를 느꼈다. 이 부분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넘기고, 여자들은 정리하는 쪽을 택했다. 처음 해보는 일여서 서로 일하는데 손발이 안 맞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아 일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다.

오후 프로그램을 위해 장소를 이동했다. 점심을 먹는데, 볶음밥과 계란후라이가 들어있는 도시락이었다. 그냥 먹기에는 싱거운 감이 있어서, 간장과 비슷한 소스와 함께 먹는데, 더워서 인지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인지 반절 정도 먹고 나니 더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에서 음식 먹을 때 내 입맛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와서는 내 입맛이 한국에만 길들여져서 까다롭지 않은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음향 시설을 설치하였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들의 열정은 이런 환경을 이기고 있는 듯 했다.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었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내가 평생 못 잊을 친구 하나를 알게 되었다. 나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환경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인데 우리는 한순간에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썸넵은 우리가 캄보디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면서 통역의 역할을 하였다. 썸넵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우리가 영어도 얘기해주면 아이들에게 캄보디아어로 설명해주었다. 정말 간단한 영어였고, 단순한 의미였는데, 썸넵의

역할로 우리는 아이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명찰을 달아주면 아이들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부채를 만들었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기도 하였다. 부채 그리는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우리는 종이접기를 하기로 했다. 아이들과 같이 종이를 접기도 하고, 너무 어린아이에게는 접어서 주기도 하였다. 비행기를 접어서 서로에게 날리는데, 낯선 우리에게 먼저 비행기를 날리면서 친구가 되어달라는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순수함과 깨끗함이 느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선 안 된다. 위험하니 혼자 다니지 말아라.” 등등 낯선 사람은 항상 경계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보는 아이들의 눈은 투명했다.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 듯 했다. 왜 여기가 행복지수가 높은지 알 수 있었다.

2011년 7월 20일

- 실전화기와 황조롱이

첫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우리는 회의를 하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서로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자신을 칭찬하기도 하였다. 생각보다 첫날 봉사활동이 성공적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왔고, 우리도 아이들에게 최대한 허물없이 다가가려 노력했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동요에 맞는 울동을 서로 맞추고, 남자들은 황조롱이 만드는 법도 배우고,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침이 밝았다. 그래도 하루 해봤다고, 화장실을 만드는데 분업이 있었고, 벽을 옮길 때도 요령이 생겼다. 방향도 맞추고, 시멘트 섞는 일도 점점 손에 익어가면서, 서로를 칭찬했다. 더운 날씨였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봉사단원끼리만 일을 하는 점이었다. 거기에 있는 현지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가 만들어주고 온다는 개념보다는 화장실 만드는 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나눠주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정을 나누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을 갈 때 한번쯤은 그 하늘색 조끼를 입고 와서 화장실 만드는데 같이 도왔던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까?

다시 오후프로그램을 하러 첫날 그 장소로 갔다. 누가 봐도 첫날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 있었다. 새로운 아이들에게 이름표를 만들어 주고, 같이 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날 준비한 황조롱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산만하고,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국적이 달라도 같았다. 갖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황조롱이에 집중하는 모습이 작은 천사 같았다. 황조롱이를 완성한 아이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었지만,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은 모두 같았다. 하나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이 아이

들이 우리를 통해 꿈을 가지고,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2011년 7월 21일

- 월드컵체조, 개구리 송, 비눗방울 그리고 에어로켓

첫날부터 계속 내가 신경 쓰던 아이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스라잇넷” 다른 아이와 달리 이름도 길고, 수줍음도 많은 여자 아이이다. 동생과 엄마와 함께 와서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곤 하였다. 첫날에 비행기를 만들어 주어도, 팔자를 만들어 주어도 그저 웃기만 할 뿐, 같이 놀아달라고 비행기를 던지거나 하지 않았다. 둘째 날에도 황조롱이를 만들기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미리 완성된 제품을 챙겨주기도 하였다. 수줍음이 많은 여자아이는 내가 오면 베시시 웃기만 할 뿐이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울동을 많이 하였고, 아이들을 무대로 데리고 와서 울동을 하는데 스라잇넷이 내 쪽으로 다가왔고, 같이 무대로 올라가서 울동을 하였다. 3일 만에 아이가 나에게 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와 떨어져 나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이런 감동 때문에 봉사에 중독이 되는 구나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모습에 부담감도 있었지만, 뿌듯함과 따뜻함이 전해졌다. 아이들이 우리의 손을 아무렇지 않게 잡고, 웃고, 안는 모습을 통해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무대에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울동을 하고 있자면, 아이들의 투명한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웃고, 내 울동을 따라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무대에 계속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비눗방울 놀이였다,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었고, 단원들은 아이들이 부는 비눗방울에 눈을 못 뜰 정도였다. 나는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액체를 낮게 들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다른 단원보다 더 많은 비눗방울을 온몸에 맞았고, 물티슈로 닦아도 얼굴이 미끈미끈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에어로켓이었다. 에어로켓을 만드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집에 갈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나무 밑에서 비를 잠시 피했다가 다시 와서 만들기도 하고, 비를 맞으면서 같이 만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비가 오는데 피하고 만 있을 수 없어서, 다 같이 비를 맞으면서 아이들과 뛰어 놀았다. 웬지 어릴 적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2011년 7월 22일

-뽕밭에서 마지막 봉사활동

오늘도 역시 오전에는 화장실을 만들었다. 마지막 날이라고 다들 선수가 된 느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장소를 빨리 떠났어야 했다. 어느 날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면서 기세등등해서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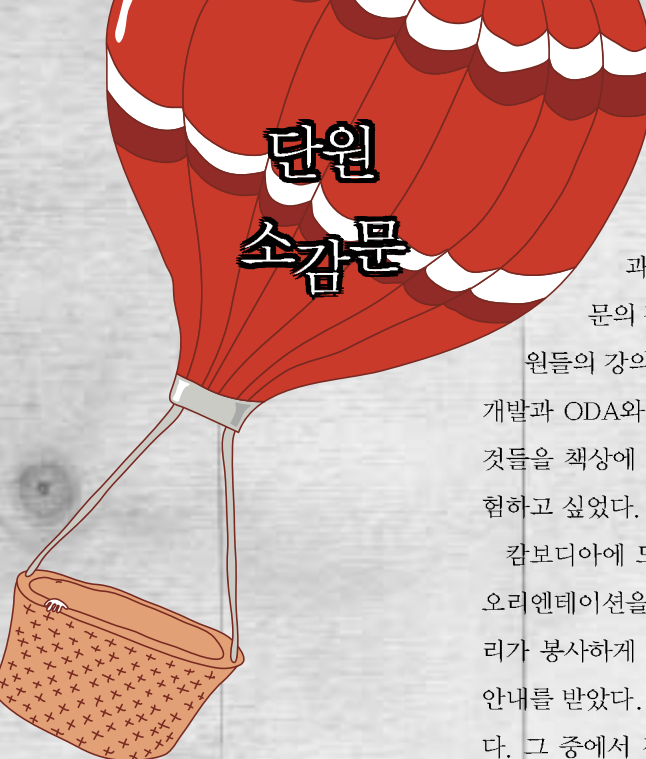
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닥도 조금 빼푹고, 벽도 조금 기울어진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최대한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일이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에 전문가라는 젊은 캄보디아사람이 한분 오셨다. 키도 작고, 체격도 작아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느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윤기가 지붕을 마무리 짓고 있고, 우리는 이미 작업이 끝나서 물 한 잔씩 마시면서 잘했다고 감탄하고 있는 그때였다. 벽 쪽에 막대기 하나를 고정시켜놓고선 시멘트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하루종일 했던 작업을 한 2-3분 만에 아무렇지 않게 척척척! 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창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로 한국에 가서 할 일없으면 시멘트 작업이라도 해야겠다면서 서로를 기술자라며 비행기를 띄웠던 우리앞에 정말 기술자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입이 다물어 지지 않았다. 우리는 윤기를 조용히 불러 빨리 작업을 마치고 그 자리를 떴다.

오후에는 우리가 씨엠립에서 하려 했던 공연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레크레이션을 같이 했다. 남자들은 태권도, 여자들은 수화, 사물놀이 합창을 준비해서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모습에 신기해하면서 같이 따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중간에 찬식옴빠가 태권도를 하다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이 웃어버렸다. 진짜 진진한 모습으로 임해야 하는 태권도였는데 그런 재밌는 모습을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었다. 그 상황이 '웃기다'는 것은 한국인이나 캄보디아 인이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준비한 공연을 마치고 레크레이션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라는 게임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서로 떨어지기를 싫어서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도 귀여웠고, 떨어졌다고 울듯 한 표정으로 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다. 보건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비누로 손 씻는 것도 가르쳐 주고, 양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즐거운 표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가져간 많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같이 줍고, 물건을 날랐다. 아이들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다. 우리 친구 썸넝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우리도 쉽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썸넝과 악수를 하는데 눈물이 흘러버렸다. 제일 언니로써 항상 동생들에게 든든한 언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제일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것도 아니었다.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같이 웃었을 뿐이고, 같

이 손을 잡았을 뿐이고, 한번 안아줬을 뿐이고, 내가 가진 것과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쉬움과 슬픔이 나에게 눈물이 되어서 흘렀다. 이 아이들과 또 다시 만나는 기회가 나에게 올까? 혹시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거나, 관광을 하게 된다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마저 생기게 했다.

습하고 덥고 답답한 이 나라의 날씨도 적응해 하고, 여기의 음식도 적응해 가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모습에도 말투에도 미소에도 적응이 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다. 여기를 떠나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과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원 소감문

하홍준

신학과 3학년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해외봉사를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지난 학기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교양 과목을 수강했었다. 전 세계 빈곤국을 위해 현장에서 혹은 학문의 장(場)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단원들의 강의를 매주 들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국제개발과 ODA와 관련된 많은 용어와 개념, 학문적 이슈들과 문제점까지 이것들을 책상에 앉아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배우고 체험하고 싶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자 우리는 먼저 ADRA 캄보디아 사무실에 방문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ADRA의 사업들과 우리가 봉사하게 될 ‘뿔삿’ 지역에 대한 소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등의 안내를 받았다. 현지 코디네이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그 중에서 결코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 돈 등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특이할 만하다.

“물건만 건네 주는 건 굉장히 쉽지만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캄보디아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을 갖고 봉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RA 캄보디아는 현지인들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처음엔 화장실을 무료로 저주니,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서 창고로 쓰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보수로 일을 시키고 캄보디아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가 열흘 남짓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현지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엔 장기간동안 현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을 위해 헌신하며 일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었고 그들의 지원활동은 계속 된다. 또한 매년 수많은 원조물자들이 캄보디아로 들어온다. 우리가 열흘 동안 머물면서 했던 오전의 화장실 짓기, 오후의 교육봉사, 연필, 크레파스, 비누 등의 생필품과 학용품 몇 박스는 어쩌면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들이 현장 체험을 통해 해외원조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을 얻고, 참여의지를 갖게 된 것. 현지 주민들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감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게 된 것은 훨씬 더 값진 수확이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전 세계는 이러한 우리만의 특별한 개발 노하우와 경험을 원조 수혜국들에게 전수하길 기대하고 있다. 훗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젊은이들에게 이번 해외봉사는 귀중한 경험임에 틀림없다.



한중교류모임

목적 및 취지

1. 국제화시대에 꼭 필요한 국가관 확립 및 평화와 협조를 통한 상생을 배움.
2.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함께 봉사하므로 이상적인 양국관계를 위하여 기여하게 됨.
3. 봉사활동을 통하여 본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학과에서 배운것들을 실천하며 나누는 기회의 장으로 삼는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중국 장춘
파견기간	2011년 7월 26일~ 2011년 8월5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1명 - 대장 : 1명 - 대원 : 9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대륙선교회 및 사랑의 집(한국식당)
활동내용	한중 문화교류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술학교, 청년을 대상으로한 한글학교를 진행.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7월27일(수)	장춘	31	미술학교(자기소개 및 초상화), 한글학교(자음모음 및 자기소개법)	
7월28일(목)	장춘	33	미술학교(풍경화), 한글학교(상황별 인사말 및 감정표현)	
7월29일(금)	장춘	33	미술학교(종이 접기), 한글학교(물건 사기, 환전하기)	
7월30일(토)	장춘	32	미술학교(자유주제 및 게임), 한글학교(육하원칙에 의한 한국말)	
7월31일(일)	장춘	34	미술학교(아트북 만들기), 한글학교(여행 시 필요한 회화), 문화교류	
8월1일(월)	장춘	19	활동장소 청소, 물품정리 등 정비활동	
8월2일(화)	장춘	15	남호둘러보기및 현지문화체험	
8월3일(수)	장춘	22	현지시장방문및 현지 청년들과 교류모임	
8월4일(목)	장춘	10	이동준비및 휴식 장춘에서 대련까지 기차로 이동	
8월5일(금)	대련	10	비행기 편을 이용하여 대련에서 한국으로 이동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정해섭			대원교육 및 지도	
대장	김보람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	미술학교	
2	정소영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	미술학교	
3	김경민	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미술학교	
4	김안나	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미술학교	
5	안지혜	영어커뮤니케이션	4	레크레이션	
6	주악	영어커뮤니케이션	2	레크레이션	통역
7	오승미	중국어과	2	한글학교	통역
8	이가은	중국어과	2	한글학교	통역
9	박주연	중국어과	2	한글학교	통역
10	김경미	중국어과	2	한글학교	통역



활동사진 자료집

- ① 프로그램 홍보
- ② 모듈별 한글교습
- ③ 미술학교 진행
- ④ 미술학교
- ⑤ 문화교류 활동
- ⑥ 개인별 한글지도

단장 소감문

정해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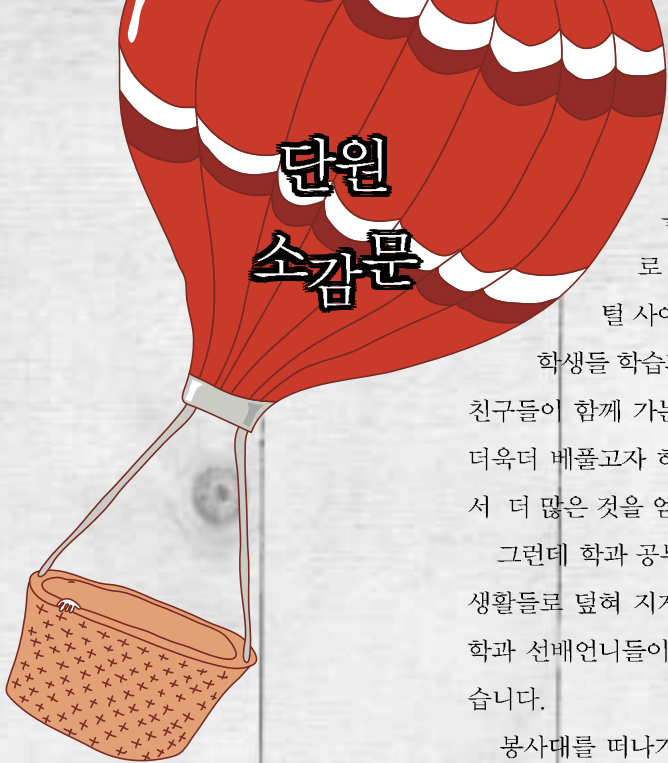
한중교류모임팀 지도교수

감사
합니다.
하나님!

봉사대 결산을 하는 자리이면 우리는 매일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나눈 사람이 “하나님!” 하면 나머지 사람이 다같이 “감사합니다!” 했다. 정말 그랬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했다. 그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중국에 오랜 관심이 있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다. 처음이라 그런지 어떤 봉사대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다. 대원들은 기존 한중교류모임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학생들이지만 학생들 상호간에 잘 모르는 면들이 있어서 비록 1박2일의 자체 캠프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었다. 또 다른 봉사활동을 끝내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학생들의 체력적인 부담까지 생각하니 쉽지 않은 봉사대였다. 경비를 줄여야 학생부담이 줄어든다 생각하니 인천-장춘직항을 타지 못하고 대련에서 기차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장춘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침대칸을 타기로 했다. 아이들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표를 끊고 나서 현지 선생님께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침대칸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이 여학생들이라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몰라 겨우 공항에 가서야 사실을 이야기했다. 참 고맙게도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이해하고 받아들이 줬지만 사실 내 자신이 힘들었다. 공항에 미리 도착했기에 서둘러 짐을 부치고 여유있게 탑승할 생각으로 줄을 서서 수속을 기다리다 드디어 카운터가 열렸는데 직원이 난데없이 밀(meal) 쿠폰을 주면서 12시에 다시 와 보라는 것이다. 항공기 연결관계의 문제로 본인들도 정확한 출발시간을 말할 수가 없단다. 청천벽력이었다. 12시는 우리가 대련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마중나오는 분들은 이미 그곳대련에 어제밤에 도착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을 많이 하다보면 이런 일들도 있구나’ 싶었지만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미리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원과 마중나온 분들에게 당장 연락할 방도도 없다. 기차는 예정된 시간에 출발을 할테고, ... 순간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먼저 마중 나오신 선생님 사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설명을 하고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그래도 그곳에 답사를 위해 미리 가있는 중국유학생 주악이는 영문도 모르고 기다

리고 있을 텐데 . . . 순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직원에게 카운터에 항공사 사무실이 어디있는지 물으니 주저하면서도 가르쳐 준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리스도인의 신사다움을 잃지 않고 은혜롭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도와주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맞아 주면서 상황을 듣더니 어디론지 연락을 한다. “곧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출발하지 못해서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카운터로 가십시오” 한다. 학생들을 서둘러 수속을 밟는데 이미 일반석은 자리가 없다며 직원은 프리스티지석을 드려도 되겠냐고 묻는다. 그야 당연히 “YES” 지! 예정 시간 보다 더 빨리, 승급된 좌석으로 거기다 1인당 만원씩 지급된 음식을 한 아름씩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다른 봉사활동으로 지친 대원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 침대칸을 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최고의 비행기를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시다.!!!



김안나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3학년
미술학교 담당

장춘 다녀와서 봉사대를

사회에 대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 현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봉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자원 봉사에 지원하여 복지센터에서 초등학생들 학습과 미술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과 교수님과 친구들이 함께 가는 몽골 봉사대에 지원하면서 점점 봉사에 대한 보람과 더욱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봉사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과 공부와 바쁜 일상으로 봉사는커녕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활들로 덮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같이 학교 축제에서 만난 학과 선배언니들이 추천을 한 이번 봉사대를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대를 떠나기 전 봉사대 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비행기가 연착되고, 대련에서 창춘까지 10시간이 넘는 기차를 타고, 첫 날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이 넘는 봉사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보듬어 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장춘 봉사대를 끊임없이 후원해 주는 많은 중국 현지분들과 선교사님, 매일 안부를 물어 주시는 목사님들 덕분에 큰 탈 없이 봉사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하고 있는 과 특성을 살려 오전에는 아이들 미술 학교 시간을 오후에는 청년들 한글 학교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책임감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을 더 크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만 통하면 못 해 낼 일도 없고, 안될 일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에 대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이해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단원 소감문

오승미

중국어과 2학년
한글학교 담당

중국 장춘 봉사대를 가기 전에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대원들과 모임을 갖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번 봉사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번 봉사대는 7월 26일부터 8월 5일 11일간 진행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5명, 중국어과 4명, 영어커뮤니케이션과 2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크게 3가지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에서 주체적으로 준비한 '미술봉사', 중국어과가 주체가 되는 '한글봉사', 영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주체가 되는 '문화교류'입니다.

미술봉사시간에는 커디과 친구들이 미술지도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통역을 하고 한글교육봉사시간에는 중국어과 친구들이 한글을 중국어로 가르치고 나머지 친구들이 발음을 교정해주는 식으로 서로서로 도와가며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대원 사이의 유대감도 더 깊어진 것 같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맡은 한글교육을 준비하며 교재도 만들고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중국친구들 앞에서서 교육을 하려하니 생각만큼 잘 하지 못 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처음 저희 봉사(문화교류)를 중국친구들에게 광고할 때 무섭기도 하고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중국친구들도 처음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면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들 수도 있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좋아해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뻐했습니다.

이번 중국 장춘 봉사대를 통해 제 스스로 느끼고 배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이 3번째 해외봉사인데 그 어느때 보다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분들, 친구들과 좋은 인연 많이 만든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봉사대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
춘
봉
사
대
를
다
녀
와
서

단원 소감문

정소영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4학년
미술학교 담당

장춘 다녀와서 봉사대를

우선 중국봉사대 내내 힘들다기보다는 행복 가득한 봉사대였다.

가기 전에는 처음 가는 봉사활동에 걱정이 많았다. 과연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하지만 봉사활동 생활을 해보니 물론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런 힘들음을 이겨낼 만한 즐거움이 가득한 중국 봉사대였다. 하루 아침을 성경공부로 시작해서 조원들끼리 성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다. 상쾌한 아침을 성경으로 시작하니 웬종일 무언가 정리된 기분으로 목적을 가지고 차분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미술학교를 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서 매우 뜻깊었다. 첫시간에는 아이들이 서먹해하고 어색해했는데 나중에는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그리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 더불어 말이 안통했지만 그림으로 그런 답답함이 싹 가셨다. 짧은 시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미술학교였지만 가르침의 즐거움도 맛 볼 수 있어 좋았다.

점심을 먹고 봉사활동 홍보에 나섰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낯선 중국인들에게 말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한 두번 해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나중에는 좀 더 즐기면서 홍보를 할 수 있었다. 중국인들도 처음에는 머뭇거리다 문화교류 시간에 참석해주니 무더운 날씨에 홍보했던 시간들이 뿌듯하게 느껴졌다. 비록 말이 안통하지만 손짓, 발짓으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봉사대였다. 한글교실 이후에는 중국친구들과 수업시간에 배운 한글을 토대로 게임도 즐겼는데 한국말로 게임할때는 쉽게 할 수 있었지만 배려차원에서 중국말로 게임을 진행했을 때는 답답함과 긴장감 속에서 게임을 하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짜증난 것이 아니라 더 재미있고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그런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다음 한글교실에서는 중국친구들에게 더욱더 천천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

봉사활동 기간동안 현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봉사활동에 오기 전에 중국어 회화를 어느정도 배워올걸 하고 아쉬운 순간이 많았지만 봉사활동이 끝날 때 즈음에는 서로 말이 안통하지만 눈빛으로 알아듣고 의사전달이 되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심이 통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물끓었다. 나의 대학생할 마지막 여름방학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었는데 그 소망을 이룬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었다.



유아교육학과

목적 및 취지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로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홍콩의 대학생들과 문화교류캠프에 같이 참여하여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기쁨을 경험하므로 홍콩 삼육대학과 삼육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홍콩 삼육대학
파견기간	8월 1일 ~ 9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2명 - 대장 : 1명 - 대원 : 15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삼육대학교, 홍콩 삼육대학
활동내용	한, 홍콩 청년 문화교류 캠프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8. 2	홍콩삼육	70	개회식, 소그룹활동, 야간 게임	
8. 3	홍콩삼육	70	소그룹활동, 해변 야외활동, 국가별 문화소개	
8. 4	홍콩삼육	70	야외활동 게임, 소그룹, 폐회식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최수동	유아교육과	4		
지도교수	이유진	유아교육과	4		
1	김은지	유아교육과	4		
2	한소라	유아교육과	4		
3	오한나	유아교육과	4		
4	김신애	유아교육과	4		
5	유효주	유아교육과	4		
6	김지원	유아교육과	4		
7	구다예	유아교육과	4		
8	류제연	유아교육과	4		
9	유미연	유아교육과	4		
10	김유라	유아교육과	4		
11	박민정	유아교육과	4		
12	정별이	유아교육과	4		
13	정다연	유아교육과	4		
14	박가연	유아교육과	4		



활동사진 자료집

- ① 홍콩 도착 ! 유아교육과 홍콩 봉사대
- ② 사물놀이 공연
- ③ 문화 공연 부채춤
- ④ 가스펠 캠프 참가자 단체 사진
- ⑤ Cooking Competition







단장 소감문

최수동

유아교육학과 교수

삼육학생들과의 우정 홍콩

홍콩 삼육대학은 본교와 자매대학이지만 그동안 활발한 교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그 대학의 교목으로 봉사하는 조해준 교수와의 협력을 통하여 유아교육과 학생 14명과 지도교수 2명이 한, 홍콩 청년 문화교류 캠프를 개최하기 위하여 봉사대로 방문하게 되었다.

홍콩 삼육대학은 전교생이 70여 명 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지만 이번 캠프에 50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첫날 시작된 자기소개와 장기자랑,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서서히 얼굴을 익힌 한, 홍콩 양국의 젊은이들은 금방 친하여져서 모든 프로그램이 열기가 넘치게 진행되었다.

특히 한류 붐을 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지 분위기가 도움이 되었다. 본교 학생들이 준비해 간 한국 민속공연에는 모두가 났을 잃고 바라보았다.

젊음은 자연스럽게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언어의 역할을 한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젊은 영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연결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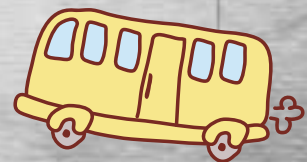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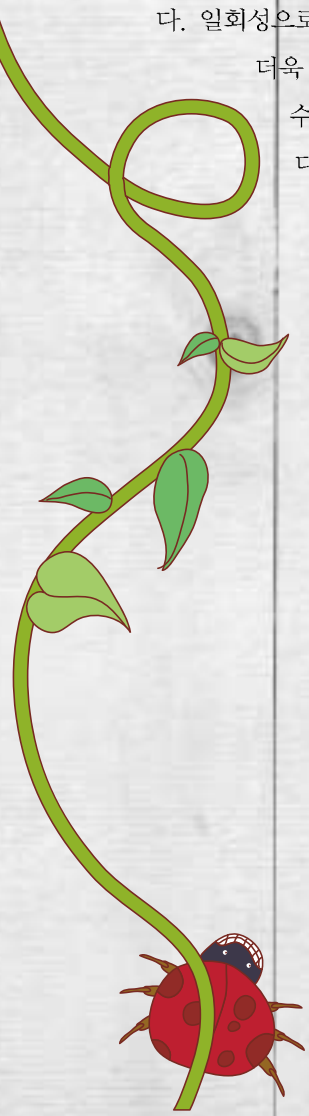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런 자매대학과 보다 활발한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리 만큼 이번 봉사대를 통하여 새로운 봉사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자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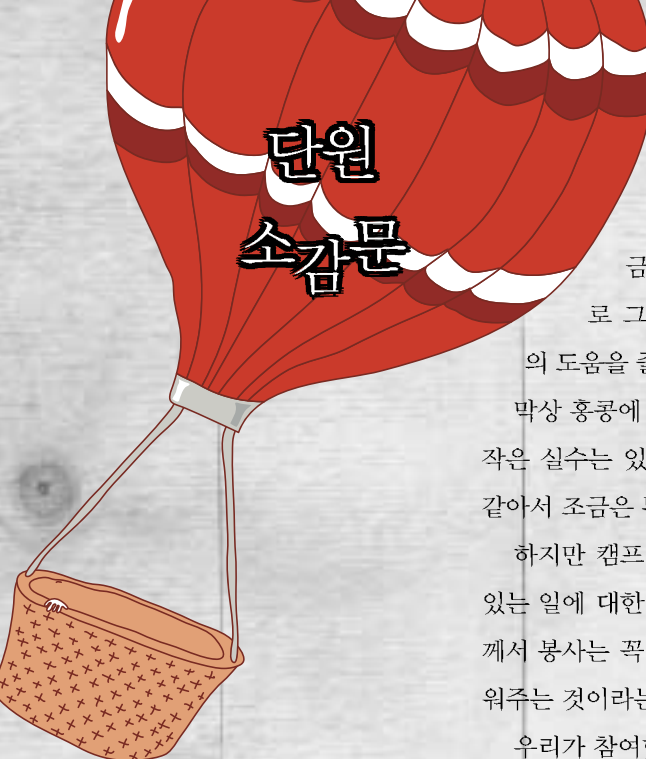
물론 저개발지역에 가서 노력봉사를 통하여 현지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한류 붐에 의하여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변국에, 특히 자매대학이 있는 곳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서, 먼저 세계적인 삼육대학의 네트워크를 실감할 수 있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대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를 그들 앞에 당당히 소개해주는 기회를 통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캠프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지도에 대한 실습도 되고 처음 보는 외국학생들과의 친목을 통하여 국제적인 인맥을 쌓는 계기도 되었다.

삼육이라는 공통된 이름 아래에서 만난 양국의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미래의 교류와 우정을 생각해볼 때 이것은 우리 학교와 개개인 학생들에게 커다란 자산이 된다고 믿는다.

이번 봉사대를 계기로 매년 양교 간의 상호 교류 캠프가 이어졌으면 한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 다음 학년도 학생들이 이어서 이러한 캠프를 진행해 간다면 더욱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고 전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도 이 캠프를 운영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획해야 하겠다.





단원 소감문

오한나

유아교육과 4학년

방학 동안 정기적으로 모여 봉사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을 계획하며 ‘그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라는 생각에 조
금은 위안을 삼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이 실제
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인지, 또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한 만큼
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여전히 걱정이었다.

막상 홍콩에 도착하고 나서는 준비한 일정대로 캠프가 진행되었고 크고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본래의 의미는 잘 지켜진 것
같아서 조금은 뿌듯하다.

하지만 캠프 동안에도 여전히 나는 봉사에 대한 개념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내 생각에 대해 이유진 교수님
께서 봉사는 꼭 큰 고생을 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채
워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봉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가 참여했던 캠프의 이름은 ‘Hong Kong Korea Youth Cultural
Communication Gospel Camp’ 였고, 의미는 홍콩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친구가 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다. 우리가 했던 일은 이것을 위
한 캠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밤새서 준비하
고 연습했지만 그래도 긴장이 되기도 했고 작은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
기도 했다.

물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
은 홍콩의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이해하는 것이었고, 지금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들의 작은 실수보다는 홍콩 친구들의 얼굴이
기에 이상하게도 어찌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덜 열심히 준비하고 덜 집착했
다면 더 많은 추억이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봉사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느 순간 나는 우리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은 더 많이 주고 오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너무 많이 받아서 고마운
마음이 든다.

또 홍콩에서 머무는 동안 겪었던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데 너
무 많아서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흑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힘들까
봐 우리 모두를 집에 초대해서 한국음식을 대접해주신 사모님과 선생님 덕

에 갔던 일, 일정이 너무 힘들어서 모두들 약간 힘들어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Small Group Meeting, Cultural Night공연을 준비하려고 밤새서 연습했던 것들, 홍콩 친구들과 밤새 게임을 했던 일, 정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조가 1위를 한 순간, 시장에서 친구들과 똑같은 팬더 인형을 산 것,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고 편지를 받았던 일들, Secret angel이 된 것, 우리를 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길 안내를 해줬던 친구들 모습들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이 캠프를 준비하셨던 선생님들과 현지에 있는 언니들의 도움도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교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성격이나 특성도 아니고,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아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단원 소감문

박민정

유아교육과 4학년

대학생활 4년을 돌이켜보니 이렇다할만한 활동이 없었다. 그 때 눈에 들어온 해외봉사대원 모집 글. 처음에는 그저 스펙 좀 쌓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우리 팀이 계획한 것은 사물놀이, 한국 전통춤, 전통 놀이 나눔 등을 통한 우리 문화 알리기였다. 그런데... 내가 맡게 된 역할은 전통 한삼춤과 부채춤... 덕분에 학기 중, 방학을 가리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봉사대 신청한 것을 후회할 때쯤 홍콩으로 떠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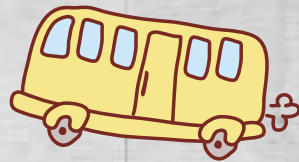
홍콩캠퍼스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바로 우리 팀과 홍콩 팀의 뽀뽀한 일정 조율이 시작되었다. 인사차 모이는 자리인 줄 알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맞추려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다음날 캠프가 시작되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당으로 가니 홍콩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친구들이 와 있었다. 그 친구들 덕분에 더욱 글로벌한 느낌을 받았고, ‘내가 큰일을 하러 왔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첫 날은 서로를 소개하고 친해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룹을 나누어 팀명과 구호를 외친 뒤 우리가 준비해 간 게임을 진행했는데, 그 쪽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우리 팀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 홍콩 요리 콘테스트를 열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러 가지 맛있는 홍콩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다.

더불어 우리 교수님들의 음식솜씨도 엿볼 수 있어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었고, 홍콩 친구들이 준비한 전통게임을 다 같이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번 봉사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우리 팀의 공연시간. 오랫동안 연습했던 사물놀이, 한삼춤, K-POP댄스, 부채춤을 보여주었는데 황진이 못지않은 아름다움으로 (2) 홍콩 친구들을 사로잡았다. 공연이 끝난 뒤, 친구들에게 부채를 선물하고 서로 메일 주소를 교환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마 봉사대에 오지 않았으면 흐지부지 지나갔을 9일 동안, 새로운 문

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왜 기업이든 어디든 해외봉사활동을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다. 8박9일 간의 짧은 일정 속에 홍콩에서 있었던 일들은 오래토록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캠프에 함께 참여했던 팀원들, 홍콩의 친구들, 스텝 분들, 교수님들 까지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쉐어힘 A

목적 및 취지

해외 선교를 실습을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여서 그 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전해주기 위함 이었다. 팜팡가 지역의 모든 인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치료 봉사를 함으로써 그 곳 사람들에게 꿈과 사랑의 정신과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필리핀 / 팜팡가 지역
파견기간	6월 26일 ~ 7월 6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1명 - 대장 : 1명 - 대원 : 18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천명선교사 기관
활동내용	- Sharehim 전도회 - 필리핀 지역 주민을 위한 예배, 어린이교육, 집집방문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26(일)		7명	어린이부 준비, 집집방문	
27(월)		10명	설교, 기도, 어린이부, 집집 방문	
28(화)		10명	설교, 기도, 어린이부, 집집 방문	
29(수)		5명	설교, 기도, 어린이부, 집집 방문	
30(목)		5명	설교, 기도, 어린이부	
7.1(금)		5명	설교, 기도, 어린이부	
7.2(토)		5명	설교, 기도, 어린이부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전한봉	신학			
대장	전성현	신학	2		
2	송유석	신학	4		
3	장지은	신학	2		
4	문민영	신학	2		
5	박성현	신학	2		
6	김경현	신학	2		
7	송인혁	신학	2		
8	지승천	신학	2		
9	김안식	신학	2		
10	김영광	신학	2		
11	김도윤	신학	2		
12	김아람	신학	2		
13	이보람	신학	2		
14	이진주	신학	2		
15	정성민	신학	2		
16	이요셉	신학	2		
17	채동현	신학	2		
18	강우성	신학	2		
19	김예인	신학	2		



활동사진 자료집





쉐어힘 B

목적 및 취지

해외 선교를 실습을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여서
 그 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전해주기 위함
 이었다. 팜팡가 지역의 모든 인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치료 봉사를 함으로써 그
 곳 사람들에게 꿈과 사랑의 정신과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개요

파견국 및 봉사장소	Philippines, Romblon
파견기간	7월 12일 ~ 8월 2일
파견인원	- 지도교수 : 1명 - 대장 : 1명 - 대원 : 9명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	Sharehim
활동내용	Sharehim 전도회

봉사일정 및 내용

일정(날짜)	장소	참여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11.07.13	룸블론	10명	쉐어힘 오리엔테이션	
11.07.14 ~ 08.01	룸블론	10명	쉐어힘 전도회	

팀 명단(팀 구성)

NO	이름	학과	학년	담당	비고
지도교수	이국현	신학			
대장	신준민	신학과	2		
2	강유영	신학과	2		
3	박현주	신학과	2		
4	배대은	신학과	2		
5	김재진	신학과	2		
6	오효석	신학과	2		
7	권혁성	신학과	2		
8	김의준	신학과	2		
9	이예림	신학과	2		
10	서현석	신학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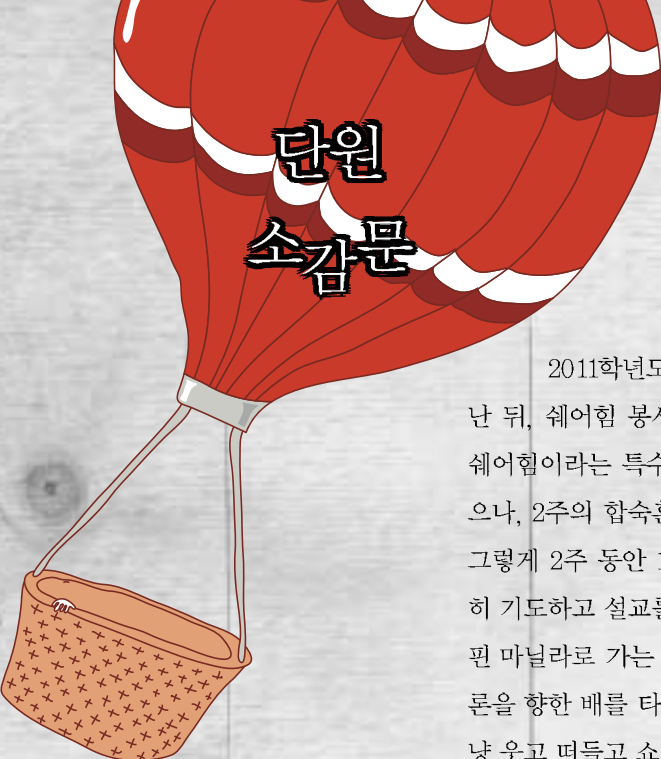


활동사진 자료집

- ① 첫날 전도회를 하러 가기 전
- ② 교인들과 함께
- ③ 안식일학교 특창
- ④ 필리핀 SSD에서
- ⑤ 각자가 Sharehim 전도회를 할 교회에서
- ⑥ 마지막 안식일날 침례식.







단원 소감문

Marble Paradise, Romblon!

신준민

신학과 2학년

2011학년도 1학기에 2학년으로 복학하고 정신없이 1학기를 보내고 난 뒤, 웨어힘 봉사대를 위하여 6월 말부터 합숙훈련을 시작하였다. 물론 웨어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숙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2주의 합숙훈련기간은 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2주 동안 10명의 웨어힘 speaker들이 각자의 site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드디어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 안에 몸을 실었다. 마닐라에 도착하여 다시 롬블론을 향한 배를 타기 전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마치 여행객인 것 마냥 웃고 떠들고 쇼핑하며 몇시간을 보냈다.

롬블론으로 향하는 여정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생략을 하고, 드디어 롬블론이라는 조그만 섬에 도착을하고 우리의 숙소인 DEWATA 호텔에 도착을 하였다. 날씨가 정말 좋았다! 숙소 앞으로 펼쳐진 필리핀의 바다는 합숙훈련에서의 모든 힘들었음을 한방에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내가 간 site는 Ilauran이라는 곳의 한 집에 텐트를 치고 전도회를 하였다. 그런데 그 집이 그냥 평범한 분의 집이 아니라 그 지역의 captain의 집이었다는 것, 그 지역의 captain이 우리 교인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다. 드디어 첫날, 금요일 저녁! 나의 첫 전도회(그것도 영어로)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에 통역자가 함께 설교를 하게 되었다.

첫날과 둘째날(안식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다. 너무 긴장하고 처음이고해서 그런지 나의 설교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있는지 생각조차도 나지가 않는다. Ilauran은 숙소에서 van을 타고 1시간 20분여 정도를 달려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설교가 마치 자마자 다른 친구들을 태우러 가야하는 실정이지 많은 사람들과 변변찮은 이야기하나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그렇게 일주일지 지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형, 저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

러움 반 자책감이 반 씩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일부러 설교가 끝나고도 좀 기다렸지만 통념상의 인사와 몇 마디 정도 밖에는 서로 오가지 않았다.

물론 전도회를 목적으로 간 곳이었지만 나는 그들 마음 문이 먼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더더욱 안타까웠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마지막 날 밤이 되었다. 필리핀에서는 social night라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 speaker들이 전도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에 그 행사를 하게 되었다. 롬블론 7-8개 되는 교회가 한 곳에 모이기는 쉽지가 않다. 차비와 시간이라는 작지만은 않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날은 정말 내가 잊지 못할 저녁이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청년들이 그것도 가장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social night 장소에 일찍 온 것이었다. 우리는 행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길어야 1시간 남짓 되는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행사는 저녁 6시부터 12시 자정이 되어서야 마쳐졌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너무나도 힘이 넘쳐났다. 집으로 향하는 그들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했다. ‘조금 더 잘해줄걸, 내가 너무 무관심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1시 배를 타기 위하여 항구에 도착한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어제 그 밤늦게 돌아간 청년들이 새벽에 지프니를 타고 나와서 내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눈물을 안 흘리고 말리라는 다짐은 그들의 눈물 앞에서 깨어졌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작별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또 한번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눈물의 인연이 하늘까지 닿기를...

단원 소감문

강유영

신학과 2학년

3 주간의

다녀와서 : 해외봉사

7월 12일부터 8월 2일 까지 20일간 필리핀으로의 해외 봉사대는 생각했던 것만큼 기록치는 않았다. 말이 해외 봉사대이지 난생 처음으로 해외에서 speaker 로서 한 교회를 맡아서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

었다. 우리가 16일간 설교하게 된 곳은 Romblon 이라는 크지 않은 섬이었다. 그 곳은 마닐라에서 2시간정도 차를 타고 항구로 가서 15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정도 되는 크기의 섬이었다. 그리 크지 않았지만 7개의 SDA 교회가 있었다. 필리핀의 7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것에 비하면 그나마 Adventist가 많은 지역이었다.

15일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 첫 설교를 위해서 각자 많은 교회를 확인하고 돌아보았다. 그리 크고 시설들이 좋진 않았지만 아담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교회가 나한테 알맞은 교회 같았다. 그날 저녁 이제껏 연습해오던 것을 실제로 하려고 교회로 떠날 때 그동안 쌓였던 온갖 피로가 일순간에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 날 저녁 나의 악몽 같은 첫 경험은 아직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 그 단상위에서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장비들을 설치하는 것부터 마지막 설교가 마쳐질 때까지 내가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막연한 희망뿐이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장비를 다 갖췄는데 프로젝터가 왜 신호를 못 읽는지 도무지 스크린에 그림이 띄워지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첫 설교는 노트북만으로 보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집중이 분산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 1시간 반 동안의 설교 내 내 마음속으로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긴장한 탓인지 땀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땀샘이 고장난건 아닌지 의심할 정도이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다들 돌아간 후에도 온 마을을 뱅 한 대로 운행하며 우리를 픽업하다보니 그저 차가 올 때 까지 교인 몇 분과 함께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늦게 까지 나를 기다려주며 이것저것 물어 봐주신 덕에 그나마 덜 무섭게 차를 기다릴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차에서 친구들을 한명 두명 만났을 때는 그냥 아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서로가 소중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들 상황이 힘들긴 마찬가지이었다.

그렇게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고 숙소로 향했다. 매일 저녁 설교를 위해 낮에는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한 것이 시간을 정해 근처 바다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다.

교회에서 잊지 못할 경험은 2주차 안식일 때였다. 유난히 아이들이 많고 10대의 비중이 많은 AGNAGA교회는 안식일을 상당히 재밌고 은혜롭게 보냈다. 예배가 마치고 점심식사가 끝나자 youth worship이라 하여 청년들과 아이들이 모여 함께 song game이라는 것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2씩 짝지어 노래를 짧은 소절 부르는 것이다. 잘하는 것을 떠나서 다들 거부하는 사람도 없이 너도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또 성경을 이용한 게임을 하는데 두 팀으로 나뉘져 성경 구절을 찾고 단어를 몸으로 설명하면 팀원들이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다.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해도 이렇게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만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또 그 시간이 끝나자 아이들이 모두 함께 다 같이 방문을 다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모두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고 안식일을 기록하게 또 신나게 보내는 것 같았다. 또 해가 지자 social night 라 하여 동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아이들을 초청하여 동네 초등학교를 빌려 밤늦게 까지 게임을 하며 서로 우정을 나눴다. 그것을 통하여 실제로 교회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아이들도 많다고 했다. 이런 삶이 정말로 예배가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 했다. 그리고 어느덧 16일이 지나 마지막 떠나는 날 안식일 오후 침례식에 86명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거듭났다. 아이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가톨릭 신자였던 어른들도 그들의 선택이 정말 귀해보였다. 이렇게 길다면 긴 16일간의 모든 미션이 끝이 나고 일요일 오후에 짐을 싸서 정든 Romblon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웅하며 끝내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며 많은 것을 전해주지 못했지만 우리의 진심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달된 것 같아 감사하고 기뻐다.

한국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돌아오고 나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교회가 그리워진다. 꼭 그들의 결심이 하늘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또 아직은 약한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성장해서 마지막 하늘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단원 소감문

서현석

신학과 2학년

그래도 행복합니다

2011년 6월26일 삼육대학교에 모여서 합숙을 시작했다. 영어 설교를 20개 가까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2주가 조금 넘는 합숙훈련을 마치고 7월12일 아침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이동하였다. 필리핀에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봉사할 곳은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하루를 이동해야 되는 롬블론이라는 섬이었다. 배와 지프니, 버스를 이용하여 20시간 가까이 이동하여 롬블론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함께 묵게 될 숙소에서 내가 매일 가야 할 선교 사이트까지는 뱃을 타고 한 시간을 더 가야 했다. 더 멀리 있는 친구들은 한시간반을 가야 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렇게 매일 매일 왕복 두시간을 넘게 차를 타고 이동하며 설교를 해야 하는 힘든 환경이었지만 이 모든 선교 봉사를 끝내고 돌아와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다.

롬블론은 필리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섬이기 때문에 문명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 그 혼한 줄리비나 그린위치 같은 것들도 없고, 자동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다. 길은 외길 하나가 해안가를 따라 나있는 것이 전부다.

가장 변화가라는 롬블론 타운에 가도 우리나라 70년대를 연상케하는 그런 환경이 전부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다. 진짜 축구공도 아니고 공 인형을 가지고 축구하면서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 부메랑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 열댓명에서 쫓아다니면서 짓는 행복한 웃음, 5페소짜리 땅콩 한 봉지 가지고 서로 나눠주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한국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 행복한가? 우리는 진짜 축구공을 가지고 있고 더욱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훨씬 비싼 간식을 먹을 돈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가? 그러한 작은 것들로 인하여 환하게 웃을 지을 수 있는가? 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런 환경의 롬블론에서 내가 설교하게 된 곳은 파가팿이라는 지역이다. 그리고 첫 집회를 하면서부터 그들에게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크다. 물론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나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는데, 설교마치고 벤이 오기를 기다리는 2시간 내내 쳐다보기만 하면서도 집에는 가지 않았다.

처음에 그렇게 어색한 만남 후 2주라는 시간동안 그들과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자는 기도제목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받고 왔다. 금요일 저녁 마지막 설교 후 작별 인사를 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며 눈물짓는 16살 여자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했고 19명의 침례자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소개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된 모습을 나는 받고 온 것 같다. 나는 문자적인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경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였다. 3주간의 Sharehim 프로그램은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서도 그래도 행복합니다.